

2010 해외 한류 동향

2011. 1

2010 해외 한류 동향

2011. 1

KOFICE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목 차

I. 목차	i
II. 해외 통신원 소개	iii

< 2010 해외 한류 동향 >

【아시아 지역】

1. 일본(도쿄)	1
2. 중국(베이징)	17
3. 중국(상하이)	29
4. 중국(홍콩)	33
5. 대만(타이페이)	41
6. 태국(방콕)	57
7. 베트남(하노이)	71
8. 인도네시아(자카르타)	75
9.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9
10. 몽골(울란바토르)	95
11. 카자흐스탄(알마티)	107
12.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113
13. 인도(뉴델리)	123

【미주 지역】

1. 미국(로스앤젤레스) -----	129
2. 멕시코(멕시코시티) -----	137
3. 브라질(상파울루) -----	141

【유럽·아프리카 지역】

1. 프랑스(파리) -----	151
2. 이집트(카이로) -----	167

통 신 원 소 개

지 역	국 가 (도 시)	성 명	약 력
아 시 아	일 본 (도쿄)	한도 치즈코	- 리코대 사회학과 졸업, 서강대 사회학과 문학석사 - 현재) 도쿄 펠리스여학원대학 한국어 강사 세이케이대학 한국어 강사 무사시노 대학 강사 도쿄 외국어대학 한국어 강사
	중 국 (베이징)	손성욱	- 북경대학교 역사학계 대학원 석사 - 현재)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중 북경 항삼 국제교육문화교류중심 외연부팀장
	중 국 (상하이)	장진영	-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한유통 근무 - 현재) 아주(북경)문화전파유한공사 지사장
	중 국 (홍콩)	이성화	-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졸 - KBS 한국방송 교양제작부 작가 - 여성동아 편집부 기자 - 현재) 일본계 무역회사 MP(해외마케팅 매니저)
	대 만 (타이페이)	홍길동	- 금강대학교 통상통역중국어학과 졸업 - 현재)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석사 과정 중
	태 국 (방콕)	윤경미	- 태국 Assumption University(전공: 마케팅) - 삼성전기(주) 태국법인 GOC 근무 - 홍익대학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수료
	베트남 (하노이)	웬민옥	- 주 베트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근무 - 현재)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근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진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부품 회사 근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김지연	- 2009년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개척요원 선정 - 현재)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과정 중 ㈜씨앤이캐스트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 근무

지 역	국 가 (도 시)	성 명	약 력
아 시 아	몽 골 (울란바토르)	몽흐 자르갈	-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졸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사무소 행정원 -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 몽골 행정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재)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안창현	-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대학원(석사) - 카자흐스탄 국립 ABAY 사범대학교 전임교수 - 현재) 카자흐스탄 예술 아카데미 교수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 '고려사람(TV)' 아나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명숙	- 클릭 인터네셔널 근무 - 한국 P&G 근무 - EDELMAN 기업 PR 마케팅 관리부 팀장 - 현재) KBS 라디오 '한민족 하나로' 통신원
	인 도 (뉴델리)	김현혁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립네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 이슬람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문화사업 활동 중
미 주	미 국 (로스앤젤레스)	김준희	-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졸업 - Los Angeles Film School 졸업 - 현재) CK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멕시코 (멕시코시티)	박금정	- 한양대 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사 전공 - 현재) YTN 해외 방송팀 멕시코 리포터
	브라질 (상파울루)	임정희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현재) 한국문화 강사
유럽 · 아프리카	프랑스 (파 리)	민지은	- 파리 3 소르본 누벨 대학 문화경영학과 대학원 석사 - 현재)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중 - 파리 소르본 대학 아시아연구소 CHAC 연구원 - 프랑스 사회문화 연구기관 Cerlis연구소 연구원
	이집트 (카이로)	오세종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졸업 - 현재) 이집트 한국대사관 문화원한국어 강사 -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알순대학 한국어과 강사

【 아시아 지역 】

2010 일본 한류 동향 보고

일본 / 도쿄

한도 치즈코 통신원

야마카와 토모코 통신원

나카즈미 야스에 통신원

◆ 총 평

1. 드라마

후지TV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한국드라마를 방송하는 ‘韓流α(한류알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마침 방학기간이었던 학생들이 한류드라마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 방영될 때는 동 시간대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일본 TV에서 한국드라마 방송 시간대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방영권의 가격이다. 방송국 업계의 전체적인 불경기 때문에 방영권이 비교적 싼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드라마의 선전은 DVD 발매형태와도 관련이 깊다. 후지TV의 ‘韓流α(한류 알파)’는 한국드라마를 일본어 더빙으로 방송하지만 DVD판에는 일본어 자막처리가 되어있어, 시청자들은 한국배우의 오리지널 음성을 들으면서 일본어 자막으로 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형식은 원래 DVD 제작 형태와는 다르지만, 한류 팬의 특성을 반영한 제작방식으로 인기를 얻으며 대다수의 한국 드라마 DVD가 이렇게 제작·판매되고 있다.

지상파에서는 최신작보다는 과거에 위성방송 등에서 방송되거나 DVD등 다른 매체에서 벌써 인기를 얻은 몇 년 전의 작품을 반복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 영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전문지 ‘기네마 순보’에서 선정한 ‘연간 베스트10 외국 영화’ 부문에서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2위,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가 4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몇 년 전처럼 주연배우의 스타성에 의존하는 대형 작품은 줄어들어,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높은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최대의 ‘동경국제영화제, TIFFF’의 ‘아시아의 바람 부문’에서 신수원 감독의 <레인보우>가 최우수 아시아영화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의 높은 작품성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이밖에도 가을에 개봉된 <여행자>, <의형제>, <고스트> 등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에서 열린 영화제에서는 한국의 작품이 빠지지 않고 상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한국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한국영화 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일본 내 한국영화 배급회사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시네캐논(Cine Canon)’사가 한국영화를 비싼 가격에 구입했지만 일본에서의 흥행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도산한 일도 있었다.

일본 영화계에서 한국영화는 대중적 성공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소수의 마니아적인 팬층을 두텁게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영화전문잡지 ‘피아’에 의하면 2011년 한국영화의 기대주로 강동원과 장근석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3. K-Pop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변화된 분야는 K-Pop일 것이다. 2009년까지는 동방신기의 폭발적인 인기와 보아의 활약이 K-Pop을 견인해 왔으나, 2010년 들어 카라, 소녀시대, 포미닛, 브라운아이드걸스 등의 걸그룹이 잇따라 일본에서 데뷔하자, 일본에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K-Pop 붐이 일어났다.

소녀시대는 8월 11일 타이틀곡 ‘GENIE’로 오리콘 차트 2위, DVD 음반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카라의 ‘미스터’는 5위를 기록, 해외 여성 그룹의 데뷔곡으로는 탑10에 이름이 올랐는데, 이는 29년 8개월만의 일이었다고, 아시아 여성 그룹으로

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다.

작년에는 동방신기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일본의 국민 프로그램 ‘NHK 홍백가합전’에는 올해 K-Pop 아티스트는 1명도 출연하지 않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서 K-Pop의 인기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국민에게 어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제작진이 밝힌 이유다.

일본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멋있고 노래도 춤도 스타일도 완벽한” 소녀시대나 카라보다는 “손이 닿을 수 있고 옆에 있을 수 있는” AKB48을 더욱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별로 볼거리 없는” AKB48보다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걸 그룹을 지지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시간	방영일
TBS	겨울연가 완전판 아름다운 날들, 올인	월~금 10:05	1월~3월
	아이리스	수요일 오후 9시	4/21~9/1
	꽃보다 남자	월요일 심야 2시	4/5~재방송
	봄의 왈츠	월~금 10:05	5/6~6/2
	천국의 계단		6/4~7/5
	온 에어		7/6~8/4
	히어로		8/5~8/26
	나쁜 사랑		8/27~9/24
	스타의 연인		10/11~11/3
	신데렐라 맨		11/4~11/16
	눈의 여왕		11/17~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시간	방영일
TBS	칼잡이 오수정	월~화 25:55	9/21~
FUJI TV	내 이름은 김삼순, 화려한 유산	월~금 14: 07	1/11
	뉴 하트		4/1~30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5/6~27
	환상의 커플		5/28~6/21
	달자의 봄		6/21~
	D R E A M	토 심야 2시반	3/28~
	내 이름은 김삼순	월~금 14:07 <한류알파>에서	7/9~7/16
	궁~Love in Palace		7/19~8/19
	부활		8/20~9/17
	엑시던트 커플		9/20~
	신데렐라 언니		10/5~11/2
	찬란한 유산		11/4~
	미남이시네요	월~금 15:25 <한류알파>에서	7/20~8/10
	커피프린스1호점		8/11~9/8
	어느 멋진 날		10/4~10/25
	1%의 어떤 것		10/26~11/17
	스캔들		11/18~
	탐나는 도다	화요일 26:35	11/23~
TV-TOKYO	카인과 아벨	월~화 12:05	1/26
	주몽	목~금 12:35 일요일 11:55	4/15~2011/2/4
	풀 하우스	목요일 11 : 30	10/7~
NHK	스포츠라이트(후반)	토요일 21:00	1/10
TV-ASAHI	한일합작 텔레시네마	일요일 23 : 00	8/8~9/12
TOKYO MX TV	경성 스캔들	수요일 12: 00	2/3
NHK BS	이산	일요일 오후9시	8/2~
NHK HI-vision	이산	금요일 오후10시 2회 연속방송	6/18~
B S NTV	여인천하, 용의 눈물, 내 여자, 열여덟 스물아홉, 바람의 화원, 식객 등		

방영 채널	제 목
BS ASAHI	연개소문, 장희빈, 아내의 유혹, 천추태후, 황금 신부, 인어아가씨, 꽤도 흥길동 등
BS TBS	조강지처 클럽, 커피 프린스 1호점, 파리의 연인, 9회말 2아웃, 아이리스, 파트너, 가을동화, 대장금, 공부의 신 등
BS JAPAN	일지매, 우리 집에 왜 왔니, 신데렐라 맨, 미남이시네요, 파스타, 미안하다 사랑한다, 맨땅에 헤딩
BS FUJI	주몽, 선덕여왕, 바람의 나라, 친구-우리들의 전설, 찬란한 유산, 내 이름은 김삼순, 김수로, 뉴 하트 등
BS digital	TV소설-인생화보, 연애시대, 온 에어, 개와 늑대의 시간, 일지매,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의 어떤 것, 안녕하세요 하느님 등
B S 日 TELE	여인천하, 용의눈물, 탐나는 도다, 왕과 나, 열아홉 순정, 정약용, 포도밭 그 사나이, 금지옥엽 등
B S 朝日	아내의 유혹, 천추태후, 황금신부, 솔약국집 아들들 등
WOWOW	수상한 삼형제, 로드 넘버 원

2. 영화 산업

(1) 개봉작품

제 목	일자	장 소	비 고
위낭 소리 (牛の鈴音)	09.12.19	銀座시네파토스, 新宿바르트9 외	
피암도 (彼岸島)	1.9	시네마라이즈 (배급 Warner brothers)	감독: 김태균 주연: 이시구로 히데오
The Scam (作戦)	1.16	도쿄 · 시네마트롯본기, 오사카 · 시네마트心齋橋 외	감독: 이호재 주연: 박영하 (SPO)
사요나라 이쓰카 (サヨナライツカ)	1.23	전국 순차 개봉 (배급 ASMIC ACE)	감독: 이재한 주연: 나카야마 미호
과속 스캔들 (過速スキャンダル)	2.13	도쿄 씨네 캐논 유라쿠초 나고야 피카데리 오사카 우메다가든시네마 외 전국 순차 개봉	주연: 차태현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悲しみよりもっと悲しい物語)	2.27	도쿄 시네마트 신주쿠, 오사카 시네마트 신사이바시 외	감독: 원태연 주연: 권상우
박쥐 (Thorst, 渴き)	2.27	도쿄 Humantrust cinema有楽町, 도쿄 무사시노칸 외	감독: 박찬욱 주연: 송강호, 김옥빈
닌자 어쌔신	3.6	新宿미라노3, 시네마트心齋橋 외	주연: 비

제 목	일자	장 소	비 고
똥파리 (息もできない)	3.20	전국 순차 개봉 (2010.11.25현재 상영중)	감독: 양익준 제10회 도쿄 filmex 최우수관객상, 최우수 작품상
크로싱 (クロッシング)	4.17	도쿄 Shibuya euro space, 나고야 score 외	
텔레시네마 7	5.29	도쿄 TOHO시네마롯본기힐스 외	돌의 꿈, 결혼식 후에, 낙언, 19, 천국의 우편배달부, 트 라이앵글, 얼굴과 마음과 사 랑의 관계
전라의 시 (チヨルラの詩)	6.12	도쿄 시네마트 롯본기 외 전국 순차 상영	감독: 카와구치 히로후미
김씨 표류기 (彼とわたしの漂流日記)	6.19	도쿄 신주쿠 바르트9 외 전국 순차 상영	감독: 이해준 주연: 정재영, 정려원
인사동 스캔들	6.26	도쿄 시네마트 롯본기 외	주연: 김래원, 엄정화
평행이론 (Parallel Life, パラレルライフ)	7.24	시네마 square tokyu 외 전국 순차 상영	주연: 지진희, 하정우
Good Morning President (グッドモーニング・プレ ジデント)	7.24	시네마트 신주쿠 시네마트 신사이바시 외 전국 순차 상영	주연: 장동건 외
로보트 태권V (テコン V)	8.7~27	Theater NShibuya (Late show)	Digital remaster print
시크릿 (SECRET, シークレット)	8.21	도쿄 Cinema square Tokyu 외 전국 순차 상영	주연: 차승원, 송윤아
No Boys No Cry ノーボーイズ・ノークライ	8.22	시네마라이즈, 新宿武蔵野館, 시 네·리브르池袋 외 전국 순차 상영	한일 합작 작품 주연: 하정우, 쓰마부키사토 시, 간지야시호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good bad Weird)	8.28	新宿바르트9, TOHO시네마즈롯 본기힐스 외 전국 순차 상영	주연: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마더 (母なる証明)	9.22	도쿄 parthenon TAMA	주연: 원빈, 김해자
해운대 (TUNAMI)	9.25	도쿄/ 신주쿠 바르트9 외	주연: 설경구, 하지원
먼 하늘	9.25	신주쿠 Ks cinema 외 전국 순차 상영	주연: 우지야마리나, 김은수, Mike Han
미인도 (美人図)	9.25	시네마트新宿, 시네마트롯본기 10월 이후 시네마트心齋橋외 전국 순차 공개	
여행자 (冬の小鸟)	10.9	岩波(이와나미)홀	2009 도쿄 국제 영화제 아 시아의 바람 부문 최우수상 수상 작품
국가대표 (国家代表)	10.23	新宿시네마 스퀘어 외 22곳에서 개봉	주연 : 하정우
이웃집 좀비(隣のゾンビ The Neighbor Zombie)	10.23	Ikebukuro테아터 다이야에서 레이트쇼	독립 영화
의형제 (義兄弟)	10.30	시네마트新宿 외 7관	주연 : 송강호, 강동원

제 목	일자	장 소	비 고
Ghost (ゴースト-もう一度抱きしめたい)	11.13	전국 개봉 (305관)	주연 : 송승헌, 松嶋菜々子 (Matsushima Nanako)
이끼 (黒く濁る村)	11.20	MarunouchiTOEI 외 전국9관에서 개봉	감독 : 강우석 주연 : 박해일

(2) 영화제 등

영 화 제	일자	장 소
	비 고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	1.16	도쿄,오사카, 홋카이도, 나고야, 후쿠오카
유바리 판타스틱 영화제	2.25~3.1	홋카이도 유바리 시
	<도쿄 Taxi> <이웃집 좀비> <유쾌한 도우미> 외 4편	
한국영화 특집 2010	3.6~3.26	오사카 시네 누버
	최근 10년 동안의 16작품 상영.	
진! 한국영화제	4.3~4.30	오사카 제7예술극장
	<하늘을 걷는 소년> 외 상영	
동아시아 이주 공생 영화제 2010	6.26~6.27	Kumamoto Kyushu Kumamoto Gakuen Univ. Takahashi Morio(高橋守雄)Hall
	<로니를 찾아서> <시선1318>	
제24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2010	7.2~7.11	후쿠오카 Kyushu 일불회관홀, NTT YumeTenjin Hall
	상영작 24편중 한국은 6작품. <전우치> <특별시의 사람들> <비상> <히로시마 · 평양> 등	
한류시네마페스티벌2010	8.21~9.24	시네마트 롯본기, 시네마트 신주쿠, 시네마트 신사이바시(오사카)
	<거북이 달린다> <아랑> <오감도> <애자> <10억> <바람 피우기 좋은 날> <마린보이> <girl friends> <아빠는 여자를 좋아해> < 공공의 적>	
제32회 Pia Film Festival	7.16~7.30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필름 센터 홀
	이상우 감독 특집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10 새로운 애니메이션	9.18~10.1	도쿄 키치조지 바우스theater
	<먼지 아이> (정유미 감독)출품	
제3회 Downtown 코메디 영화제 in 다이토	9.16~9.20	도쿄 우에노, 아사쿠사(다이토구)
	<국가대표>가 오프닝 작품으로 선발됨	
동아시아 영화 페스타	9.23~9.28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아지비 홀
	<날아라! 펙킨> <하늘을 걷는 소년> <지금, 이대로가 좋아>	

영 화 제	일자	장 소
	비 고	
제5회 UNHCR 난민 영화제	10.1 ~ 10.30	전국 (홋카이도, 군마, 도쿄, 사이타마, 효고, 가나가와, 후쿠오카 등)
	<크로싱>	
DAMAH 영화제 in Hiroshima	10.16 ~ 10.30	도쿄 신쥬크 사무라이 극장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The After...> <Father and Son> <Usage of Sickie>	
도쿄 국제 영화제 (TIFF)	10.23 ~ 10.31	도쿄 TOHO cinemas Roppongi hills
	<무적자> <이끼> <요술> <레인보우> <카멜리아>	
코리안 시네마 위크 (TIFF共催企画)	10.23 ~ 10.24	Shinjuku Mirano 1
	<하모니> <내 짝패같은 애인> <식객2> <집행자> <베스트셀러>	
제23회 도쿄 국제 여성 영화제	10.23 ~ 10.26	도쿄 Cervantes 문화센터 외
	<날아라 펭귄>	
Short Shorts Film Festival & Focus on Asia	10.28 ~ 10.30	도쿄 사진 미술관
	<The Queen> <유쾌한 도우미>	
제32회 GifuAsia영화제	11.5 ~ 12.5	Aichi Gifu 문화센터
	<영화는 영화다> <위낭소리>	
도쿄 아시아 시네마 selection	11.6 ~ 11.7	도쿄 도청
	<도쿄 TAXI> <그의 결혼식> <DUST KID>	
Endoji(円頓寺)영화제 2010	11.2 ~ 11.13	나고야 Endoji 상가 일대 Meitetsu in 나고야 Hotel
	<The After...> <젓가락 행진곡>	
K-Pop DREAM CONCERT History 07'~09'	11.13~	전국 개봉 (33관)
	출연: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외	
제20회 TAMA CINEMA FORUM	11.20 ~ 11.28	도쿄 Parthenon TAMA
	<크로싱> <똥파리>	
도쿄 FILMEX	11.20 ~ 11.28	도쿄 Yurakucho · ASAHI Hall
	<시>	
도쿄 Downtown Cool Media Festival	11.26 ~ 11.28	도쿄 Sumida-ku 일대
	한국영화아카데미 7작품 상영	
오사카 한국영화 주간 (오사카한국문화원 주최)	11.27 ~ 11.30	오사카 시네마트心斎橋
	<그랑프리> <친정엄마> <식객:김치전쟁> <파주>	

3. 음악 산업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 시	아티스트	행사명	공연장소
1.10	엠투엠	엠투엠 콘서트 2010-새로운 여행	도쿄 시나가와호텔 스테라볼
1.22	엠씨몽	Happy New Year Live & Talk	도쿄 강동 공회당
1.23	박효신	JAPAN FIRST CONCERT 2010 GIFT	도쿄 나가노선 플라자
1.23	파란, 유키스	Fan Meeting 2010 - Let's PARTY	도쿄 라포레 롯데기 박물관
1.23~24	비	LEGEND of RAINISM 2009/2010	오사카 오사카조홀
1.26	샤이니	샤이니 Mini Live and Fan Meeting in NAGOYA	나고야 추교대학시민문 화회관 오로라홀
2.6	샤이니, 휘성, 윤하, 엠투엠	제61회 삿포로 눈축제 「K-POP FESTIVAL」 in Sapporo	삿포로 시민 홀
2.7	V.O.S, 케이윌, Zero	한류 발라드의 제전 in SAPPORO	삿포로 시민 홀
2.7, 19	카라	카라 First Showcase in JAPAN	도쿄아카사카 BRITZ
2.12	이승기	이승기 Live and Talk "I WISH"	나카노 선플라자
2.14	김범수, 채동하	김범수·채동하 Sweet Valentine Concert 2010	도쿄 분쿄시빅홀(main)
2.14	케이윌	Asia Pops Festival in Nigata	니가타 현민회관
2.25	신혜성	'Find Voice in Song' 쇼케이스	제프 도쿄
3.5	초신성, V.O.S, Pixy	FNS 자선 캠페인 "한국 Music Festival 2010"	요코하마 카나가와 현 민 홀
3.6-7	신승훈	2010 The Shin Seung Hun SHOW in Japan - 데뷔20주년 기념콘서트	도쿄, 요코하마 도쿄 국제 포럼 홀A 외
3.6	EVAN	1st Live concert in Tokyo 2010	시부야 듀오(DUO)
3.26	드렁큰 타이거 외	Crazy Night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스텔라볼
3.28	디셈버, 바비킴	SOUL MUSIC STREAM 3.28 in Billboard live Osaka	오사카 빌보드 라이브홀
4.11	오종혁(OJ), JUST	한일 뮤직 페스티벌 인 도쿄	도쿄 분쿄시빅 홀
4.11	유리상자	JAPAN 1st Concert	도쿄 라포레뮤지엄 롯 폰기
4.12	이승기	KBS World '1박 2일' in JAPAN PREMIER 이승기 스페셜 & 팬미팅	오사카 NHK 오사카 홀
4.16	이완	이완 Special Meeting OSAKA	오사카 다이토시 종합 문화센터
4.16	씨엔블루	1st Album Release live Encore	시부야 QUATTRO 클 럽 LIQUIDROOM

일 시	아티스트	행사명	공연장소
4.17~18	비	Legend of Rainism 2009/2010 RAIN Asia Tour-Japan Final	요요기 실내경기장
4.22	조관우 외	한류 Stars GARA 콘서트 2010	도쿄 국제포럼 홀A
4.23	초신성	초신성 2010 비약 Six Stars with you	NHK 홀
4.24	샤이니, T-MAX, 에프엑스	New Generation Live in YOKOHAMA	퍼시픽코 요코하마 국 립 홀
4.25	SS501	Hallyu Fan Card Event Take-1	사이마타 슈퍼 아레나
4.27	환희	팬클럽 창립식	나가노 선플라자 홀
4.27	김종국	JAPAN Concert 2010 in Tookyo	나가노 선플라자 홀
5.5	휘성	WHEE SUNG 2010 Concert in Japan The Acoustic	도쿄 라포레뮤지엄 롯 폰기
5.7	카라	카라 Special Premium Box for JAPAN	아카사카 그랜드 프린 스 호텔
5.8	포미닛	포미닛 LIVE Energy vol.1 Muzik	제프 도쿄
5.9	초신성	BREAK LIVE and FUN! At Universal Studios JAPAN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 디오
5.11~12	SG 워너비	Concert 2010 Story of WANNA BE -VOYAGE-	시부야 C.C. 레몬 홀
5.15	케이윌	First Live Concert with Band in Tokyo 2010	히카리가오카 IMA 홀
5.22	JK 김동욱	싱글앨범 판매 기념 콘서트	긴자 야마하 홀
5.23	FT아일랜드	싱글앨범 '플라워 록(Flower Rock)' 발매 기념 프리 라이브 이벤트	도쿄 라쿠아
5.27	민경훈	MIN KYUNG-HOON Tokyo LIVE 2010 재회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스텔라볼
5.28	레인보우, 대국남아	제3회 SEOUL TRAIN with Rainbow and 대국남아	도쿄 유포토 홀
5.29	빅뱅, 2NE1	MTV VIDEO MUSIC AWARDS JAPAN 2010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
6.4	ZE:A	ZE:A FAN EVENT and LIVE in YOKOHAMA	요코하마 블리츠
6.5, 12	JYJ	THANKSGIVING Live in DOME	오사카 교세라돔, 도쿄돔
6.6~7	신혜성	2010 SHS - Find Voice in Song - Tour in Tokyo	도쿄국제 포럼 홀A
6.13	FT아일랜드	FT아일랜드 공식팬미팅 PARTY PART2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스텔라볼
6.17~18	류시원	류시원 투어 2010	도쿄 국제 포럼 홀A
6.19~20	박용하	박용하 콘서트 투어 스타즈 2010	요코스카 예술 극장

일 시	아티스트	행사명	공연장소
6.20	박시후	FAN MEETING in OSAKA2010	오사카 ION 화장품 theatre BRAVA
6.22~23, 25,28~29	비	RAIN LOVE TOUR 2010	제프 도쿄, 제프 후쿠오카, 제프 오사카
6.23	씨엔블루	씨엔블루 1st single Release Event -The Way-	오사카시부야 QUATTRO 클럽
6.26	장근석, 박은혜	미남이시네요 Presents 1st Fan Meeting	시부야 C.C. 레몬 홀
7.16 22,24	FT아일랜드	제프 투어 2010-Hands UP	제프 도쿄, 제프 후쿠오카, 제프 오사카
7.17-18	비, 엠블랙	RAIN LOVE TOUR 2010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7.23	포미닛	두 번째 일본 싱글 'I My Me Mine' 발매 기념 야외 라이브 무대	도쿄돔 라크아 garden stage
7.24	빅뱅	국제연합의 친구 Asia-Pacific Global Tolerance with Music 2010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8.1	휘성, JK김동욱, 엠투엠	POP-UP Festival 2010 in Yokohama	요코하마 오산바시 홀
8.6	브라운아이드걸스	일본 데뷔앨범 'SOUND-G' 쇼케이스	도쿄 하라주쿠 아스트로 홀
8.7~8	빅뱅, FT아일랜드	SUMMER SONIC 2010	도쿄 지바 마린 스타디움 & 마쿠하리메세, 오사카 Maihama summer sonic 특설회장
8.14	카라	데뷔 싱글 '미스터' 구매자 악수 이벤트	도쿄 신키바 스튜디오 코스트
8.14	FT아일랜드	제프 투어 2010-Hands UP	히비야공원 야외 대 음악당
8.15	성시경	Premium Party 10 summer Acoustic Live and Talk	시부야 C.C. 레몬 홀
8.25	소녀시대	일본 첫 프리미엄 쇼케이스 라이브	아리야케 콜로세움
9.9~10	SG 워너비	스토리 오브 SG 워너비-Precious	시부야 C.C 레몬 홀
9.11	채동하	Seoul Train with 채동하	도쿄국제 포럼 홀 C
9.13	브라운아이드걸스	CD판매 기념이벤트 'Let's 시건방춤'	롯데기 미드타운 아트 리움
9.15	씨엔블루	씨엔블루 2nd single Release Live tour - Listen to the 씨엔블루	도쿄 시부야 악스
9.16	신승훈, 西村由紀江 (니시무라 유키에)	국제연합의 친구 Asia-Pacific Save the Neighbours with Music 2010	도쿄 국제 포럼 홀A
9.18, 20	2AM, SISTAR, 대국남아, 엠블랙	한류 뮤직 페스티벌 2010	삿포로 시민 홀, 시부야 C.C. 레몬 홀
9.26	초신성	일본 데뷔 일주년 기념 팬미팅	파시피코 요코하마

일 시	아티스트	행사명	공연장소
10.13	유키스	MADE IN BS JAPAN 유키스	텔레비 도쿄 본사
10.16	EVAN	EVAN 2nd live concert in Tokyo	도쿄 라포레 박물관 롯폰기
10.30	환희	HWANHEE Japan Live 2010 "LOVE ONE"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스텔라 홀
11.1~2	슈퍼주니어-K.R.Y, 성민, 동해	슈퍼주니어- K.R.Y Special concert in Japan 재추가 공연	고베 국제회관 국제 홀
11.2	틴탑	TEENTOP 일본 공식팬클럽 오픈기념 미팅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스텔라 홀
11.3	빅뱅, FT아일랜드, 씨엔블루, 카라, 포미닛 외	SEOUL TOKYO MUSIC FESTIVAL 2010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11.9	이문세	단독콘서트 '붉은노을'	시부야 오자드 홀
11.12	장근석	2010 JANG KEUN SUK JAPAN TOUR in 삿포로	후쿠오카, 삿포로, 고베, 요코하마
11.14	봄·여름·가을·겨울	봄·여름·가을·겨울 in Japan 2010 First Concert	아카사카 브리츠
11.19	바비킴	Bobby Kim 1st Live Concert "MY SOUL"	아카사카 브리츠
11.21	장근석	JAPAN Tour 2010 in Japan "Where is your Star?"	도쿄 니토리 문화 홀
11.22	장기하와 얼굴들	Contrarede presents 장기하와 얼굴들	도쿄 Lush

4. 공연·전시 산업

(1) 연극

제 목	일 시	지역	비 고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3.26 ~ 4.4	도쿄 시모기다자와 혼다극장	1995년에 대학로에서 처음 공연된 이래 현재까지 공연
<LOVE The World 2010>	4.23~27	Shizuoka 취지미시민회관	한일 양국의 배우에 의한 공연
<리어왕> 한일 합동공연	6.24~26	도쿄 The KOENJI	대본: 기시다 리오 연출: 김아라 극단 舞天(무천)
<한> -요쓰야 가이단-	8.8~9.15	도쿄 Theatre trum	대본: 한태숙 극단: 연극집단 엔
Floor in Attic Alice festival 2010	10.2~4	도쿄 新宿Tiny Arice	Street Theater Troupe 演戯団koripe

(2) 기타

일 시	이 름	행사명	공연장소
1.30	강지환	HAPPY NEW YEAR!	도쿄 시부야 C.C.레몬 홀
2.10~11	차태현	시사회 「과속 스캔들」 토크쇼	도쿄, 나고야, 오사카 나카노 선플라자 외
2.24, 26	권상우	“Mr. Tears Kwon Sang Woo”	오사카, 도쿄
2.26, 28	공유	“공유 팬미팅 2010 - with YOO”	요코하마(퍼시픽코 요 코하마국립Hall), 고베
3.25	윤상현, 공태유	한류! 어락 나이트 (NHK 교육방송 이벤트)	도쿄 고단타 유포토 홀
4.17	김남길	한일 Charity Presents 제3회 한일 우정의 페스타	도쿄 Bunkyo Civic Center
4.21	윤상현	윤상현 Premium Talk and Live	도쿄 신주쿠 메이지야 스다 생명보험홀
4.28	이준기	2010 LEE JUN KI FAN EVENT HERO in JAPAN	요코하마 아레나
4.29	현빈	2010 HYUN-BIN Do the motion Hello My barista!	요코하마 아레나
4.29	고수	KNTV Premium 2010	신주쿠 문화 센터
5.16	오만석	Japan 1t Fan Meeting	오사카 마츠시타 IMP HALL
6.1	이병헌, 김태희 외	드라마틱 라이브스테이지 <아이리스>	사이마타 슈퍼 아레나
6.6	박혜진	Supecial Fan Meeting 2010	후쿠오카 토쿠시 회관
7.18	박용하	헌화식(献花式)	도쿄국제포럼
8.8	정경호	Choung Kyung-ho 1st Fan meeting	도쿄 히카리가오카 IMA hall
8.4, 5, 10,11	권상우	팬미팅 Birthday Event '당신과 함께 Birthday'	도쿄 C.C. 레몬홀 고베 국제 회관
8.21	김현중, 구혜선, 김범, 김준	<꽃보다 남자> 동창회	도쿄오사카국제컨벤션 센터 국제포럼 Hall A
9.17	하정우	<국가대표>무대인사	시다마치(down town) 코미디 영화제
9.18	윤은혜	팬미팅	나가노 제로홀
9.19, 20	김준, 김재욱	휴대폰 드라마 'Docomo&Avex' 이벤트	도쿄 MELPARK
9.20	송승헌	Song Seung Heon 2010 Fan Meeting 'SH and ASTO JAPAN'	요코하마 아레나
10.6	김승우	아스리트 자판드림게임 2011 in Tokyo 우리는 하나다	도쿄 돔 호텔 지하1층 연회장
10.16	강지환	강지환 주연 뮤지컬 <카페인>	도쿄 글러브와 극장

일 시	이 름	행사명	공연장소
10.23	김윤진, 강태규 감독	제23회 도쿄국제 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워크 2010 무대인사	신쥬크 미라노 극장
10.24	소지섭, 윤계상, 김하늘	WOW FES! 2010 한국드라마 <로드 넘버원> 무대인사 & 프리미엄 시사회	롯데기 도쿄 미드타운 홀 A
10.26	박혜진	심야드라마 <借王2>(샷킨구) 제작발표 기자회견	도쿄 와우와우TV본사
10.28	구혜선	도쿄 국제영화제 <요술> 무대인사	토호 시네마 롯데기 힐즈
10.29	박혜일, 강우석감독	도쿄국제영화제 <이끼> 특별상영 무대인사	토호 시네마 롯데기 힐즈
11.7	신성록	신성록 1st Fan Meeting in Osaka	오사카 Lighty Hall
11.9~11	강지환	<7급 공무원> 일본 프리미엄 무대인사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11.12	차승원	차승원 First Event	도쿄 티아라 코도
11.18	이정재	이정재 팬미팅 2010	도쿄 국제 포럼 홀
11.18	박정민	뮤지컬 <키즈나 - 소년이여 대지를 품어라>	신국립극장 중극장
11.19	원빈	Wonbin Private DVD & CD Book 제작 발표 기념 팬미팅	도쿄 국제 포럼
11.19	천정명	천정명 팬 미팅 2010	도쿄 국제 포럼

5. 캐릭터 · 애니메이션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비 고	
한국 전통예술의 내일	1.24	사가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홀
	한국 국립 국악원, 한국 국립 민속 국악원 창극단 외 참가	
아시아의 나전(螺鈿)	2.26	큐슈 국립박물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국 참가자들의 나전 관련 세미나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비 고	
한국의 민화와 그림책 원화전	4.3~5.23	효고 니시노미야시 오타니 기념미술관
	한국의 옛 민화와 현대 그림책 다수 전시	
한국 도자기전	4.1~6.27	도쿄 일본 민예관
‘태왕사신기’ 신편집판 상영회	4.10~	도쿄 신주쿠 바르트9, 오사카 우메다브르크7 외
제12회 뱃부 아르케릿치 음악제	4.9~27	뱃부/큐슈 비콘프라자 오이타/큐슈 이치코 종합문화센터 후쿠오카/큐슈 Across Fukuoka 외
	‘한일 문화교류 오케스트라 · 콘서트’에 지휘자 정명훈 참여	
‘한반도의 노래, 섬의 노래’ ‘음악과 시의 세계’	4.28	이바라기 쓰쿠바 카피오카 홀
	한일 재즈 아티스트 다수 참여	
한국전쟁60년 - 전쟁터의 기록	4.17~6.27	요코하마 일본 신문박물관
	뉴욕 Daily News 사진 Collection	
SS501 Live at Cinemart	5.22~6.4	도쿄 시네마트 Roppongi, 오사카 시네마트 Shinsaibashi
	2009년 8월 13일에 무도관에서 열린 SS501 콘서트의 라이브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최진실 추도 ‘90년대 한국 영화 걸작선’	6.16~ 2011.6.11	도쿄 분쿄 Civic Center, 아카데미 분쿄
	한국 문화원 기획 행사 한 달에 한 편씩 최진실의 대표작을 12편 상영	
THE MAN 사진전	6.11~6.16	도쿄 CCAA Art Plaza
	41명의 한류스타들의 사진전	
야나기 무네토시 '조선과 예술'	6.9~19	도쿄 한국문화원 갤러리
	한국문화원 개관 1주년 기념 이벤트 6.15일 기념 강연회	
김덕수 사물놀이 - 쓰가루 샤미센과 함께	7.7	도쿄 메르파르크 홀
신국제협조주의에서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7.10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교
	제9회 Korea Reserch Center 국제 심포지움	
한일문학 교류의 현재, 과거, 미래	7.16~17	도쿄 무사시 대학교
	시인 이상의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일교류 친선 콘서트 2010 in 나가레야마	7.11	치바 나가레야마 생애학습센터
	한국 전통예술 음악그룹 ‘나무’, 샤미센 민요 연주가 ‘츠루야’ 참여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비 고	
한중일 우정의 꽃다발 콘서트	8.11	도쿄 츠노바wm 홀
일본과 한국의 미술교류	7.22~8.3	오비히로/홋카이도 시민 갤러리
	오비히로 지방의 평원사미술협회와 제천시 제천미술협회의 교류전	
제16회 현대 미술 한일전	8.1~5	도쿄 타워홀 후나보리 전시 홀
	1995년 서울에서 제1회 개최	
잊혀진 조선 문화유산	9.1~11.14	도쿄 고려박물관
한일 교류 축제 한마당	9.19~21	도쿄 롯폰기힐스 아레나 외
	한일 미니라이브(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IKKO상), 노래자랑, 김치 축제 등	
부산시 미술관 교류전	9.18~11.3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자매교류 20주년 기념 행사	
Asian Art collection	9.18~11.14	큐슈 쿠나모토시 현대미술관
2010 한일 어린이 전시교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림책	10.21~12.26	국립 국회 도서관, 국제 어린이 도서관
남북한과 후쿠오카의 친구들	11.1~7	후쿠오카 Across Fukuoka
	후쿠오카의 일본 아이들, 재일 교포 아이들 및 한반도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	

2010 중국(베이징) 한류 동향 보고

중국 / 베이징
손성욱 통신원

◆ 총 평

200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은 중화권 지역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올해 상하이 엑스포를 거치며 중화 민족주의와 폐쇄적인 애국주의가 점점 고조되면서 혐한(嫌韓) 감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한류와 혐한이 충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69성전’이다.

‘69성전’은 5월 30일 상하이 엑스포에서 열린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소동이 도화선이 되어 6월 9일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을 디도스 공격한 사건을 말한다.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에는 슈퍼주니어, 보아, 강타 등 한류 스타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공연 전날부터 수만 명의 한류 팬들이 무료입장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무료입장권 수를 줄이면서 한류 팬들과 보안요원들이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한류 팬들을 질책하는 여론이 일어났으며 ‘69성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올해 한류 동향 총평이라 하며 ‘69성전’ 이야기를 꺼낸 것은 ‘69성전’을 통해 한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9성전’은 중국의 뒤흔어진 애국주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후 또다시 한류가 그들의 잘못된 애국주의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다면 한류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본 통신원은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한국적인 것에 기반을 둔 아시아적인 모델, 더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언을 하는 이유는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강하게 분 K-Pop의 인기에 기인하고 있다. 올해 K-Pop의 인기는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키워진 아이

돌 그룹에 의해 일어났다.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 세련된 안무, 매력적인 퍼포먼스가 중국 한류 팬들을 포함해 아시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아시아 팬들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한국 노래를 불러서 혹은 한국 가수라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에 반한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 한 국가의 이미지로 다른 지역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부작용이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할리우드 영화와 아메리칸 팝이 전 세계를 장악한 것은 그들이 ‘메이드 인 USA’라서가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보편적 가치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월트 디즈니사가 만든 <알라딘>, <물란>, <포카혼타스>가 지역적인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Pop이 앞으로 한류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움직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2000년대 초반, 한류 전성기 시절에 보여 주었던 인기를 얻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K-Pop이 한류를 주도한 올해처럼 내년도 K-Pop이 중국 내 한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분야에서는 중국과 합작, 교류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근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가 내년에 중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07년 이래 중국 정부의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정책에 따라 한국 드라마가 중국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해외 드라마의 중국 공중파 방영 비율은 2007년 17.1%, 2007년 15.4%, 2009년 11.1%이며,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의 경우 <소문난 칠공주>가 선전한 반면 올해에는 공중파에서 큰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가 없으며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도 손에 꼽을 정도임.

올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CCTV8을 통해 방영된 <여왕의 조건>과 후난위성을 통해 방영된 <찬란한 유산>, <아가씨를 부탁해>, <헬로우 애기씨>, 선전위성을 통해 방영된 <일지매>, <며느리 전성시대> 등. 이들 드라마는 방영 당시 일부 지역에서 시청률 10위권 안에 진입했으나 큰 인기를 끌지 못함. 올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은 2009년 중국에서 유행했던 <어여쁜 당신>(2005년), <소문난 칠공주>(2006년)에 못 미치는 수치임. <찬란한 유산>은 인터넷에서 10-2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가 감소한 이유가 가장 큼. 하지만 이와 함께 중국 내의 유행 변화도 한국 드라마 인기 하락의 큰 원인임. 최근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중국 내에서 제작되는 중국 드라마의 60%이상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작품들임.

공중파에서 한국 드라마의 방영이 줄어들면서 중국 내 한국드라마 관객층은 10-20대 위주의 젊은 층으로 축소됨. 한국드라마를 즐기는 젊은 층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드라마를 시청함. 아마추어 번역 팀들이 1-2일 사이에 거의 모든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에 올리지만 이러한 시청 방식은 사실상 불법임. 물론 인터넷이 한국드라마의 전파와 확산에 큰 공헌을 했지만 한국 드라마의 장기적인 발전과 수익 창출을 방해해옴.

이런 상황에서 올해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중국 유명 포털 사이트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임. 그 중 대표적 성과가 중국 대표 포털 중 하나인 소후가 한국의 방송 3사와 협력해 한국드라마 전용채널 사이트(tv.sohu.com/korea)를 열었음. 올해 6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 소후 한국 드라마 전용채널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한국드라마를 포함하여 총 140편의 한국드라마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방영된 한국드라마는 14편임. 현재 소후 인터넷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 Sohu(소후) 한국 드라마의 조회 순위

순위	작품명	조회수
1	찬란한 유산	24,874,277
2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7,654,341
3	장난스런 키스	16,840,853

순위	작품명	조회수
4	아가씨를 부탁해	13,257,116
5	마이걸	13,212,364
6	검사 프린세스	12,754,151
7	미남이시네요	11,548,542
8	커피프린스 1호점	11,091,775
9	천사의 유혹	10,966,426
10	나쁜 남자	10,143,339
11	여자를 몰라	8,313,036
12	천국의 계단	8,212,645
13	여인천하	7,814,882
14	오! 마이 레이디	7,743,758
15	일지매	7,743,758

이 밖에도 올해 한국 배우들의 중국 드라마나 한중 합작 드라마 출연이 눈에 띄게 증가함. 물론 과거 한류 스타들이 출연했던 중국 드라마의 저조한 성적을 볼 때, 한류 스타들의 출연이 흥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가장 큰 원인은 한류 스타들이 출연한 대부분의 중국 드라마들이 한류 스타의 인기에 편승해 철저한 준비 없이 제작되어 왔기 때문임. 하지만 올해 한류 스타들이 출연한 드라마들의 경우 중국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회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작들이 많음. 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미 인기리에 방영된 장혁 출연의 <애상여주과(爱上女主播)>, CCTV 방영 예정인 추자현 출연의 <귀가의 유혹(回家的诱惑)>, 이태란 출연의 <구름 위의 유혹(云上的诱惑)>(방영예정), 한지혜 출연의 <천당수(天堂秀)>(방영예정), 김희철 출연의 <청춘선율(青春旋律)> 등임. 이 중 <애상여주과(爱上女主播)>는 한국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의 리메이크 작이며 <귀가의 유혹(回家的诱惑)>은 <아내의 유혹>의 리메이크 작업.

* 2010년 중국 공중파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 목	방송국	방영일시
며느리 전성시대	선전위성 홍수림극장(红树林剧场)	3.15 22:00 첫 방송
일지매		4.2 22:00 첫 방송
여왕의 조건	CCTV8	3.30-6.22 17:05
찬란한 유산	후난위성 금웅독과극장(金鹰独播剧场)	4.19 22:00 첫 방송
	후난위성 청춘독과극장(青春独播剧场)	4.11 7:00 재방영
	베이징위성 청소년도(青少频道)	4.5 11:55-15:38 (00:27-03:27 재방영)
헬로 애기씨	후난위성 금웅독과극장	2010.10.11 22:00 첫 방송
아가씨를 부탁해		2010.10.23 22:00 첫 방송

2. 영화 산업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영화는 여전히 마이너로 분류되어 있으며 올해 중국 극장가에서 정식 개봉된 한국영화는 없음. 한·중 공동 투자로 제작된 <마음이2>가 한국에서 7월 개봉하면서, 중국에는 8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당산대지진> 등의 대작에 밀려 상영이 연기됨. <마음이2>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중국 북경금전영업유한공사(北京今典有限公司)로부터 2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 큰 관심을 받았던 영화임. 이는 중국 회사가 한국영화에 투자한 금액 중 최대 금액임. 특히 북경금전영업유한공사는 올해 한국에서 개봉했던 <엽문>을 제작, 투자한 제작사이며 중국 내 7백여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배급사임. <마음이2>는 중국 하이틴 스타 장한(张翰)이 출연하였으며, 중국 버전과 한국 버전이 따로 편집되어 깊은 관심을 모으기도 함. 하지만 인터넷 상에 불법 DVD가 풀려 개봉이 연기되면서 언제 개봉 예정인지조차 소식이 없는 실정임.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영화의 부진은 사실상 중국 내의 불법 복제와 다운로드에 기인함. 중국 극장가에서 마이너로 분류되는 한국영화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한국에서 큰 성공을 이룬 후에야 중국에서 개봉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하지만 이렇게 개봉이 되더라도 많은 중국인들이 불법복제와 다운로드를 통해 이미 한국영화를 관람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통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절실함. 이런 면에서 올해 특이했던 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6월 상하이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Ko-Production in Shanghai 2010' 행사를 진행한 것임. Ko-Production은 한국과의 영화 공동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성공리에 마친 이 행사는 9월 15,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됨. 한국 영화 5편과 중국 영화 5편이 참가하여 한-중 간 영화 공동제작의 가능성을 높임.

이밖에도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중국 최대 민영 배급사인 '폴리보나(Polybona Films, 保利博纳电影发行有限公司)'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함.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 최대 영화 투자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내 매년 15편의 작품을 배급하며, 폴리보나는 CJ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매년 2편이상의 작품을 투자·기획·제작·배급할 예정임.

CJ는 영화 제작과 보급뿐만 아니라 중국 내 극장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06년 상하이에 처음으로 영화관을 개관한 이래 상하이와 우한에서 영화관 3곳을 운영하는 CJ CGV가 9월 베이징과 톈진에 신점을 개관함. 이번에 새로 개관한 베이징 올림픽점은 1200석 규모, 톈진 빈하이점은 2000석 규모임. 베이징의 CGV 올림픽점은 중국 처음으로 4D 상영관과 진동 의자가 설치된 상영관을 만들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정식 개관에 앞서 CJ CGV는 한국영화제를 열어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내 흥행작인 <전우치>, <놈놈놈>, <해운대>, <마더>, <워낭소리>, <하모니> 등이 중국 관객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

3. 음악 산업

K-Pop은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간적, 지리적 제약 없이 한국 내 대중음악 소식들이 중국 내 전해지고 있음.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미 중국 내 '일한 음악 차트'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혹은 한국 내 대중가요 순위를 그대로 전하고 있음.

근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받아 온 K-Pop에 올해 들어 일련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가수들의 다양화임. 과거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소수의 한국 가수나 그룹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올 들어 포미닛, 에프엑스, 티아라 등 다양한 가수와 그룹들이 인기를 얻고 있음. 여기에는 지난 10여년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해 온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공이 큼. 이들 회사는 한국형 가수 양성에서 벗어나 아시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가수들을 양성해 왔으며, 그러한 성과들이 2-3년 전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의 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여기에 중국 내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발전하면서 K-Pop 동영상들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음.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중국 내 각종 사이트의 '일한 음악 차트'의 70% 이상을 K-Pop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한류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그들을 모방하거나 벤치마킹한 그룹들이 나오고 있음. 슈퍼주니어를 모방한 '슈퍼보이', 빅뱅을 모방한 'OK 뱅', 소녀시대를 모방한 '아이돌 걸스' 등임. 앞의 두 그룹이 한국 아이돌 그룹을 그대로 베꼈다면, '아이돌 걸스'의 경우는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소녀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한 경우임. 이들은 소녀시대와 거의 똑같은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중국 내에서 짝퉁 소녀시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 대륙 내 최초의 소녀 그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 밖에도 작년에 결성되어 올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다국적 5인 그룹 '아이 미(I me)'가 있음.

중국에서 다양한 한국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한편, 한국의 대표적 음악채널인 엠넷이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엠넷은 중국의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바오미화왕(爆米花网, www.pomoho.com)과 제휴를 통해 바오미화왕 내에 엠

넷 제휴 사이트(www.pomoho.com/mnet)를 열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엠넷은 작년 CCTV와의 사업 제휴 계약 체결, 올해 11월 28일 마카오에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 개최를 준비하는 등 중국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모색 중임.

이 밖에도 중국에서 한국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

(1) 1월 23일 저녁 중국 베이징 우커송(五棵松)체육관에서 '슈퍼주니어 THE 2nd ASIA TOUR SUPER SHOW 2 in Beijing'이 열림. 이번 콘서트는 슈퍼주니어가 베이징에서 가진 첫 단독 콘서트로, 중국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화려하게 펼쳐짐.

(2) 5월 8일 저녁 장우혁은 베이징 우커송 체육관에서 '지지 않는 태양(不落的太阳)'이라는 타이틀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함. 이번 콘서트는 3D 기술의 응용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큰 호응을 얻음.

(3) 5월 30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공원 문화예술센터에서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됨. 1부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으로, 2부에서는 강타, 보아, 슈퍼주니어, 에프엑스 등의 공연으로 진행됨. 이번 공연은 한류스타들의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지만, 수천 명의 팬들이 입장을 못했으며 운영상 미숙으로 중국 팬들과 네티즌의 질타를 받기도 했음.

(4) 6월 24일 강타가 베이징에서 팬 미팅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올 7월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콘서트에 관해 설명했으며, 그동안의 근황을 중국 팬들에 알림.

(5) 7월 6일 KBS 열린 음악회가 중국 선양에서 열림. 선양 올림픽 체육 중심(沈阳奥体中心)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3만 여명의 중국 교민들과 중국인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음. 특히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2PM, 에프엑스, 채연, 이정현 등이 많은 중국 팬들의 환호를 받아 한류 스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함.

(6) 7월 24일 저녁 7시 강타는 베이징 우커송 체육관(五棵松体育馆)에서 'KANG TA ASIA TOUR 2010 in Beijing' 콘서트를 열었음. 콘서트 시작 전 관객들의 좌석 점유율은 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공연 시작 후 40여 분이 지난 후 좌석 점유율은 70%이상 넘었으며 강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콘서트는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음.

(7) 8월 9일 원더걸스는 베이징 시단(西单) 따위에칭(大悦城)에서 쇼케이스를 가졌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원더걸스는 'Nobody', '2 Different Tears' 등 자신의 대표곡을 노래함. 원더걸스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음에도 중국 팬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원더걸스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줌.

(8) 9월 11일 상하이 홍커우(虹口) 경기장에서 'SM TOWN LIVE 10 WORLD TOUR in Shanghai(SM家族2010世界巡演)'가 열림. 이미 중국에서 연례행사가 된 SM의 중국 공연은 중국 내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번 공연에 앞서 SM 측은 어떠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티켓은 예매 3일 만에 매진됨. 이전의 동방신기도 슈퍼주니어도 없었지만, 한국(서울)과 미국(LA)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상하이에 입성한 SM TOWN은 중국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음.

(9) 슈퍼주니어는 10월 23일 베이징 수도 체육관에서, 11월 13일에는 난징 올림픽센터에서 세 번째 아시아 투어인 'Super Show3'를 개최함. 베이징 공연이 중국 북부 팬들을 위한 공연이었다면, 난징 공연은 중국 남부 팬들을 위한 공연이었음. 슈퍼주니어는 이번 공연에서 '미인아', 'Sorry, Sorry',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등 히트곡을 열창했으며, 각 멤버들은 개인의 매력을 살린 개별 무대를 선보임.

4. 공연 · 전시 산업

(1) 올해 한국 문화 공연과 전시를 이끈 것은 5월 1일 개막하여 10월 31일 폐막된 상하이 엑스포였음. 장장 6개월 동안 열린 상하이 엑스포에서 한국은 한국관과 한국기업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림. 이번 엑스포는 7,30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참관하였으며, 그 중 95% 이상이 중국인들임.

700여만 명의 관객이 찾은 한국관은 매일 비보이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을 준비했으며 끊임없이 특별 전시와 공연을 통해 중국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음. 특히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주간에는 궁중의상 쇼, 태권도 시범, 난타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짐.

(2) 한국 주간 마지막 날인 5월 30일 저녁에는 '코리아뮤직 페스티벌'이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려 큰 인기를 얻음. 슈퍼주니어, 보아, 에프엑스, 강타 등이 참가한 코리아뮤직 페스티벌에 그들을 보기 위한 중국 내 한류 팬들이 대거 모여 소소한 소동이 있기도 했지만, 중국 내 K-Pop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소동이었음.

(3) 북경에서 한국 문화 전시와 공연을 주도하는 곳은 북경 한국문화원임. 올해 개관 3년째를 맞이한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 강좌와 전시, 공연 등을 통해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전시는 지난 4월 8일 부터 13일까지 북경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칠보공예협회 작가 32명이 참여하는 칠보공예 특별전 ‘미래의 전통을 창조하다(创造未来传统)’ 였음. 또한 지난 9월 25일 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된 ‘한국 도자와 중국 이싱자사(宜興紫砂)북경전’,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실경산수화전’ 등이 있었음.

(4)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街舞爱蕾)>가 중국 유명 희극 시리즈인 ‘카이신마화(开心麻花)’ 시리즈로 수입되어 공연됨. ‘카이신마화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중국 유명 감독 펑다마(彭大魔)에 의해 개작되어 지난 6월 14~15일에 베이징 해방군가극원에서 공연됨. 이 공연은 카이신마화의 ‘희극을 학교로’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9일 중국전매대학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공연되기도 함.

(5) 지난 6월 4일 중국 광저우 싱하이음악청(星海音乐厅)에서 '2010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행사의 하나로 넘버벌 퍼포먼스 <점프>의 공연이 있었음. <점프>는 <난타> 이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 대표 퍼포먼스임. 광저우 현지 오피니언 리더, 여행 업계 종사자, 기자 등 천 여명의 인사가 초청되어 이번 공연을 관람함. <점프>를 관람한 인사들은 다이내믹한 공연에 크게 호평함. 뿐만 아니라 <점프>는 현재 중국 유명 공연 회사이자 극장 경영 그룹인 베이징 바오리극원관리유한공사(北京保利剧院管理有限公司)와 손을 잡고 중국 순회공연 중임. 지난 10월 27일 엔타이시에 위치한 엔타이 대극원(烟台大剧院)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15곳의 공연장에서 25회에 걸친 공연을 계획으로 투어 중임. <점프>는 중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점프>의 주연 배우들은 지난 11월 19일에는 후난위성의 인기 토크쇼인 <天天向上>에 초대되어 중국 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줌.

(6) 5월 11일 한국 광주시립발레단 창작 발레 <명성황후>가 베이징 티엔치아오극장(天桥剧场)에서 공연됨. 국악과 서양 발레를 접목시킨 발레극 <명성황후>는 발레의 우아함과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음.

(7)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베이징의 798예술특구에 자리한 T아트센터에 조각가 류인(1956~1999)의 ‘황토현 서곡’전이 열려 그의 대표적 13점이 전시됨.

(8) 김낙형 감독의 연극 <맥베드>가 2010년 베이징 국제 청년 연극제(北京国际青年戏剧节)에 초청되어 베이징에서 중국 관객들과 만났음.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차오 극장에서 선보인 김낙형 감독의 <맥베드>는 고전을 재해석하여 인간의 욕망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작품.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중국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

(9) 7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어기계: 한국당대예술전(DEFENSE MECHANISM -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전시가 베이징 789내에 위치한 Gallery TN에서 열림. 이번 전시는 변웅필, 신치현, 위영일, 윤종석 등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전시로 한국 미술계의 신선함을 중국 관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전시였음.

5. 캐릭터 · 애니메이션 산업

중국 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캐릭터는 ‘PUCCA(뿌까)’임. 2002년 광저우 동리기업발전유한공사(广州市东利行企业发展有限公司)가 ‘뿌까’의 개발 회사인 부즈와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2007년 중국 상품화 에이전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음. 이후 빠르게 성장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200여개의 뿌까 프랜차이즈 매장이 영업 중임.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성장세는 둔화 추세임. ‘뿌까’의 경우 세계 진출에 있어 첫 공략 대상이 중국이었지만,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세계화에 눈을 돌린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뿌까’ 이외에 그나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제토이 츠츄’임. 고양이를 캐릭터화한 ‘제토이 츠츄’의 경우 젊은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베이징 시내 캐릭터 가게와 인터넷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하지만 제토이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얻은 후 수입 판매되고 있고, 진출하기도 전에 불법복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전망은 어두움.

6. 한스타일 및 기타

한스타일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식임. 특히 <대장금> 방영 이후 한식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음. 베이징에는 수많은 한식 음식점들이 있지만 현재 베이징에서 한식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음.

베이징의 경우 음식 유행이 2-3년을 주기로 변함. 이미 2-3년 간 한참 인기를

끝었던 한식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베이징의 대표적인 한식 음식 체인이었던 '한라산'의 점포수와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음. 두 번째 원인은 작년 경제위기로 베이징 지역의 한국인이 크게 줄어든 것임.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던 한국 음식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점포수도 크게 줄었음.

하지만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는 한국 음식점들도 있음. 과거 주로 한국인들을 상대했던 한국 음식점들이 점차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쳐 나가면서, 높은 음식 수준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한 예로, 베이징의 왕징과 우다코우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구이 전문점 '화로화'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정책을 펴 크게 성공함. 그들은 중국의 대표적 미식 사이트인 '다중디엔핑(大众点评)'을 이용해 홍보하고 쿠폰을 제공해 중국 손님을 끌었으며, 이후 맛과 가격으로 승부해 현재 저녁 시간대에는 예약 없이는 식사하기 힘들 정도임.

기존의 한식 음식점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음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2009년 5월 한식세계화추진단을 세움. 그뿐 아니라 올 3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한식재단을 설립하여 한식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지난 10월 16~17일 북경대학에서 한국음식문화제 개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2010 중국 한상대회' 개최 당시 함께 열린 '제1회 중국 한식세계화축제' 등은 모두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임.

CJ 푸드빌이 지난 8월 베이징에 한식 음식점 '비비고(Bibibgo, 拌拌锅)' 매장을 열었음. '비비고'는 다양한 메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비빔밥류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타파스식의 한식 메뉴에 중점을 둬.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밥, 소스, 토핑 등을 선택해 고객들이 다양한 맛의 비빔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함. CJ 푸드빌의 '비비고(Bibibgo, 拌拌锅)' 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짐. CJ 푸드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푸드 시장에 투자를 해왔음. 투자 초기 롯데리아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을 철수하는 실패를 맛본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옴.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결과 현재 CJ 푸드빌은 중국 내에 개설한 뚜레쥬르의 성공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임. CJ 푸드빌은 현재 베이징 수도 공항과 칭다오 공항에서 '사랑채'라는 이름의 한식 전문점을 운영해 중국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음.

기타 올해 주목할 만한 행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에 걸쳐 베이징 국제전람중심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 도서전임. 올해 17회째인 이번 도서전에는 60여 개국 1,800여 개의 출판사가 참가해 아시아 최대 도서전이 됨. 저작권 강화, 출판 산업의 촉진, 국민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국 정부는 베이징 국제 도서전

에 많은 힘을 쏟아 붓고 있음. 이번 도서전에 한국은 대한출판문화협회, 교원, 대교 등 28개의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단독으로 마련된 한국관에 부스를 설치하였음.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 한국 출판계의 주요 공략 부분은 아동, 교육과 관련 부분임. 한국 문학 작품이 중국에 번역 소개되어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반면 아동, 교육 관련 부분 출판물들이 최근 중국에 활발히 소개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아동 도서 'Why' 시리즈가 중국에서 좋은 평을 받았음. 이런 점을 반영하듯, 올 베이징 국제 도서전에서는 아동, 교육 분야 관련 출판물의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2010 중국(상하이) 한류 동향 보고

중국 / 상하이
장진영 통신원

◆ 총 평

2010년 중국 내 한류의 키워드는 ‘성숙’과 ‘짜통’이라는 두 단어라고 생각한다.

한 해 동안 드라마 방영 횟수, 한류 스타 공연 횟수 등 한류가 양적으로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가 높아졌고, 한국인들이 예의를 중시하는 것을 이제는 이상하게 바라보기 보다는 ‘저건 한국의 문화다’라고 이해하는 측면 등에서 한류의 ‘성숙’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올해 들어 한류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남방으로 많이 전파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대만, 홍콩의 선진 문화 때문에 한국 문화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남방지역에서 중국인들로 꽉 찬 한식당과 한국의류상점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시내 중심가 상점에서 종종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등 예전보다 한류 관련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쉬워졌다.

중국인들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짜통’하면 중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한류에 있어서도 ‘짜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중국 연예계 일부에서 보이는 한류스타 따라하기 열풍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연예인과 드라마를 주로 따라했다면 이제는 휴대폰, 자동차 등 산업 면에서 짜통 상품들이 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합법적인 ‘짜통’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동차 중 하나가 한국의 ‘스타렉스’ 구형 모델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외관은 모두 똑같은데 현대자동차의 로고 대신 처음 보는 ‘JAC’라는 마크를 달고 있다. ‘JAC’사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합법적으로 ‘스타렉스’ 도면을 구매해서 제작하는 자동차로 엄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적 ‘짜통’ 차다. 기아 자동차 ‘쏘렌토’, 현대 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렉스턴’ 등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똑같이 생긴 차들이 중국 상표와 한국 상표를 나눠 달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의류 산업도 마찬가지다. 도시 곳곳에서 ‘한국스타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업 중인 상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 이곳의 옷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 기업의 OEM생산 오더를 받아 의류를 납품한 뒤 이의 상표만 바꾸어 ‘짜퉁’ 의류를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중국서 생산된 의류가 한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동대문 시장 등에서 역으로 중국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이다.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어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한류에서 영향 받아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중국인 사이에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가격이 높은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짜퉁’으로라도 구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짜퉁’이라는 단어는 보다 ‘성숙’된 한류 열풍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최신작부터 십여 년 전의 드라마까지 합쳐 수십 편에 달함. 중국 방송의 특성상 한번 방영한 드라마도 지속적으로 재방, 3방, 4방 또는 그 이상의 재방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발달한 인터넷 접속 환경으로 인해 한국에서 방영되는 거의 모든 드라마를 중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편성이 줄고 있으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음. 본 통신원도 현재 방영 중인 <대물> 등의 드라마를 한국에서 방영된 지 3~4시간 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청하고 있을 정도임.

드라마 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의 상당수를 대만, 일본, 한국의 형식을 빌려 와 운용 중인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한국의 ‘청춘불패’를 카피하는 등 물의를 빚음. 그 외 방송물은 삼성이 후원하는 ‘장학퀴즈’ 같은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음.

2. 영화 산업

CGV의 영화관 사업 외에 한국 영화 관련 한류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중국 내 과다한 영화 제작 편수, 영화를 보고자 하는 관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영화 상영관이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

3. 음악 산업

1세대 한류 스타 안재욱과 H.O.T를 지나 현재 최고의 한류 스타는 슈퍼주니어임. 이들의 몸값, 즉 출연료를 보면 알 수 있음. 중국 내 대표적 한류 스타인 장나라보다 3~4배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주니어는 대만, 홍콩 최정상급 가수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은 특급 대우를 받고 있음.

그 외에 원더걸스의 'Nobody'가 1년 이상 차트에 머물기도 하는 등 중국 내 음악 부분에서도 이제 대만,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됨. 앞으로 한류스타들의 중국 진출 시 언어 문제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임.

4. 공연/전시 산업

현대 자동차와 함께한 걸그룹 미쓰에이의 베이징 쇼케이스, 상하이 엑스포 '한국 주간'의 공연 및 퍼포먼스, 심양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광주와 상해에서 열렸던 '한국 식품 박람회' 등 큰 행사들은 많았지만, 중국 특성상 1회성 행사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힘든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가 유치되어야 할 것임.

중국의 광대한 면적을 감안하면, 중국 연예인들이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처럼 장기간 전국 순회를 하거나, 연합팀을 구성해 인터넷, TV 등을 동원해 한 번에 광대한 물량 공세를 펼친다면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5. 캐릭터/애니 산업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짹통’. 이 말은 캐릭터 사업에 있어서도 비껴가지 않음. 현재 중국에 ‘미스터 김치’, ‘마린블루스’ 등 일부 한국 캐릭터들이 들어와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된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약간의 인기라도 끌게 되면 ‘짹통’ 상품이 오리지널 상품보다 다량으로 먼저 유통이 되어버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유통의 기회 또한 박탈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6. 한스타일 및 기타

2010년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막걸리 보급에 지원을 했지만, 불행히도 막걸리는 기호가 다른 중국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는 분위기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하는 북방 지역 보다는 기후가 더운 남방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은 나은 분위기임.

상해와 광주에서도 여러 차례의 한국 식품 박람회가 열려 김치와 막걸리가 중국 고객들을 만났음. 이번 박람회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지금껏 중국 내 판매 1위를 차지한 유자차를 제치고 커피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 차 문화로 유명한 중국인들이 드디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유자차의 경우는 중국산 유자차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한국산 커피를 선호하고 있음. 그만큼 한국 커피의 가격과 품질이 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편, PPL이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 방송에서는 뉴스 프로그램 진행 시 삼성 또는 LG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노트북을 편 채 진행하는 사회자의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음.

2010 중국(홍콩) 한류 동향 보고

중국 / 홍콩
이성화 통신원

◆ 총 평

2010년은 한류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점이라 평가하고 싶다.

기존의 한류가 음악, 드라마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올해에는 다양한 캐릭터산업, 한국 전통문화 공연, 전시를 비롯 한국 음식, 한국어 등 많은 분야에서 골고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장금>, <엽기적인 그녀> 등 영상물이 이끌었던 한류 열풍을 음반계가 이어가는 특징도 보였다. 사실 홍콩에서는 홍콩인들의 캔톤 음악(Cantonese Pop Music, 중국과 서양의 음악을 적절하게 융합한 장르)과 서양 팝 음악으로 인하여 한국 음악이 설 자리가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0년 홍콩에서는 어느 해보다 한국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미국 팝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홍콩에 진출한 그들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처럼 앞으로 아시아 시장뿐이 아닌 전 세계 시장을 넘나들 수 있는 스타 발굴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예전과 다른 또 하나의 한류 특징으로 경제 한류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들이 한국에 호감을 보이며 한국 제품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경향은 본 통신원이 직접 만나본 홍콩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현재 홍콩 내 한국 전자제품의 인기는 일본을 앞선 지 오래이며, 한국 화장품은 우수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해외 탑 브랜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식이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 각종 마트에는 한국 식품 전문 코너가 생겨나고 있으며, 전 세계 음식이 몰려있는 홍콩에서 한국 식당들이 우수 레스토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이다.

한글 또한 그 인기가 남다르다. 홍콩인들에게는 한글이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한글을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었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자기 계발 측면에서 한국어를 선택, 학습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단순히 ‘한국 연예인이 좋다’ 혹은 ‘한국드라마가 좋다’를 벗어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 홍콩 내 한국 프로그램 방영 내역(방영 시점 순)

TVB 채널	칼잡이 오수정, 카인과 아벨, 궁S, 커피프린스 1호점, 태양을 삼켜라, 에텐의 동쪽, 히트, 여인천하, 태왕사신기, 에어시티, 신데렐라맨,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여우야 뭐하니?
ATV 채널	하늘만큼 땅만큼, 술약국집 아들들, 엄마가 뿔났다, 아줌마가 간다, 미우나 고우나, 조강지처클럽, 며느리 전성시대, 왕과 나, 수상한 삼형제

2010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했음. 홍콩 총영사관은 지난 4월, 홍콩의 지상파 방송이 한 주간 송출하는 한국 드라마·오락물이 모두 24편에 달한다고 밝힘. 특히 프라임 타임대를 한국 드라마가 거의 지배할 정도였음. 홍콩 내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들은 주로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다룬 주말 드라마가 주를 이룸. 또한 한류의 시발점인 <대장금>의 인기에 힘입어 사극의 꾸준한 약진도 돋보임.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인기도 높았음.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각각 채널씩 한국 음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 중임.

2. 영화 산업

2010년 내 홍콩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 등 한류 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음.

‘제4회 아시아 필름 어워드(AFA)’에서는 <마더>가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 특히 이 영화는 최우수 영화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과 각본상을 받아 3관왕을 차지함. 그 외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시각효과상을 수상함.

한편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린 ‘홍콩국제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10편이 초청됨.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수상작인 소상민 감독의 <나는 곤경에 처했다>와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상을 받은 장건재 감독의 <회오리바람>, 이상우 감독의 <엄마는 창녀다>가 홍콩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으며 홍형숙 감독의 <경계도시2>가 다큐멘터리 경쟁부문에 초청됨.

이재용 감독의 <여배우들>과 장률 감독의 <두만강>,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류형기 감독의 <너와 나의 21세기>, 우니 르콩트 감독의 <여행자>, 정성일 감독의 <카페 느와르>도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됨.

한국 배우들의 중화권 진출도 이어짐. 김희선이 중국영화 <전국(戰國)>으로 연기 활동을 재개했는가 하면, 오우삼 감독의 신작 <검우강호>에는 정우성이,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신작 <일대종사>에는 송혜교가 캐스팅됨.

한국 영화의 홍콩 내 판매 실적도 훌륭했음. 영화 <고사(死) 두 번째 이야기: 교생실습>은 ‘제63회 칸 영화제 필름마켓’에서 홍콩에 선판매됨. 홍콩에서는 보통 한국영화가 소규모로 개봉되지만 홍콩 측 구입자인 원달라는 <고사2>의 경우 홍콩에서 대규모 개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오우삼 감독의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한 <무적자> 또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에 판매됨. 특히 1980년대를 풍미했던 원작의 명성과 한류스타 송승헌을 비롯한 주진모, 김강우, 조한선 등 한국 배우들의 파워가 아시아 각국 영화계의 관심을 끈 결과로 보임.

한편, 2010년 내 홍콩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하녀>. 홍콩인들보다 주로 서양인들이 영화 관람을 자주하는 ifc몰에서 상영되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속에서도 선전했음.

하반기 눈에 띄는 소식으로는 한채영이 중국영화 <빅딜>에 주인공으로 전격 캐스팅됐다는 것임. 이 영화는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로 개봉될 예정임.

3. 음악 산업

* 상반기 음반 인기 순위

순위	가수	앨범 제목
1	원더걸스	1집 앨범 원더걸스
2	Various Artists	미남이시네요 OST
3	소녀시대	2집 앨범 Run Devil Run
4	동방신기	TVXQ NONSTOP-MIX: VOL2
5	슈퍼주니어	U
6	SS501	超級精選 (+ DVD) SUPER HITS
7	슈퍼주니어 M	SUPER GIRL
8	Various Artists	꽃보다 남자 OST
9	포미닛	FOR MUZIK
10	FT아일랜드	JUMP UP
11	F4	F4 精裝特典 (+ DVD)
12	빅뱅	REMEMBER
13	보아	FACE
14	이효리	ITS HYORISH
15	Various Artists	커피프린스 1호점 OST

* 하반기 음반 인기 순위

순위	가수	앨범 제목
1	원더걸스	1집 앨범 원더걸스
2	JYJ	BEGINNING
3	소녀시대	HUT
4	동방신기	SINGLE A-SIDE
5	RAIN	BACK TO THE BASIC
6	브라운 아이드 걸스	VOL3
7	슈퍼주니어	BONAMANA
8	카라	GIRLS TALK
9	2PM	STILL 2PM
10	샤이니	HELLO
11	FT아일랜드	CROSS& CHANGE
12	보아	COPY&PASTE

13	2AM	超級精選
14	SS501	DISTANCE
15	포미닛	HIT YOUR HEART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눈에 띄었음. 특히 원더걸스는 걸그룹으로서는 유례없는 인기를 모았고, 그들의 대표곡 'Nobody'는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음. 또한 상당수의 음반 판매점, 클럽 등지에서 최고의 인기곡으로 'Nobody'가 선정됨.

2010년 홍콩 내 한국음악 부분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한국 걸그룹들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임. 소녀시대를 필두로 원더걸스, 포미닛, 2NE1, 카라, 에프엑스 등의 인기가 특히 높은 편이며, 예전과 달리 홍콩 남성 팬들이 늘어난 것도 새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음.

동방신기와 수퍼주니어, 빅뱅 등 이미 홍콩 내 한류 스타로 자리잡은 그룹들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짐. 그 외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인기를 발판으로 정용화가 속해있는 그룹 씨엔블루와 이홍기가 속한 FT아일랜드도 큰 주목을 받음.

공연 부분에서는 지난 6월 장근석이 홍콩 팬 미팅을 개최해 2천여 명이 넘는 팬들과 만남. 8월에 있었던 씨엔블루의 홍콩 팬 미팅과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10월에 펼쳐진 JYJ의 쇼 케이스도 동방신기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남. 12월에 있었던 원더걸스의 대규모 공연도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4. 공연/전시 산업

2010년 홍콩에서는 음악, 미술 등 장르를 뛰어 넘는 한국 관련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됨.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70여 개의 갤러리가 참가하는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 페어’가 지난 2월 하얏트 호텔에서 열림. 총 천 팔백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 이 행사는 아시아지역 아트마켓으로 부상하는 홍콩에 특별한 시간이 되었음.

또한 호주, 스페인, 중국, 홍콩, 한국 등 실력 있는 마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마술 쇼가 벌어져 한국 마술을 홍콩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음.

한편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류석훈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홍콩에서 현대무용 작품 'Black'을 공연해 호평을 받음.

정동극장이 자랑하는 한국 전통 가무악극인 '미소(MISO, 美笑)' 공연 팀이 지난 10월 홍콩의 쇼핑중심지인 타임스 스퀘어(時代廣場)에서 가진 거리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을 알림.

12월에는 유진규 홍콩 마임축제 감독이 프린지클럽의 초청으로 공연을 펼침.

5. 캐릭터/애니 산업

2010년은 한국 캐릭터의 홍콩 진출이 활발한 한 해였음.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 선물용품박람회에서 (주)캐릭터라인(대표: 김시범)과 홍콩의 파워플라스틱엔터프라이즈(대표: Johnson Xu)는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을 맺음.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 로이비주얼은 지난 5월 서울 힐튼호텔에서 홍콩의 세계적 완구제조 업체인 실버릿과 신작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의 토이 라이선싱(완구 제작·판매) 계약을 체결함.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가 방영 이전에 캐릭터 상품 제작·판매권을 수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계약금도 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음.

(주)라이브플렉스(대표: 김호선)는 대만의 온라인게임 기업 엠이텔(대표: 알렉스차이)과 자사의 자체개발 MMORPG '드라고나 온라인'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현지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 '드라고나 온라인'은 라이브플렉스가 3년 가까운 개발 기간과 80여명의 개발진을 투입한 대형 온라인게임으로 알려짐. 한편 게임개발업체 '(주)시리우스 엔터테인먼트(대표: 황병찬)'는 홍콩 최고의 온라인 게임 기업 '게임사이버(대표: 왕택교(王澤喬))와 계약을 체결, 자사에서 개발중인 체인징 MMORPG '라임 오디세이'를 오는 2011년경 홍콩 게임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한류가 대중화되면서 홍콩인들의 생활 곳곳에서 한국을 찾아볼 수 있음. 무엇보다

다 한국 음식의 인기는 대단함. 각종 생활 잡지마다 한국 음식을 속속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등이 눈이 띄게 늘어가고 있음. 특히 홍콩에 가장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경우 한국의 잡채, 삼계탕, 비빔밥 등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음.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여전함. 설화수, 미오기, 스킨푸드, 미샤 등의 한국 브랜드는 홍콩 여성들의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임. KOTRA에 따르면 홍콩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함.

마지막으로 한글의 인기도 폭발적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과 한국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회사원들이 주가 되어 한국어 학습 열풍을 만들고 있음.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 외에 다양한 한국어 사설 학원이 생겨나 홍콩에 한국어를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음.

2010 대만 한류 동향 보고

대만 / 타이페이
홍길동 통신원

◆ 총 평

1. 2010년 한류 동향 총평

2010년 대만 내 한류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한국 드라마들의 흥행이다. 대만 자유시보에서 발표한 2010 연간 한국드라마 시청률과 시청자수를 보면 올 한해 한국 드라마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2010 한국드라마 TOP 5 (조사기간: 2010.1.1 ~ 12.7)

순위	드라마제목	시청률	시청자수	방송사
1	분홍립스틱	2.79%	약 64만	빠다 드라마 채널
2	파스타	2.38%	약 55만	똥선 드라마 채널
3	다함께 차차차	2.19%	약 50만	빠다 드라마 채널
4	미남이시네요	1.95%	약 45만	똥선 드라마 채널
5	동이	1.92%	약 44만	빠다 드라마 채널

한국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를 보이며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의 열기는 드라마 OST, 다시 드라마 속 연예인들의 패션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음악산업과 패션산업, 미용산업 등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음악 분야에서 단연 화제가 된 그룹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이다. 이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대만에서 프로모션행사와 콘서트, 팬미팅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만에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11월 중순 아시아게임 태권도 경기에서 한 대만 선수의 실격으로 야기된 반한감정으로 인해 반한류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걸그룹에 대한 안티세력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성그룹에 대한 안티팬의 증가율은 걸그룹에 비해서 약소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팬의 충성도가 남성팬의 충성도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영화산업은 한국드라마로 대표되는 방송산업에 비해 그 파급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만 및 중화권 전반에 걸쳐 성행하는 불법사이트 및 불법다운로드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볼거리가 풍부한 미국의 할리우드영화가 2010년 한 해 동안 강세를 보였다. 한국영화는 4분기에 개봉된 하모니가 약 41만 NTD(대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지만, 기타 한국영화는 큰 흥행을 하지 못했다. 정우성이 주연한 중국영화 <검우강호>가 약 319만NTD의 수입을 올리면서 흥행했지만, 이는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힘보다는 오우삼 감독의 티켓파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010 상반기에는 정명훈의 공연, 부산미술관과 타이페이미술관이 함께하는 예술전 등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면서 한류의 형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연말에는 규모 있는 한류관련 행사 및 공연은 없었으며, 이는 4분기 반한감정이 촉발한 대만국민의 혐한감정으로 인해 예정되어있던 행사나 공연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고 보인다.

한국의 패션과 음식문화는 드라마를 통해 대만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음식 및 의류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2010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반한감정이 ‘한국 물건 안 쓰기’ 운동으로까지 전개되면서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들이나 관계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2. 2011년 한류 현상 예측

2010년 말 시작된 대만국민의 반한감정은 2011년에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도 대만의 각종 매체에서는 끊임없이 한국과 관련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만 관련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대만에서는 가십이 가십을 낳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반한감정이 대만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2011년에 한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반한감정이 정점을 찍었던 11월, 12월에 방영된 한국드라마 <동이>는 방영 2달 만에 2010년 방영된 한국드라마 TOP 5에 랭크되었고 약 44만 명의 대만국민이 시청했다. 또한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정관장은 대만국민의 반한감정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여 12월 타이중에 점포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 매출액을 3천만 불로 잡았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콘텐츠

츠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는 여전히 대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우수한 퀄리티를 확보한 콘텐츠를 대만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시장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지금 불고 있는 반한감정과는 별개로 우수한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1) 상반기

대만 내 한류 현상에서 음악 시장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드라마 방송 산업은 2009년 방영된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역대 최고 시청률(4.9%)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한류 드라마의 역량을 과시함.

하지만 금년 방송된 대만 드라마 <샤이잔 썬푸(下一站, 幸福)>의 선전으로 인해 드라마 <시티홀>, <지붕 뚫고 하이킥>, <사랑해 울지마>, <천만번 사랑해>, <사랑해>, <밥 쥐>, <선덕여왕>, <가문의 영광>, <일지매(재방)>, <대망(재방)>, <장화홍련>, <찬란한 유산>, <아빠 셋, 엄마 하나> 등의 한류 드라마는 미비한 성적을 기록하였음.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명을 받았던 작품인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주제를 부른 FT아일랜드와 주연배우 장근석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 팬들과 만남.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통해 대만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이승기도 4월 중에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연기되어 아쉬움을 남김.

이처럼 대부분 한류 드라마의 방영을 통해 대만 팬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큰 사랑을 받았음.

* 2010년 상반기 한국 콘텐츠 방영 현황

방송사	제목	방영 일시	방영 시간대
동삼종합방송 (東森綜合台)	시티홀	1월 7일	월~금 저녁 21:00
	지붕뚫고 하이킥	1월 17일	일 오후 17:00

	행복의 조건	1월 18일	월~금 저녁 21:00
	아빠 셋, 엄마 하나	3월 5일	월~금 저녁 21:00
	밥줘	3월 23일	월~금 저녁 21:00
동삼드라마채널 (東森戲劇台)	미남이시네요	3월 7일	월~금 저녁 22:00
위래(緯來)	장화홍련	2월 23일	월~금 저녁 21:00
	사랑해	3월 4일	월~금 저녁 22:00
팔대오락K (八大娛樂K台)	대망	1월 6일	월~금 저녁 20:00
GTV	금지옥엽	1월 4일	월~목 저녁 21:00
	천만번 사랑해	1월 12일	월~금 저녁 22:00
웨이라이 (緯來戲劇台)	소금인형	4월 20일	월~금 오후 16:00
	망설이지마	5월 11일	월~금 저녁 21:00
	신데렐라맨	5월 27일	월~금 저녁 22:00
빠다 (八大戲劇台)	다 함께 차차차	2월 3일	월~금 저녁 21:00
	파리의 연인	4월 16일	월~금 오후 18:00
	수상한 삼형제	4월 27일	월~금 저녁 21:00
	아내의 유혹	5월 4일	월~금 저녁 22:00
	태양의 여자	5월 6일	월~금 오후 18:00
	무적의 낙하산요원	5월 20일	월~금 오전 10:00
	추노	5월 27일	월~금 저녁 22:00
	연인	5월 27일	월~금 오후 18:00
동선 (東森戲劇台)	나쁜 여자 착한 여자	5월 2일	토~일 오후 17:00
	아현동 마님	5월 20일	월~금 저녁 20:00
	술약국집 아들들	5월 20일	월~금 저녁 21:00
웨이쓰 (衛視中文台)	카인과 아벨	5월 3일	월~목 저녁 20:00
	오 마이 레이디	6월 21일	월~목 저녁 20:00
중천 종합 (中天綜合台)	결혼 못하는 남자	5월 17일	월~금 저녁 20:00
까오디엔 종합 (高點綜合台)	이산	6월 6일	월~금 저녁 20:00
채널 V	인기가요	5월 17일	토 저녁 20:00
	뮤직뱅크	6월 6일	일 오후 19:00
동풍웨이쓰 (東風衛視)	강심장	5월 14일	금 저녁 21:00

대만 공영 방송사와 민영 방송사를 통틀어 2분기 한류 방송 동향을 보았을 때 최근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두 작품을 빼놓고는 일일 드라마 식으로 매일 한 시간씩 방영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2010년 2분기 드라마 방영의 특징은 한국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작품 중심 혹은 한류 스타 주연 중심의 작품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임. <그들이 사는 세상>, <신데렐라 맨>, <술약국집 아들들>, <추노>, <오 마이 레이디>, <카인과 아벨>, <시티홀> 등 한국에서 대중들에게 비교적 큰 호응과 관심을 끌어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한류 스타들의 주연작들이 편성됨.

또한 눈 여겨 볼 것은 예능 프로의 방영이 늘어났다는 점임. <패밀리가 떴다>, <우리 결혼했어요>, <강심장> 등 최근 한국에서 방영중이거나 대중 예능으로 불리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한편, 한류 가수들의 활동에 힘입어 음악 채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음.

2) 하반기

* 2010년 하반기 한국 콘텐츠 방영 현황

방송사	제목	방영 일시	방영 시간대	방영 제목
웨이라이 (緯來戲劇台)	그대, 웃어요	10월 4일	월~금 저녁 22:00	意外的人生
	너는 내 운명	10월 11일	월~금 오후 18:00	你是我的命運
	당돌한 여자	11월 15일	월~금 저녁 20:00	錯愛一家親
빠다 CH28 (八大戲劇台)	개인의 취향	9월 12일	일요일 저녁 20:00	個人取向
빠다 CH41 (八大戲劇台)	하얀 거짓말	6월 1일	월~금 오후 13:00	愛的謊言
	쾌도 홍길동	10월 12일	월~금 저녁 21:00	快刀洪吉童
	마왕	11월 6일	월~금 저녁 22:00	魔王
	동이	11월 15일	월~금 저녁 20:00	同伊
동선 (東森戲劇台)	술약국집 아들들	5월 20일	월~금 저녁 21:00	松藥局的兒子們
	아빠셋, 엄마하나	5월 22일	토, 일 저녁 20:00	三個爸爸一個媽
	밥 줘!	5월 28일	월~금 저녁 22:00	老婆!給我飯
	두 아내	9월 6일	월~금 오후 18:00	兩個妻子
웨이즈 (衛視中文台)	바람 불어 좋은 날	7월 26일	월~금 저녁 20:00	風吹好日子
	이웃집 웬수	9월 20일	월~금 저녁 21:00	鄰居冤家
	카인과 아벨	10월 26일	월~금 저녁 21:00	該隱與亞伯
	오 마이 레이디	11월 19일	월~금 오전 11:00	Oh! My Lady
	드림	12월 6일	월~금 저녁 21:00	我的夢想型男
	유리의 성	12월 6일	월~금 정오 12:00	菜鳥變鳳凰

웨이라이 (緯來戲劇台)	우리 결혼했어요	8월 2일	일 저녁 21:00	我們結婚了
	스타킹	11월 7일	일 저녁 19:00	明星王
	패밀리가 떴다	11월 13일	토 저녁 19:00	家族的誕生
채널 V	인기가요	5월 17일	토 저녁 20:00	韓國人氣歌謠
	뮤직뱅크	6월 6일	일 저녁 19:00	MUSIC BANK

하반기 대만 방송 산업의 주된 화두는 아시안게임에서 초래된 반한 감정의 파급력이 어떠한 결과로 투영될지에 대한 걱정이었음. 하지만 많은 한류관계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반한감정이 촉발한 한국방송 안보기 운동의 영향은 미미했음. 반한감정의 촉발이 바로 한국 방송 콘텐츠들에 대한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11월 15일 대만에서 첫 방영을 시작한 <동이>는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2010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전체시청률 순위에서 Top 5에 드는 높은 시청률을 보임.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드라마의 마니아층이 국가적으로 형성된 반한정서기류에 꼭 부합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웰메이드 드라마가 대만 저변으로 확대된 반한감정 속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줌.

2010년 4분기 한국드라마 방영의 특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류스타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드라마의 편성임. 또한 반한감정이 촉발한 반한류의 악재 속에서도, 작품 본연이 가진 경쟁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음. 특히 <동이>는 방영 직전 주연배우들이 대만을 찾아 공개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음.

오락예능 분야에서는 2010년 방영을 시작한 <패밀리가 떴다>, <우리 결혼했어요>, <스타킹> 등 한국에서 이미 흥행이 검증된 예능프로들이 대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4분기에도 역시 흥행하였음.

2. 영화 산업

1) 상반기

2009년 신드롬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와 대만 영화 <MONGA>로 인해 한국 영화 시장은 불황을 면치 못했음. 실질적으로 대만에서의 한국 영화시장은 드라마 방송 산업처럼 활발하지 못한 추세임. 대만 관중들의 편향된 시선도 있지만, 대만에서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지 못한 것도 이유일 것임.

작년 말 상영(2009. 12. 18)된 영화 <박쥐>는 대만 주요 극장인 워너 빌리지, 국민(國賓) 등에서 상영을 했지만, 평점 3.6(5점 만점)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막을 내림.

오스카 외국어 작품상 부문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 영화 <마더> 역시 대만 주요 극장 워너 빌리지, 국민(國賓), 화춘(和春影城)을 통해 상영(2010. 01. 29)되었으나 높은 평점 4.2(만점 5)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함. <굿모닝 프레지던트>도 대만 영화 <MONGA>의 선전에 밀려 개봉 2주 만에 막을 내림.

2010년 1/4분기에서 2/4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감지된 변화는 극장 개봉보다는 DVD로 먼저 시판되거나 작품전을 통해 대만 관중들의 반응을 보게 된 것임.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무료 다운로드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로 인해, 한류 영화보다는 스케일 크고 3D 시청이 가능한 할리우드 영화 중심의 상영이 대부분임.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한국 영화작품이라 할지라도 대만 영화 배급사들은 극장 흥행 면에 있어서는 한국 작품은 피하고 있음. 작년 여름 한국 영화 시장에서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작품 <해운대> 역시 극장 상영을 하지 않은 채 바로 DVD로 시판된 작품임.

2010년 2/4분기 DVD로 발매된 작품들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대만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배우 차승원의 주연작 <시크릿>을 비롯해, <키친>, <전우치>, <똥파리>, <의형제>, <국가대표>, <백야행>, <내 사랑 내 곁에>, <작전>, <10억>, <오감도>,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님은 먼 곳에>, <불꽃처럼, 나비처럼>, <멋진 하루>, <헨젤과 그레텔> 등임. 그러나 대만 영화 시장과 DVD 순위를 집계했을 때 할리우드 영화의 흐름을 따라 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임.

2) 하반기

* 10월 대만 박스 오피스 통계 (출처: 대만 최대영화사이트 At Movies)

순위	영화 제목	극장 수입액(NTD)	국가
1	RED	728만	미국
2	Life as We Know It	561만	미국
3	적인결: 측천무후의 비밀	217만	중국
4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89만	미국
5	The Child's Eye	171만	홍콩

6	검우강호(정우성, 양자경 주연)	170만	중국
7	가디언의 전설	114만	미국
8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102만	일본
9	Grown ups	94만	미국
10	You Will Meet A Tall Dark Stranger	50만	미국

* 하반기 한국영화 개봉 상황(12월 12일 기준, 출처: 대만 최대영화사이트 At Movies)

영화 제목	상영기간
하모니	10/18 ~ 11/18
방자전	11/26 ~
영웅본색: 무적자	12/10 ~
영화는 영화다	12/17 ~

2010년 4/4분기 대만 영화 시장은 2010 상반기의 흐름대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대세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배우 정우성을 앞세운 오우삼 감독의 영화 <검우강호>가 10월 대만 박스오피스 통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음.

다운로드 받거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먼저 영화를 관람한 후에 극장을 찾는 일반 대만 영화 관객의 패턴을 볼 때, 왕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인기를 끌었으며 아시아 영화로는 일본영화 <고백>과 대만영화 <줄리엣> 등이 인기를 끌었음.

2010년 4/4분기 대만 DVD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도연 주연의 한국영화 <하녀>가 11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11월에는 DVD 판매 15위, 12월에는 17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임.

* 하반기 출시된 한국 영화 DVD (출처: 대만 최대 DVD사이트 Blockbuster)

DVD 제목	판매시작일
오감도	10월 1일
내 사랑 내 곁에	10월 1일
라디오 데이즈	10월 7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0월 7일
하녀	11월 17일
무법자	12월 3일
6년째 연애중	12월 3일

3. 음악 산업

1) 상반기

대만 음악 시장은 단연 K-Pop이 주도하는 흐름임.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에 이은 원더걸스의 'Nobody'가 꾸준한 인기를 끌어 왔으며, FT아일랜드, SS501, 샤이니, 포미닛, 소녀시대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음.

'Gee'의 인기에 큰 성원을 입었던 소녀시대는 올해 3월 중순 타이베이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앨범 'Oh'를 대대적으로 홍보함.

* 대만 야후 음악 차트 (2010년 1월)

순위	제목	가수
1	Sorry Sorry	슈퍼주니어
2	Hot Issue	포미닛
3	Gee	소녀시대
4	Love Like This	SS501
5	너 라고	슈퍼주니어
6	Genie	소녀시대
7	MUZIK	포미닛
8	FOR MUZIK	포미닛
9	Ring Ding Dong	샤이니
10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 대만 야후 음악 차트 (2010년 2월)

순위	제목	가수
1	Nobody(중음)	원더걸스
2	Nobody	원더걸스
3	Hot Issue	포미닛
4	Sorry, Sorry	슈퍼주니어
5	Gee	슈퍼주니어
6	희망	FT아일랜드
7	여전히	FT아일랜드
8	Love Like This	SS501
9	What a Girl Wants	포미닛
10	너 라고	슈퍼주니어

* 대만 야후 음악 차트 (2010년 3월)

순위	제목	가수
1	Oh	소녀시대
2	Nobody	원더걸스
3	Gee	소녀시대

4	Possibility	보아
5	Nobody(중음)	원더걸스
6	Sorry, Sorry	슈퍼주니어
7	Hot Issue	포미닛
8	여전히	FT아일랜드
9	희망	FT아일랜드
10	This is who I am	보아

2/4분기는 원더걸스, 포미닛, 소녀시대가 K-Pop 열풍을 이끌었음. 그 중에서도 단연 이슈가 되는 그룹은 바로 소녀시대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더걸스의 'Nobody'를 따라 부르던 대만 팬들이 소녀시대의 'Oh'와 'Run Devil Run'을 흥얼거림. 그것도 모자라 직접 뮤직비디오 UCC를 올려 보기도 하는 등 대만에서 화두가 되는 곡들은 전부 한국 걸그룹의 곡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인지 2~3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에서 한국 브랜드 상점에서만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대중가요는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됨.

남성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과 F.cuz는 신인임에도 앨범 발매 이후 상위 10위권 안에 꾸준히 랭크되며 1위도 차지한 바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음. 중국어로 발매한 앨범들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국어로 녹음된 오리지널 음원이 오히려 더 선호되는 추세를 볼 때 이 같은 대만 대중들의 반응은 앞으로 한류 가수들의 해외 활동을 더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4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Oh!	소녀시대
2	나쁜 여자	FT아일랜드
3	Nobody	원더걸스
4	Gee	소녀시대
5	Sorry, Sorry	슈퍼주니어
6	Nobody(중음)	원더걸스
7	Hot Issue	포미닛
8	여전히	FT아일랜드
9	희망	FT아일랜드
10	Possibility	보아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5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Oh!	소녀시대
2	Jiggy(중음)	F.cuz

3	Run Devil Run	소녀시대
4	Nobody	원더걸스
5	나쁜 여자	FT아일랜드
6	Gee	소녀시대
7	Sorry, Sorry	슈퍼주니어
8	Hot Issue	포미닛
9	Nobody(중음)	원더걸스
10	하루 종일	제국의 아이들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6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미인아	슈퍼주니어
2	Jiggy(중음)	F.cuz
3	Oh!	소녀시대
4	Run Devil Run	소녀시대
5	LOVE	씨엔블루
6	NU ABO	에프엑스
7	Nobody	원더걸스
8	나쁜 여자	FT아일랜드
9	Gee	소녀시대
10	Hot Issue	포미닛

2) 하반기

대만국민들의 반한감정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바로 대중음악임. 이전까지는 특히 아이돌 그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대만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 이러한 지지 속에 많은 걸그룹이 대만시장으로 진출했으며 또 일련의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잠재력을 표출해왔음.

하지만 11월 말 시작된 반한감정은 바로 한국 아이돌그룹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음반불매운동, 그리고 한국그룹의 대만 초청 거부 등의 상황으로 이어짐.

10월 중순, 타이페이에서 열린 소녀시대의 콘서트가 대만 팬 2만 4천명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과 반대로, 11월 반한감정 기류의 형성 이후 ‘소녀시대가 사과해도 한국 국민을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의 팬들이 안티로 돌아서는 국면을 맞음. 이는 기존의 음악차트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소녀시대가 순위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 그룹에 대한 보이콧과 음반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성그룹 슈퍼주니어는 선전하고 있음. 다만 여성 팬들이 남성 팬들에 비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데, 11월 중순 반한 감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각종 음악차트에서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11월 17일에 촉발된 반한감정 직후 이득을 비롯한 슈퍼주니어 멤버 일부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대만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운 것을 볼 수 있었음.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10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여전히	FT아일랜드
2	미인아	슈퍼주니어
3	Run Devil Run	소녀시대
4	BLUE LOVE	씨엔블루
5	Bluestory	씨엔블루
6	Beautiful Journey	FT아일랜드
7	HIT YOUR HEART	포미닛
8	Breaking Heart	티아라
9	1st + 2nd	애프터스쿨
10	Sound G	Brown Eyed Girls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11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여전히	FT아일랜드
2	미인아	슈퍼주니어
3	Run Devil Run	소녀시대
4	Hello	샤이니
5	Still 2:00PM	2PM
6	BLUE LOVE	씨엔블루
7	Bluetory	씨엔블루
8	Beautiful Journey	FT아일랜드
9	HIT YOUR HEART	포미닛
10	Hot Issue	포미닛

*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 (2010년 12월, 출처: KKBOX)

순위	제목	가수
1	미인아	슈퍼주니어
2	Hello	샤이니
3	전환 받지 않는 너에게	2AM
4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슈퍼주니어
5	외톨이야	씨엔블루
6	Oh!	소녀시대
7	말도 없이	장근석 (미남이시네요OST)
8	LOVE LOVE LOVE	FT아일랜드
9	Bo Peep Bo Peep	티아라
10	I'll be Back	2PM

4. 공연 전시 산업

음력 절기를 중요시 하는 대만은 2월 28일이 정월대보름인 동시에 국가의 Peace Memorial Day(和平紀念日) 기념일임.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 날에는 등불을 밝히는 시속이 있는데,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등불 축제의 전야제에서 한국 B-boy 'Super Brother'팀이 참가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음.

부산시립미술관과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의 협력으로 70~80년대 당시 유행이었던 단색회화에 대한 30점의 미술품이 2010년 3월 6일부터 4월 25까지 타이페이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음.

양국의 시립미술관이 협력하는 이 전시 행사를 통해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대만 관중들에게 한국의 미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사례를 마련하여 미술학과와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모음.

또한 2010년 이란 국제 그린 영화제(2010 YILAN GRE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AIWAN)에 개막작으로 초청된 다큐 영화 <위낭소리>를 시작으로, 그 다음 달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끄는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대만국가음악당에서 5월 7일과 8일에 열림. 지휘자 정명훈 씨는 이번 대만 초청 공연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워낙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도 많은 대만 팬들이 몰려 전 좌석이 매진되고 기립 박수를 받는 등 뜨거운 환영을 받았음. '2010 타이베이 국제 관광 박람회(04.30 ~ 05.03)'에서는 곧 여름 방학을 맞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한 행사들이 성황리에 끝났음.

5. 캐릭터/애니 산업

전반적으로 캐릭터와 애니 산업은 아직까지도 일본과 할리우드의 디즈니, PIXAR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추세임.

한국의 Peter Rabbit이 작년과 같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 상품화된 팬시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작년 새롭게 선보였던 Pany Pang, Ellejou, Murphy, Little BuBu, gomugomu, wishwing, Eduthink는 저조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더군다나 2/4분기 슈렉 포에버, 토이스토리 등과 같은 이미 대만 대중들에게 낯

익은 캐릭터들의 등장은 한국의 캐릭터/애니 시장이 뚫고 가야 할 큰 장벽으로 남아 있음.

또한 2/4분기 공익 의도로 제작된 대만 애니 작품이 영화화되어 대만의 애니산업은 대만과 할리우드 두 산맥으로 기우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상위 나열된 콘텐츠를 통해 한국이 좀 더 가까워지고 한글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한글이 새겨진 T-shirt나 기타 생활 용품, 한복 등을 대만 주요 야시장(사림:士林) 같은 장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옥이나 한지 등의 개념은 아직까지 미비한 추세임.

한국 풍의 옷들이 많이 수입되어 한국의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이대’, ‘동대문 APM’등과 같은 상호를 이용한 의류 시장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편임. 이와 더불어 Gmarket을 통한 인터넷 구매 방법을 아는 젊은이들도 꽤 많이 늘어나 이를 통한 직접 구매 현상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4분기 새롭게 들어선 한국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는 대만 시내 곳곳에 눈에 띄게 진출해 저렴하고 질 좋은 화장품을 대만 소비자들에게 선보임. 특히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BB크림을 통해 많은 브랜드가 대만 시장에 뛰어 들었음. 생필품 및 화장품 Market이라 불리는 Watson을 통해 skin79, Hanskin, 미샤, 토니모리, VOV가 진출해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에서 한국 제품과 흡사한 제품을 시판하기도 함.

유난히 화장품 가격이 한국보다 비싼 대만의 경우에 더 페이스 샵, 스킨푸드와 같은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은 대만 소비자를 불러 모으고 있음. 백화점 브랜드화된 라네즈 같은 경우는 한류 스타 송혜교로 홍보 효과를 얻고 있음.

의류분야 또한 1/4분기 보다는 더 구체적인 진보를 보였는데, 동대문에서 일방적으로 소매되는 보세 의류도 의류지만 좀 더 브랜드화 된 열풍을 낳았음. 그 선례로 쉬즈굿닷컴(SZ) 이라는 브랜드가 해외 배송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대만 여성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음.

한국음식은 예전과 같은 행보로 가고 있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전통의 맛을 본 대만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하나 둘씩 선보이고 있

음. 기존의 한국 식당에서는 대만 사람들의 입맛을 가미한 퓨전 형식의 한식을 선보였다면, 관광을 통해 한국 고유의 맛을 본 대만 국민들의 까다로워진 입맛을 고려한 프랜차이즈 방식의 식당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 (ex: 북창동순두부)

하반기 대만에서의 한류동향은 반한감정의 대두로 풀이됨. 대만국민들은 한국드라마 안 보기, 한국음식 안 먹기, 한국물건 안 쓰기 등 반한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이제까지 대만에서 꾸준히 시장 확장을 꾀해오던 한국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

하지만, 그 중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관장이 높은 상품성으로 반한감정의 기류 속에서도 꾸준히 시장을 확대했음. 정관장은 대만에서 2003년 2월 직영 1호점을 개척한 이래 매년 점포를 늘려 현재 백화점직영매장 14곳, 오프로드 직영점 3곳, 플래그십 스토어 2곳, 개인가맹점 6곳 등 모두 25곳으로 확대함. 또한 12월 9일, 대만 타이중(臺中)시에서 개최된 플래그십 스토어와 영업지점 개소식에 대만 현지 신문과 방송사 기자 10여명이 현장 취재에 나서 높은 관심을 보임. 한국인삼공사 대만법인은 2011년 매출 목표액을 3천만 달러로 잡고 있음.

한글, 한지, 한복, 한옥의 경우에는 대중화 또는 열풍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시장 여건을 보임.

2010 태국 한류 동향 보고

태국 / 방콕
윤경미 통신원

◆ 총 평

1. 2010년 한류 동향 총평

2010년 태국의 한류는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한류와 태류가 서로 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국 공영방송 채널 9에서 24부작으로 제작되어 지난 1월에 방영된 드라마 <같은 태양 아래 지평선>은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전체의 80%를 한국에서 촬영했으며, 한국 배우와 태국의 배우가 공동으로 주연을 맡아 화제를 낳았다. 8월에 개봉된 영화 <꾸언문호>는 서울 남대문, 명동, 홍대앞 <커피 프린스 1호점> 촬영지, 대장금 테마파크, 남이섬 숲길 등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주 무대로 한국에서 95%이상을 촬영했고, 개봉 즉시 2010년 태국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태국 출신의 2PM 멤버 닉쿤은 한국의 가수 활동을 발판으로 태국에서도 스타덤에 올라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활동을 했으며, 태국관광공사의 공식 홍보대사가 되어 태국의 자연과 관광지를 알렸다. 드라마 속의 한국을 직접 느끼고자 하는 태국인의 한국 방문도 급격히 늘었다. 2009년에도 전년 대비 18.8% 증가해 19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전반기 6개월동안에도 이미 12만 명을 넘어서 2009년 대비 3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 아이돌 스타들은 태국 기업 광고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으며 동방신기, 닉쿤, 슈퍼주니어, 포미닛, 빅뱅, 티맥스, 카라, 신화, 2PM 등이 오토바이, 스낵, 화장품, 휴대폰 등의 광고에 기용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꼭 한국 연예인들이 광고모델로 나서지 않더라도 광고 속에 한국어를 삽입하거나 한국적 외모의 배우를 기용하는 등 한국적 분위기를 담아냈으며, 한국 여행을 경품

으로 걸어 홍보하는 마케팅은 태국 사람들의 한류로 인한 소비 기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음악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K-Pop은 이미 태국에서 하나의 음악 장르로 굳어졌다. 모바일 콘텐츠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음악 콘텐츠는 주로 노래와 벨 소리로 구성되는데 Sanook.com과 S-One Telecom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로 된 음악 콘텐츠는 전체의 28%와 40%를 각각 차지해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10년에 가장 큰 한류 이슈로는 문화한류가 경제 한류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수기, 약품, 학습지, 게임, 가구, 칼라 렌즈, 문구류 등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 제품들이 태국 경제 깊숙이 파고들었고, 한류문화상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박람회’가 10월 시암 파라곤에서 개최되었다. 단순히 한국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테디 베어, 모자, 캐릭터 전반,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이용하는 메이크업 회사, 미용실, 화장품, 연예인이 드라마에 착용하고 나온 액세서리 등으로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 등 다방면에 뛰어난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1,000여 명의 바이어와 1,500여건의 상담을 통해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방송국은 한국에서 방영 후 1~2년이 지난 드라마를 방영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한국 연예정보와 히트곡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 드라마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제품이 유행하는가 하면 한국과 관련된 패션, 화장품 등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열풍 속에 부분별한 한국 제품 수입과 질 낮은 상품의 유입이 기존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수출함으로써 문화가 다른 태국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의를 강화하고 태국의 문화와 맞는 품격 있는 문화 콘텐츠 확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2011년 한류 현상 예측

‘문화 한류를 넘어 경제 한류로’

2010년 태국의 한류에 대해 혹자는 태국영화 <꾸언므호>가 대히트를 치면서 한류의 복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절정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본 통신원은 아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

태국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 경제 인프라의 대부분은 일본이 건설하고 제공한 것이다. 도요타는 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3만대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가전제품의 대부분이 일본 회사 브랜드이다.

이러한 경제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태국에는 일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침투하였다. ‘오이시 부페’, ‘사부시’, ‘수끼시’, ‘오이시라멘’, ‘오토야’, ‘젠’, ‘후지’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일본식당 프랜차이즈가 성업하고 있다. 태국 사람들에게 초밥을 즐겨먹으며 녹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겼고, 이를 반영하듯이 ‘오이시’, ‘마차’, ‘젠’ 등 녹차 음료수가 출시되고 있다.

원래 태국인은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많이 없다. 이는 우리에게서 영화 <왕과 나>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짜끄리 왕조 라마6세 몽콕왕의 근대화 정책으로, 젓가락을 쓰는 타 아시아 국가와 달리 태국인의 식문화에 포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 태국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화교들은 외국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태국에 동화가 되어서 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중국어는 잊고 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국과 태국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한류 확산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국 문화의 전파가 한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선두 주자 라그나로크는 2004년에 태국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차기 주자로 들어선 리니지 역시 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림에도 사양 높은 PC를 사용해야 하는 까닭에 태국 통신 회사 True에서 PC방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PC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태국 PC사양의 업그레이드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류를 계기로 태국인들은 한국인의 외모를 ‘세련되고 도시적’으로, 서울을 ‘발전된 도시’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한국기업 제품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웅진 코웨이는 ‘한국 내 정수기 1위 회사’, ‘한국인이 선택한 정수기’라는 콘셉트로 태국의 정수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로쥬키스라는 화장품 회사는 지상철 BTS 등에 ‘피부고민’, ‘화이트닝 효과’ 등과 같은 제품 광고 문구를 한글로 광고하고 있으며 태국인의 경제규모와 생활패턴을 연구하여 제품을 소량 포장하여 유명 약국 체인뿐만 아니라 세븐 일레븐에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도 채널 9TV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LG 엔터테이너’ 프로그램에 상금 백만 바트(한화 삼천만원)를 내걸고 연예 지망생을 발굴하고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요즘은 한국 기업 보다는 태국 기업들이 한류 열풍 활용에 더 적극적이다. 태국 유명 스낵 회사인 하나미는 2PM을 모델로 기용해 ‘2PM Limited Edition’ 스낵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대형 식품 가공 회사 ‘CP’와 라면 제조회사 ‘마마’는 ‘한국의 맛’ 제품을 연달아 만들어 대중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수한 한류 콘텐츠는 태국에 급속하게 한류 바람을 일으켰으며, 태국인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상품도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태 FTA가 2010년 1월 발효돼 많은 품목의 수입관세가 폐지됐으며, 향수, 메이크업, 로션 등 주요 화장품은 24%에서 매년 3%씩 낮아져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라 이들 한국 제품들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협정의 체결과 확산의 바람을 잘 탄다면 태국의 한류는 문화의 한류를 넘어 경제 한류 실현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현재 태국에는 6개의 무료 전국 지상파 TV 채널과 하나의 전국 위성 네트워크가 있음. 6개의 채널은 CH3(Thai TV), CH5, CH7(BBTV), CH9(Modernine TV), NBT, Thai PBS로 구성됨. 위성 TV에서 가장 큰 기업은 CP Group 산하의 True Vision임.

* 태국 TV 채널별 광고시장 점유율(출처: Kim Eng Securities, 2010년 5월 기준)

TV 채널	점유율 (단위 %)
CH3(Thai TV)	25.3
CH5	18.5
CH7(BBTV)	33.7
CH9(Modernine TV)	19.7
NBT	2.8

태국에서는 어느 채널을 틀더라도 한국 방송을 볼 수가 있으며 안방극장을 겨냥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교양, 오락프로그램 편성도 증가 추세임. 특히 공영방송 채널

3과 채널 7은 경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음. 채널 3은 중국, 대만 드라마의 텃세에도 불구하고 황금시간대인 주말 저녁에 한국드라마를 편성했으며, 채널 7에서 주말 아침에 방영되는 아시아 드라마 시리즈 중 대부분을 한국드라마가 차지함. 채널 3의 드라마 <선덕여왕>은 태국 국왕의 둘째 공주 시린톤 공주가 즐겨본 드라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AC Nielsen(Thailand)에 의하면 높은 시청률(4.2)을 기록함.

채널 9는 채널 3이나 7만큼 한국드라마를 많이 방영하지는 않지만 일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고 있음. 전북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전체의 80%를 한국에서 촬영하고, 한국의 라이언(파란), 기범(유키스), 일라이가 태국 아이돌 스타 마리오와 공동으로 주연을 맡아서 열연한 드라마 <Autumn Destiny(같은 태양아래 지평선)>가 1월부터 24부작으로 방영(토 20:40-21:30)됨. 이 외에도 <빌리진 날 봐요>, <달려라 고등어>, <케세라세라>, <칼잡이 오수정>, <건빵선생과 별사탕> 등이 재방영됨.

* 2010년 태국 내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채널	제목	방영요일	시간	시청률
CH 3	하늘이시여	월~금	13:00~14:00	2.9
	선덕여왕	토~일	17:45~19:45	4.2
	서궁	월~금	02:30~03:55	0.3
	일지매	월~금	18:30~19:00	3.6
	황금신부	일	15:00~17:00	1.9
	자명고	토~일	17:45~19:45	4.7
	이산	토~일	17:45~20:00	5.2
	달콤한 스파이	월~일		0.3
	불꽃놀이	월~일		0.4
	소울메이트	월~일		0.5
	90일 사랑할 시간	월~일		0.5
	발칙한 여자들	월~일		0.4
	꽃 찾으러 왔단다	월~금		0.4
	바람의 나라	토~일	18:00~20:00	4.8
	바람의 화원	토~일	17:45~19:45	4.5
CH 7	하얀거탑	화~목	03:15~04:15	0.2
	개와 늑대의 시간	토~일	09:15~11:15	1.9
	달자의 봄	토~일	09:15~11:15	3.5
	무적의 낙하산요원	수~금	08:30~10:15	2.3
	스마일 어게인	수~금	08:30~10:15	1.5
	그들이 사는 세상	토~일	09:15~11:00	2.4
	마왕	수~금	08:30~10:15	1.3

CH 7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수~금	08:30-10:15	1.4
	여우야 뭐하니	수~금	08:30-10:15	2.5
	꽃보다 남자	토~일	09:15-11:00	4.4
	환상의 커플	수~금	08:30-10:15	2.1
	위대한 유산	토~일	09:15-11:00	3.1
	황진이	수~목	08:30-10:15	1.8
	봄의 왈츠	수~목	08:30-10:15	1.9
	여름향기	월~화	08:30-10:15	1.5
	겨울연가	수~목	08:30-10:15	2.3
	홍길동	토~일	09:15-11:00	3.7
	가을동화	월~화	08:30-10:15	1.8
	어느 멋진 날	토~일	09:15-11:15	2.5
	안녕하세요 하느님	월~화	08:30-10:15	1.3
	헬로 애기씨	토~일	09:15-11:00	5.3
	웨딩	월~화	08:30-10:15	1.5
	마이걸	수~금	08:30-10:15	1.8
	고맙습니다	토~일	09:15-11:00	
	커피프린스(재방)	수~금	08:30-10:15	
	폴하우스(재방)	수~금	08:30-10:15	
True Vision 'True Asian Series'	9회말 투아웃	월~금	00:55-02:00	
	하자전담반 제로	월	15:00-16:00	
	신데렐라 맨	토~일	16:00-17:00	
	별순검	월~화	16:00-17:00	
	일지매	월~화	22:00-23:00	
	시티홀	월~화	22:00-23:00	
	불한당	수~목	12:00-13:00	
	에덴의 동쪽	화~금	18:00-19:00	
	무적의 낙하산요원	화~금	22:00-23:00	
	굿모닝 상하이	화~금	16:00-17:00	
	위대한 캐츠비	토~일	07:00-08:00	
	태양을 삼켜라	토~일	22:00-23:00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방영도 증가하고 있음. 위성 TV True Visions의 채널 X-Zyte에서는 한국 버라이어티 쇼인 <스타킹>과 <패밀리가 떴다>를 정규프로그램으로 방영중임.

True Visions의 2010년도 히트작은 <X맨>임. 3년 전 프로그램을 2010년에 방송하고 있지만 태국 젊은 층에도 크게 인기가 있으며 출연자 사이에 유행어가 된 '당연하지'는 태국 사람들도 알 정도임. 이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신변잡기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 및 데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자 True Vision은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을 크게 늘려 2010년 동안 다음 7개의 프로

그램을 방영했음.

1. 와일드 바니(2PM 출연)
2. 애완남 키우기
3. SBS 인기가요
4. YTN 스타뉴스
5. 스타 실험 카메라
6. Mnet 스캔들
7. 우리 결혼했어요

지상파 TV인 채널 9는 <스폰지>를 황금 시간대(매주 화요일 20:35~21:30)에 편성했으며 <정조암살 미스터리>와 같은 픽션 미스터리 프로그램을 6월에 재방영 하기도 했음. 드라마에만 치중했던 지상파 채널 5와 채널 7도 한국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의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복 제하고 있음.

채널 5는 ‘틴 플러스’, ‘아시안 카운트다운’ 등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과 뮤직 비디오 등을 혼합 방영하고 있으며, 채널 7은 ‘셋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보내고 있음. 채널 9는 ‘LG Entertainer’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상금 백만바트(한화 3천만원 상당)를 내걸고 한국 LG전자 후원 아래 제작 방송 중임.

2. 영화 산업

2010년 4분기까지 개봉된 한국 영화는 총 4편뿐이며, 한국 배우가 출연한 국제 합작 제작 영화를 포함하면 총 7편임.

특히 3분기에는 <아바타>, <토이 스토리3> 등 3D를 내세운 할리우드 영상대작 들이 개봉됨. 태국인들은 심각한 주제의 내용보다는 공포영화나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는 편임. 이러한 이유로 <엽기적인 그녀>, <미녀는 괴로워> 외에 한국 영화는 이렇다할만한 흥행작이 없었음.

* 2010년 태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영화	개봉일
내 사랑	2010. 1. 21
7급 공무원	2010. 1. 28

여행자	2010. 5. 5
하녀	2010. 10. 21

특이한 점은 한류로 인해 태국 영화에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한국 올 로케이션 태국 영화가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한 것임.

* 2010년 한류 관련 태국 영화

영화 제목	개봉일	비고
Sorry 사랑해요	2010. 7. 8	한국 가수 노아주 주연, 90% 한국 촬영
꾸언 므 호 (Hello Stranger)	2010. 8. 19	한국 올 로케이션 촬영, 2010년 태국 개봉 영화 중 흥행 1위

3. 음악 산업

태국에서 지명도 있는 가수 및 아이돌 그룹은 비, 세븐, 김태우, 동방신기, Shu-I, 슈퍼주니어, 빅뱅, 씨엔블루, 2PM, 2AM, JYJ, 비스트, 노라조, 유키스, SS501, 엠블랙, 씨스타, 2NE1, 원더걸스, 포미닛, 소녀시대, 미쓰에이, 브라운아이드걸스, 카라, 샤이니, 유키스, DNT, ZE:A, 애프터스쿨, FT아일랜드 등임.

대부분의 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K-Pop 정보를 찾고 실시간으로 공유함. 한국문화 관련 커뮤니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활발한 곳은 ‘서울 팬클럽(www.seoulfanclub.com)’으로 한국 여행, 한글, 연예 등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유명 아이돌 그룹인 비스트의 경우에는 11월 13일 ‘Mnet Ultimate Live in Asia’의 태국 공연 이전에는 한 번도 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Channel[V] Thailand Presents Asian Chart에서 타이틀 곡 ‘Breath’로 태국 채널[V] 차트 내 아시안 뮤직 섹션에서 11월 6일 1위를 차지함. 비스트의 데뷔곡 'Bad Girl'은 이미 태국 뮤직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태국 K-Pop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 또한 엠블랙은 Thailand Special Edition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음.

* True Music 차트 (9월 27일 기준) Top 20 중 상위권에 랭크된 한국 음악

순위	제목	가수
1	외톨이	씨엔블루
2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수퍼주니어
6	Lucifer	샤이니

태국 청소년들은 한국 가수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고 이들처럼 되고 싶어 함. 한국 가수 그룹을 복제라도 한 듯한 댄스커버팀(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똑같은 안무를 선보이는 팀)이 많이 생겨났고, 이를 반영하듯 방콕 내에 ‘Star Maker’, ‘오페라 마케팅’ 등 스타양성 학원이 성행 중임. 방콕 댄스학원가에서는 ‘힙합’, ‘발레’와 더불어 ‘K-Pop’이 댄스의 한 장르로 굳어짐.

* 아시아음악 프로그램 방영 현황 (12월 기준, 출처: Premiere Magazine, Channel 5, 코트라)

프로그램명	방송채널	방송일
Fanta Asian Music Battle	True Music	매주 월~금
Asian Hero	Channel V Thailand	매일
Asian Chart	Channel V Thailand	매주 토
MTV Asian Delight	M-TV Thailand	월,수,금, 토~일
Asian Countdown	Channel 5	매주 수

K-Pop, 특히 한류 걸그룹의 영향으로 얼핏 보면 외모로나 댄스 스타일 및 의상이 한국의 ‘2NE1’과 쌍둥이 같은 태국 그룹 Candy Mafia와 ‘소녀시대’와 흡사한 ‘G-Twenty’가 한국 소녀 그룹을 복제했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그 외 유사 그룹 ‘Sugar Eyes’가 인기를 얻으며 부상하고 있음.

* 2010년 콘서트 및 팬미팅 현황

행사명	포미닛 팬미팅
주최·주관	큐브엔터테인먼트
일시·장소	2월 14일, 태국 방콕 센트럴 월드 플라자
비 고	태국 입국 시 천여 명의 팬들이 공항에 마중 나옴. 12일 첫 기자회견에는 20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벌임. 포미닛 멤버들도 미리 준비해온 태국어로 능숙하게 인터뷰에 응해 준비된 아시아 스타로 찬사를 받음. 12일 생방송 프로그램 출연 당시 'Muzik'을 팬들이 따라 불러서 인기를 짐작케 했으며, 팬 미팅에는 4천여 명의 팬이 몰림.
행사명	한국방문의해 기념 K-Pop 자선 콘서트
주최·주관	한국관광공사
일시·장소	9월 11일, 방콕 후아막경기장 인도어 스타디움
비 고	태국 공영 TV에 콘서트가 생중계됨. 주노 다이아나가 MC를 맡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씨야, 에프커즈(F.CUZ), 노라조가 출연함. 2010년 상반기에 이렇다 할 큰 K-Pop 콘서트가 없었기에 목마른 팬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음.
--	--

행사명	2010 LISTEN TO 씨엔블루 아시아 투어 공연
주최·주관	태국 TRUE MUSIC
일시·장소	9월 11일, 방콕 시암 파라곤 내 로얄 파라곤 홀 3
비 고	티켓 가격이 비싸서(특석 4,500바트는 사회 초년생 월급의 절반과 맞먹는 가격) 일본처럼 매진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팬이 와서 콘서트를 보고 열광함. 씨엔블루의 콘서트 소식은 태국 연예 방송에 연일 보도됨.

행사명	이민호 팬 미팅
주최·주관	스타우스 엔터테인먼트
일시·장소	10월 16일, 방콕 센트라 호텔
비 고	팬미팅 이전부터 태국의 각종 미디어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특히나 태국 반정부 폭력사태 시 화재가 나서 복구 후 일부 개장한 ‘센트럴 월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수천여명이 몰려서 주변일대 교통이 마비됨. 모처럼의 호황에 그 일대 상점 주인들은 한국 배우가 많이 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함. 태국 팬 3천여 명과 팬미팅을 가진 이민호는 매력적인 미소로 내내 팬미팅을 이어 갔으며 팬미팅 입장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매진됨. 열성 팬과 깜짝 ‘허그’ 타임을 가지기도 했으며, 한국의 여행지를 소개해달라는 팬의 요청에 이민호는 자신의 출연작 <개인의 취향> 촬영지인 북촌 한옥 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을 팬과 공유하며 분위기를 한층 돋움.

행사명	한-태국 우정콘서트(Thai-Korea's Friends Concert)
주최·주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일시·장소	10월 24일, 방콕 복합 대형 쇼핑몰 ‘시암 파라곤’내 로얄 파라곤 홀
비 고	한국을 대표하여 슈퍼주니어 K.R.Y, 미쓰에이, 브라이언이 참가하였고, 태국 최고 인기가수 친(Chin), 펙(Peck), 2010년 태국 최고 신인여가수 ‘그랜드 더 스타’가 출연함. 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대중문화산업 종합 엑스포인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 박람회(The 1st Korea Entertainment Expo 2010)’를 기념하여 개최된 콘서트로 한국과 태국의 정상급 가수들이 참가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쌍방향 문화교류를 실현함. 태국 지상파 채널인 채널 9에서 녹화 중계됨.

행사명	K-Pop 뮤직 페스티벌 ‘Mnet Ultimate Live in Thailand’
주최·주관	엠넷미디어
일시·장소	11월 13일, 태국 방콕 임팩트 무어링타니 아레나
비 고	참가 그룹은 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2PM, 원더걸스, 포미닛, 비스트 등이며, 1만 2천여 석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음. 위의 네

	그룹이 주축이 되어 3시간 반에 걸쳐 공연했으며 공연 시작 전부터 이 지역 일대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찾은 팬들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함. 비스트로 시작된 공연은 관중의 폭발적인 함성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미 태국 내에서는 잘 알려져 어린아이도 따라하는 ‘Nobody’ 춤의 주인공 원더걸스는 능숙한 무대 매너로 공연 분위기를 고조시킴.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2PM이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함. 2PM의 무대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닉쿤이 중앙 전면에 등장하자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했음. 'MULA(Mnet Ultimate Live in Asia)'는 역량 있는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및 국내 공연 사업의 글로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국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며, 중국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	---

4. 공연/전시 산업

* 2010년 한국 관련 공연 및 전시

행사명	태국국왕즉위 60주년 행사
주최·주관	태국 정부
일시·장소	6월 19일, Thailand Cultural Center
비 고	한국 가수 베이지가 한국 대표로 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히트곡 '지지리'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을 태국 국왕 앞에서 열창함. 이날 행사는 특히 즉위 60주년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유명인사와 음반 관계자들이 대거 초청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를 초청해 성대히 치뤄짐. 공연은 태국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 되었으며 녹화 방송으로 아시아 22개국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됨.

행사명	플루트 천재 '박예람 초청 공연'
주최·주관	주태국 한국대사관, Shrewsbury 국제학교 공동 주최
일시·장소	9월 8일, Shrewsbury 국제학교
비 고	2008년까지 방콕에 거주하며 Shrewsbury 국제학교의 음악장학생에 선발되어 공부했던 플루티스트 박예람 양은 현재 14세로 대학과정인 프랑스 국립 썬모음악원에서 수학중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Shrewsbury 국제학교의 초청으로 이번 방콕 공연을 가짐. 정해문 주태국 한국대사는 좋은 공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박예람 양이 더욱 발전하는 음악가가 되길 바란다는 공연축하 인사말을 전함. 공연이 끝난 후 태국 및 한국 교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음.

행사명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박람회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
일시·장소	10월 22~24일, 방콕 시암 파라곤

비 고	단순히 한국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한류로 도약하고 한류문화상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임. 한류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테디 베어, 모자, 캐릭터 전반,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이용하는 메이크업 회사, 미용실, 화장품, 연예인이 드라마에 착용하고 나온 액세서리 등으로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 등 다방면에 뛰어난 제품 들이 전시됨. 전시 상품은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 1,000여 명의 바이어들과 1,500여건의 상담을 통해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 한류스타 상품 박람회이어서 주변 아시아 국가의 관심도 높았음. 일본방송 NHK, NHK World, 태국 국영방송 MCOT, 케이블 연예 방송, 미얀마 국영방송 MRTV 등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한류상품에 대한 현장의 열기를 취재함.
-----	---

행사명	코리아 페스티벌 2010 자선행사
주최·주관	주태국 한국대사관, 한-태 교류센터(KTCC)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일시·장소	방콕 에스프라나다 쇼핑몰
비 고	한국 연예인 130여명이 오는 11월 30일부터 방콕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 2010' 자선행사에 각자의 소장품을 기증함. 태국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발생한 태국 300만 수재민을 돕기 위해, 한류가 뜨거운 태국에 한국인의 온정을 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됨. 연예인 뿐 아니라 태국에서 방송된 히트 드라마의 한국 연출자들과 태국인 유명스타들도 참여해 더욱 큰 관심을 끄.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개막 자선공연과 함께 자선 드로잉쇼, 한국 미술전, 한국 영화제, 영화 <꾸언문호>의 재상영 등 다양한 행사 속에 1주일간 전시된 뒤 경매 판매금 전액을 태국 수재민돕기본부에 전달함.

2009년에 있었던 씨암 파라곤의 공연에서 3,600석이 매회 매진되었을 정도로 태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 비언어극 ‘난타’의 상설 전용관이 2011년 2월 방콕에 오픈을 앞두고 있음.

5. 캐릭터/애니 산업

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규모는 3억6천만 달러이며, 2009년부터 13년 동안 연간 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국내 기업으로는 ‘뽀로로’ 이외는 크게 성공한 업체는 없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임. 한국 업계의 진출이 미비함.

‘마시마로’, ‘뿌까’, ‘치로와 친구들’ 등의 캐릭터는 한국 문구류 수입과 함께 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태국 청소년과 젊은 여성층에게는 일본 캐릭터 ‘키티’, ‘도

라에몽' 등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구류가 품질이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류와 동반 진출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봄.

6. 한스타일 및 기타

1) 한류 관련 출판물 붐물

한류, K-Pop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태국 연예정보지들이 앞을 다투어 출간되었으며 잡지의 종류는 '서울스타', '아시안', '김치', 'Xing', 'Love Love' 등이 있음.

매해 수십여 권의 한국 드라마 관련 단행본을 내는 '잠싸이 출판사'가 등장함. 출간하는 컬렉션은 'Jamsai Sweet Asian'에선 48권, 2번째 컬렉션인 'Jamsai Love Series'에선 132권의 한국 책을 발간함. 드라마 대본의 소설발간, 인터넷 인기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2) 한국어 배우기 열풍

한류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태국인이 증가함. 연령층은 어린 초등학교부터 직장인, 가정주부까지 다양함. 방콕 시내에만도 세종 한국어학원, KLECC, Hi 서울, 통인폰 등 한국어 학원이 있음.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태국인도 많이 늘었음.

태국 대학교에 한국어가 전공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1986년 송클라 대학이 처음임. 2010년 현재 전공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7개의 대학을 포함, 태국에서는 총 20여개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임.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9월 12일에 실시됨. 태국지역 지원자는 총 853명이며 방콕은 민부리 소재 한민국제학교에서, 송클라 지역은 한국어학부가 있는 송클라 국립 대학교에서 치러짐. 시험은 1년에 한번 실시되며 응시 급수는 1급(초급)~5급(고급)으로 나뉨.

3) 태국 기업의 한류 마케팅 사례 증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도심 이미지와 자연경관 및 드라마 배경 촬영지가 소개되면서 한국 여행이 인기를 누리고 있음. 이에 태국의 각 기업 제품 홍보 행사에 한국 여행이 경품으로 등장, 기업 매출 신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한국 여행 제품 경품행사 도입 사례

기업	행사 내용
MK 수끼	농민은행 신용카드 제휴, 'Food trip in Korea'
돈손	한국 여행 1,040,000Baht (한화 3천 8백만원 상당) 지원
더블에이	30쌍에게 각 한화 5백만원 제공 및 당첨자에게 총 1천만 원의 쇼펍비용 지원
로레알	3박 5일 한국여행 경품
Big Camera	3박 5일 한국여행 경품

2010 베트남 한류 동향 보고

베트남 / 하노이
웬민옥 통신원

◆ 총 평

2010년 베트남에서의 한류를 종합해보면 음악(K-Pop), 드라마 등이 인기가 제일 많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내 한국 문화의 인지도가 확산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밖에도 음악회나 한국 노래자랑, 태권도대회, 패션쇼 등이 자주 있어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하지만 캐릭터/애니 산업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한국 사람과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 수가 각각 9만 명이라고 한다. 그중 4만여 명은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학교나 기관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류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베트남의 한류열풍은 드라마가 처음 도입된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음. 올 한 해 동안 베트남 사람들은 <보석 비빔밥>, <술약국집 아들들>, <밥 줘>, <힘내라 금순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가족을 소재로 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에 빠져들었음.

* 2010년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방송사	드라마 제목	방송 시점
국영방송 VTV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월 5일
	군세어라 금순아	1월 29일
	보석 비빔밥	8월 3일
	술약국집 아들들	10월 29일
하노이방송	며느리 전성시대	1월 15일
	연애 시대	1월 22일
	슬픈 연가	5월 22일
	4월의 키스	6월 1일
	민들레 가족	9월 13일
	개와 늑대의 시간	9월 16일
호치민방송	애정의 조건	3월 13일
	미남이시네요	3월 27일
	스타일	4월 10일
	안녕하세요, 하느님	5월 초
디지털방송	천국보다 낯선	3월 25일
	소울메이트	7월 9일
	종합병원2	8월 9일
	게임의 여왕	8월 9일

2. 영화 산업

지난 10년 동안 미국 영화를 비롯한 서양의 영화가 베트남 극장가에 널리 보급되고 인기 또한 많았음. 그런데 요즘은 한국 영화도 드라마 못지않게 점점 수입되고 있음. 한 달에만 6~7편이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한국 영화는 한 달에 약 1편이 베트남 극장에서 상영됨.

베트남에 단 하나뿐인 한국영화 배급사인 롯데는 호치민 시내 롯데시네마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2010년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영화 제목	개봉관	개봉일
국가대표	전국 극장	3월 5일
차우	전국 극장	3월 26일
식객: 김치 전쟁	호치민 롯데시네마	4월 23일

전우치	하노이 녀산닐시네마센터	5월 14일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하이퐁 '5월 5일' 극장	6월 11일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다낭 'Le Do' 극장	6월 18일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냐장 'Hoang Hoa Tham' 극장	6월 25일
내 사랑 내 곁에	호치민 롯데시네마	9월 13일
마음이 2	전국 극장	9월 10일
시라노; 연애 조작단	하노이 내셔널시네마센터	11월 5일

3. 음악 산업

그동안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주제가를 주로 좋아하던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K-Pop을 듣기 시작했음. 덕분에 kenh14.vn, mp3.zing.vn, 2sao.vietnamnet.vn, 360kpop.com 등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나 M4Me, iTV, VCTV3 등 TV 채널 등에 한국의 유명한 노래와 그룹들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음.

지금 베트남 젊은이들 중 2AM, 씨엔블루, 애프터스쿨, 빅뱅, 이효리 등 한국 스타나 음악 밴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베트남에도 K-Pop 열풍이 불어옴. 특히 지난 3월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슈퍼주니어의 콘서트는 베트남 젊은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음.

MTV유럽/아시아 차트, 인터내셔널 차트에만 관심을 가졌던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의 음악차트 또는 인기 있는 가수와 그룹들의 내외국 공연들을 자주 보고 있음. 이제 한국 음악은 대학교 개강식, 생일파티, 학교 행사 등 베트남 젊은이들의 모든 모임에서 들을 수 있음.

4. 공연/전시 산업

해당 사항 없음

5. 캐릭터/애니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한국 드라마 속에 열이면 열 등장하는 식사 장면을 보면서 베트남인들은 여러 반찬이 다양하게 차려진 한국 밥상에 대한 흥미를 키워왔음.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하노이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이 생겨남. 양념이 많이 들어간 한식을 고소하고 향기롭다고 느끼는 베트남인들이 많아, 베트남 내 한인 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식당들이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 생겨나고 있음.

한식의 인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는 한국 음식 관련 행사임. 지난 10월 16일 하노이 대학교에서 열린 ‘한글날 연합 행사’ 프로그램 중 ‘한국 음식 맛보기’ 행사가 열린 캠프장은 학생들과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룸. 베트남 음식과 함께 비빔밥, 잡채, 김밥 등이 다 팔려나감.

또한 11월 27~28일에 한식축제가 베트남 농업전시센터에서 열림. 3번째 열리는 이번 한식축제에 하노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다양한 한국 음식 체험 기회를 얻음. 이를 보면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한식도 점점 한류의 입지를 넓히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0 인도네시아 한류 동향 보고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신진세 통신원

◆ 총 평

1. 2010년 한류 동향 총평

2010년 한류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인도네시아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예로 들어보자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TV나 라디오, 음악, 영화 등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의외의 장소, 의외의 생활 속에서 깊게 뿌리 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 한류도 보다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드라마, 영화 등은 그 열광의 정도가 한풀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음식 선호도, 한국 관련 전공자 증가, 한국문화 이해도 등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홍콩 느와르물이 한때 범람했지만,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2~3년 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과 같이, 단순히 <대장금>, <꽃보다 남자>와 같은 드라마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기반을 둔 한류는 그 새로움과 호기심이 사라졌을 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본질에 가까운 한류 문화, 한류 양식의 전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류 문화가 드라마 등의 예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게임 선호도 증가, 한국 IT 제품 사용,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어 학습자 증가, 용무도 무술의 인도네시아 진출 등으로 더 큰 자생력을 확보해나가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올해 있었던 한류 관련 소식 중 가장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동향은 한국 롯데마트의 개점으로 꼽고 싶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재 재래시장

사용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롯데마트, 하이퍼마트, 까르푸 등 SSM의 이용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롯데마트는 한국관련 상품 진열, 제품의 한국 원산지 표기 등을 눈에 띄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 속에 한국 상품을 끌어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핸드폰, TV, 세탁기와 같이 비교적 고가 제품군에서만 한국산 삼성, LG가 노출되었다면, 이제는 생필품, 먹을거리까지 한국산을 주방에 들여놓게 됨으로써 보다 가까운 생활 속에서 한국의 제품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주 봐오던 장을 롯데마트에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TV 너머에서 한국을 보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다만 현재에는 롯데마트 22개 지점이 자카르타 근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지근거리에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4년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졸업자를 배출한 것도 한류가 앞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중요한 물줄기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일본 기업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층 및 부유층의 경우 전통적인 영미권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많이 유학을 하고 있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일본을 일시적인 문화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진적인 것을 배워 와서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회 곳곳에 있다. 한국어와 한국 자체를 4년제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운 사람들의 경우 향후 지한파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활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눈앞의 한류 전파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류는 전체적으로 드라마, 음악, 영화 부문에서는 과거 최고 전성기 때와 비교해서는 다소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지만 학문적인 부분,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생활 부분에는 보다 깊숙이 침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한류 확산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2. 2011년 한류 현상 예측

인도네시아 인근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면, 한류의 열풍이 드라마 중심에서 아이돌 그룹 음악 중심으로 넘어온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다.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드라마조차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단시간에 너무 많이 전파되자 피로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비슷비슷한 내용물에 드라마 중독, 즉 관성에 의해서 보게 되어 “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다”는 한국인 시청자들과 흡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드라마 한류의 바통을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이어받아 시각적으로 동남아 지역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여서 그 물결이 다소 느린 것인지, 드라마 열풍에서 아이돌 한류로 바통이 전해지지 않은 듯하여 2011년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풍이 뒤늦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 주간 행사 때 내방한 샤이니의 인기도 상상을 넘을 만큼 높은 것이긴 했지만,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TV를 틀기만 하면 한국 아이돌 음악이 나온다든지 길거리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아직은 한발 늦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드라마 중심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도 인기 인터넷 사이트 순위에는 항상 유튜브가 포함될 만큼 해외 인기 동영상 시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열풍이 스며들 것 같다.

그밖에 일반 생활 속에서의 한류 문화는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총 27억불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기백명 규모의 대규모 해외파견 근무를 보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 수천 명의 고용이 예상되며,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직접 고용인 외에 부양가족들까지 고려할 경우 생활 속에서 한국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학 학습자도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큰 인기를 얻었던 <꽃보다 남자> 이후 이렇다 할 대형 인기 드라마는 없었으며 <미남이시네요>가 비교적 큰 인기를 바탕으로 재방영됨. 하지만 이 드라마도 과거의 <대장금>이 보여주었던 50%가 넘는 시청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 KBS의 해외방송인 KBS WORLD에서는 현재 한국 KBS에서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를 큰 시차 없이 바로 방영해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자막 방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 위성 방송인 관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시청률은 높지 않음.

공중파에서의 한국 드라마 인기는 재방영으로 일관하는 등 시들하게 보이지만 불법 다운로드 CD 및 DVD로 제작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함. 제한된 공중파 채널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영 및 재방영은 몇 개 드라마에 국한되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이 구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 방영 드라마와 거의 실시간으로 똑같음. 상반기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공부의 신>을 비롯하여, 최근의 <성균관 스캔들>까지 불법 다운로드 CD는 방영되는 즉시 1~2일간의 시차만 두고 시판됨.

이러한 관행은 한국드라마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유명 드라마, 중국 및 일본 드라마도 동일한 방식으로 본 방송 방영과 동시에 불법 CD가 제작되어 시청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불법 CD의 가격대는 드라마에 따라 3~4개의 에피소드를 묶어 1개의 CD로 제작하는데, 한화 약 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 가격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장까지 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자카르타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를 공중파 방송으로 끌어내거나, 인터넷 유료 보기 등으로 구현한다면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기가 높은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공중파 채널 한국 드라마 및 한국영화 방영 현황**

- <조폭마누라> INDOSIAR
- <아가씨를 부탁해> INDOSIAR
- <신데렐라 언니> INDOSIAR
- <미남이시네요>(재방영) INDOSIAR
- <개인의 취향>(재방영) TRANS 7
-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INDOSIAR

이밖에 10월 12일 한국 주간을 맞아 진행된 샤이니, 구준엽 등이 출연한 ‘한국 우정 콘서트’ 무대가 녹화되어 인도네시아 공중파 TVRI를 통해 10월 24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방영됨.

2. 영화 산업

한국영화는 각종 영화제 또는 영화 행사 외에는 아직 인도네시아 극장에서 상영되는 일은 드뭄. 올해 유료로 상영된 한국영화는 <전우치>(JEON WOO-CHI, THE

TAOIST WIZARD), <맨발의 꿈>(A BAREFOOT DREAM)이 있으며 한국 관련 영화로는 태국 영화인 <HELLO STRANGER>(한국에서 전체 촬영이 이루어진 태국 영화)가 있음.

이 중 <맨발의 꿈>은 영화의 배경이 동티모르(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에서 이루어진 만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도 본 영화에 나오는 티모르 청소년 축구 대표팀에 후원인들이 많이 있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유료 시사회가 9월 10일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으며, 9월 29일부터는 정식 상영에 들어갔으나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 3주 동안만 개봉극장에서 상영되어 아쉬움을 남김. 실제 관람한 한국 교민 또는 현지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으나, 개봉관의 수 자체가 총 6개로 적었기 때문에 입소문만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중적인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함.

10월에는 한국 문화 주간이 열려 문화 주간 행사의 하나로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자카르타의 그랜드인도네시아 블릿츠 메가플렉스에서 한국영화제가 개최됨. <식객2>, <의형제>, <거북이 달린다>, <아내가 결혼했다>, <반가운 살인자>, <6년째 연애중> 등 6개 영화가 기간 중 각 2회씩 총 12회 상영됨.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한 영화당 2회씩 상영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음.

극장에서는 상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영화는 불법 복제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이 관람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한국영화의 한국 내 상영과 동시에 캠프더버전의 저화질 불법복제 DVD가 유통되고, 이어서 정식 DVD가 제작이 될 즈음 다시 한 번 고화질의 DVD가 재유통 될 만큼 한국영화는 불법적인 경로로 많이 전파되고 있음. 이것은 영화 배급업자들이 극장에 정식 상영하였던 한국영화들(2007년부터 <중천>, <짝패>, <광식이 동생 광태>, <폭력씨클>, <쌍화점>이 개봉됨)의 유료 관람객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극장 관람용 영화는 할리우드라는 공식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임. 한국영화의 관람이 주로 불법 복제 DVD로 이루어지다 보니, 영화 제목의 통일성도 문제임. 불법 유통업자들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다르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경우 자신이 관람한 한국영화의 공식 제목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함.

* 인도네시아 Blitz Megaplex Box Office (11월 23일 기준)

1. The Social Network (할리우드)
2. Golmaal (볼리우드)
3. Megamind (할리우드)

4. Takers (할리우드)
5. You Again (할리우드)
6. Megamind 3D (할리우드)
7. The Girl with a Dragon Tatoo (할리우드)
8. Life as We Know It (할리우드)
9. Eat Pray Love (할리우드)
10. Action Replay (볼리우드)

태국, 인도 영화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박스 오피스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취향이 다양한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이 해결된 우수 한국영화가 선별적으로 인도네시아 극장가에 걸릴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물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임.

3. 음악 산업

인도네시아 음악 시장에서 한국 가요의 인기는 인기 드라마에 나온 음악과 일부 아이돌 가수의 노래 중심으로 형성됨. 다소 생소한 언어로 부르는 노래이기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 중심으로 유행함.

인도네시아는 자국 밴드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자국 밴드의 노래가 많은 인기를 얻고, 댄스 가요나, 개인 중심의 발라드 가요는 일부 톱 가수를 제외하고는 차트에 보기가 어려움. 따라서 발라드 및 10대 중심의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댄스 가요는 일부 화교 계층이나 10~20대 여성 층을 벗어난 광범위한 사랑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음. 이런 현상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한국 드라마로 인한 1차 한류 드라마 바람에서, 2차로 불어온 완성도 높은 한국 아이돌 가수로 인해 한류 바람이 더 폭발적인 지속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와는 한발 비껴난 듯 늦은 모습을 보임.

* www.detikhot.com 음악 차트(11월 23일 기준)

1. Saat Terakhir (ST12)
2. Gelora Asmara (Derby)
3. Aku Bertahan (Rio Febrian)
4. Aku Pasti Kembali (Pasto)
5. Nuansa Bening (Vidi Aldianto)

인도네시아의 한국 가요는 아직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 드라마를 통해 귀에 자주 익은 곡의 인기가 높음. 한국문화 관련 팬클럽의 웹사이트에서도 한국 엠넷의 인기 가요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가요는 이러이러한 곡들이기 때문에 우리 팬클럽에서도 나누어 듣자는 식의 코멘트가 보임.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인기 있는 현재의 한국 가요는 최근 재방영을 시작한 <미남이시네요>와 <꽃보다 남자>의 삽입곡임.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된 음악파일이 CD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시장은 매우 큼. 자카르타 시내의 전자 상가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수들 앨범 전체가 종류별로 판매가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가요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거나 불법 CD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보니 한류 및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또한 체계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 큰 시장 규모에 비해 한국 가요의 상업적인 결실은 저조한 편.

지난 8월 7일에 현지인 팬들을 대상으로 한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 인기 배우 김범의 인도네시아 팬 사인회가 개최됨. 티켓 가격이 최대 한화 20만원에 달하는 데도 성황리에 사인회는 진행되어 2년이 지나도 현재 진행형인 <꽃보다 남자>의 인기를 실감케 함.

지난 6월 20일에는 자카르타에서 소니에릭슨 핸드폰의 프로모션을 위한 공연 행사에 원더걸스의 출연이 있었음. 이날 공연에서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응원으로 현지인 팬들 10여명이 실신해서 쓰러지는 소동이 있었으며, 공연 중에 외부로 실려 나감.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원더걸스 멤버들은 실신한 팬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와서 일일이 위로의 말과 함께 사인을 건네 인도네시아 팬들의 감동을 얻었으며 이 모습은 9월 10일의 한국 방송 엠넷에서도 방영됨.

10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블루스 페스티벌에 한국의 블루스 전문 뮤지션인 김목경이 출연함. 김목경은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블루스 기타를 치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젊은 에릭 클랩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거의 매년 자카르타 블루스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음.

12월 6일에는 2PM 출신의 인기 가수 재범이 인도네시아에서 쇼케이스를 가짐. 본 미니 쇼케이스 수익의 일부를 지난 10월 달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 피해 난민을 위해 기부함.

4. 공연 · 전시 산업

(1) 2월 20일, 인도네시아의 ‘한글사랑, 나눔’을 주제로 가수 장윤정의 콘서트가 열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됨. 특히나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표기 문자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가운데 한글 사랑을 주제로 행사가 열려 행사의 수익금 일부가 전달되었으며, 연예인 홍록기, 최영철도 특별 출연함. 장윤정은 히트곡인 ‘어머나’, ‘콩kak지’, ‘애가 타’ 등을 2시간 동안 열창했으며, 짜아찌아족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짐. 이에 짜아찌아족이 거주하는 바우바우시에서는 장윤정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이벤트도 있었음.

(2) 3월 9일부터 17일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한국의 명창 박노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공연함. 수도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땅그랑 지역, 반둥, 족자카라타 지역까지 힘든 공연을 마친 박노웅 명창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관객들로부터 모금을 접수하여 인도네시아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진정한 한류 실천에 나서 많은 교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함.

(3) 5월 16일 자카르타 거주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해피 자카르타 청소년 오케스트라(HJYO)’가 창단연주회를 갖고 데뷔 무대를 가짐. 음악전공도가 아닌 일반 7~12학년의 학생들로 8개월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연습해 무대에 올라 한인 및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음.

(4) 6월 14일 한국 안무가 김재덕씨의 ‘다크니스 폼바’가 2년에 한 번씩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개막초청공연을 하였으며 공연 후에는 인도네시아 댄서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함.

(5) 8월 14일에는 자카르타의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한소리회’ 초청 공연이 있어 총 6명의 한국인 성악가가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여 공연함.

(6)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0 인도네시아 수처리 및 환경 종합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주)비엔에프, 유네코개발(주) 등의 업체들이 총 25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둠.

(7) 8월 27일에서 9월 26일까지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인치혁 작가의 소품전이 개최되어 ‘시간<계획<역사’라는 주제로 대표작들이 전시됨.

(8) 4/4분기인 10월 11일~16일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인도네시아-한국 문화 교류 주간’이 개최되어 다양한 한류 공연 및 전시가 열림.

(9) 10월 11일 ‘한국-바텍 패션쇼’, 10월 12일에는 샤이니, 구준엽, 손호영, 나옴이가 내방하여 ‘한국 우정 콘서트’를 개최함. 6천여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이 몰려 성황리에 끝남. 10월 13일에는 한국의 비언어극 <Beat>가 공연되었으며, 10월 15일에는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있었음. 한국 문화주간 중에 <Beat>외에 <Jump>의 프리뷰 상영이 한국 관광 박람회 행사와 같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음. 공연 내용이 언어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소리와 박자, 시각적인 효과 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참신한 공연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몰입과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공연이 끝난 후에는 공연 배우들과 사진을 찍고자 길게 줄 선 모습 등에서 한국의 비언어극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음.

(10) 3년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리는 ‘인도네시아 아트서밋(Art Summit 2010)’의 개막 작품으로 한국의 대구시립무용단이 초청되어 ‘시인 이상화의 마돈나’를 공연함. 10월 4일과 5일에 걸쳐 2회 상영 동안 현지인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음. 아트서밋에 초청되는 해외 공연팀들은 주로 정상급의 공연단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에 대구시립무용단의 위상을 보여주기에 손색없는 자리였음.

(11) 10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구인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현지인들이 몰려 실제로 인원이 필요한 기업과 인원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등 큰 성과가 있었음. 또한 한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3~5년 정도 거주하다 귀국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기에 많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함.

(12) 10월 30일에는 삼성 갤럭시탭을 특별 가격으로 출시하는 행사를 벌여 현지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 한국보다 먼저 출시된 탓에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장시간 줄을 서서 구매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1인당 1개씩 판매가 가능한 탓에 여러 현지인을 동원하여 십여 개를 구입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인터넷에서 되파는 현지 상인들도 속출할 만큼 큰 인기를 끌기도 함.

(13)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 폭발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및 전시회가 열림. 현지 주민들의 구호와 재화를 돕기 위해 열린 전시 바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소장품을 전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화산 피해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했음.

5. 캐릭터 · 애니메이션 산업

인도네시아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의 캐릭터 산업과는 달리 한국 캐릭터는 소개가 부진함.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캐릭터는 아동용 ‘뽀로로’이며, ‘뽀로로’와 관련한 인형, 의류 등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들이 일반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음. ‘뽀로로’는 인도네시아 공중파 ANTV에서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어 ‘뽀로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주변의 구두 설문 결과 한국산인지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 아동용 만화 방송을 통해 전파된 ‘뽀로로’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다가 서서히 저변확대 중임.

한국 게임 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강세임.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은 최대 동시접속자수가 25만 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1위 게임 ‘포인트 블랭크’를 비롯하여 ‘라그나로크’, ‘갯 앰프드’, ‘썰 온라인’, ‘아틀란티카’, ‘크로스 파이어’, ‘프리스타일’, ‘오디션’ 등이 있으며, 지난 9월 16일에도 ‘아발론 온라인’이 신규 런칭.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퍼블리셔 회사인 PT. KREON이라는 한국계 회사가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인 게임 한류 전파에 앞장서고 있음.

10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쉽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총 11개국 대표팀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벌임. 최종 우승은 전통적인 라그나로크 강국인 태국이 차지하였으며, 2위는 일본 대표팀이 수상함. 인도네시아에서는 컴퓨터 게임 관련 국제 대회가 처음 개최되어 많은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라그나로크 원작자인 한국의 이명진씨가 내방하여 사인회를 가짐. 이밖에 라그나로크 관련 코스튬 플레이 콘테스트도 개최됨.

9월 29일부터 라그나로크는 인도네시아 게임 유저들을 위해 게임 상의 지도에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양 및 풍경을 반영한 특별 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현지에서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1) 2010년에 가장 두드러진 인도네시아 한스타일 분야의 특징은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음식의 대중화 노력.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음식은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 하람(금기된 음식)으로 여겨져 비교적 인기를 얻지 못했었고, 인도네시아계 중국 화교들에 국한된 관심을 받아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인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여 상대

해왔던 한국 음식점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대형 쇼핑몰의 푸드 코트에 한국식 반찬과 음식을 파는 한국 음식점이 입점하게 되었으며, 현지인들의 한식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한국식 길거리 음식이 조금씩 유행하고 있음. KFC 및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롯데리아가 인도네시아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3월을 목표로 개점을 준비 중임.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왔던 한국의 먹을거리도 여전히 강세임. 과거에는 한국인 주인의 한국 식품 슈퍼마켓에서만 판매해왔던 신라면 등의 각종 한국 라면류, 과자, 인스턴트 식품류는 작년부터 서서히 현지 할인매장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한국계 롯데마트를 비롯하여 현지 인도네시아계 할인매장인 하이퍼마트, 프랑스계 할인매장인 까르푸에서도 상시 구입할 수 있게 됨. 한국계 롯데마트는 현재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속속들이 지점을 추가 개점하고 있으며 11월 11일 자바섬의 반둥에 페스티발시티점을 개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총 22개의 점포를 가지게 됨. 이 밖에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도-소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국 회사 먹을거리는 대상의 미원 및 튀김용 빵가루임. 한국 농산물은 현재 한국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일반 백화점 및 고급 쇼핑몰에서도 현지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사과, 배, 팥이버섯의 인기를 중심으로 그 가짓수를 조금씩 넓혀 가고 있는 중임.

한국 음식과 관련하여 5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회 주최로 김치페스티벌을 열어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 관리들의 부인 5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어 실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만들어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짐.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한국 음식에 대해 린다 여성부 장관은 건강식으로써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지 공중파 민영 방송국인 Metro TV 등 현지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임.

(2) 인도네시아에서 정규 4년제 대학 한국학과로써는 처음으로 지난 8월 25일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에서 1회 졸업생, 총 26명 (남 2명, 여 24명)을 배출함. 동 대학교의 한국학과에서는 11월 6일 ‘한국 문화의 날’ 축제를 개최하여 한국 KOICA 단원들의 지원으로 태권도 공연, 사물놀이, 한국어 가요제, 부채춤 공연 등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유료 행사장에는 총 2천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준비한 표가 전량 매진됨.

(3)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2월 22일에는 자카르타 외곽의 찌뜨라라야 지역에서 한글 교육을 위한 무지개 공부방이 개설되어 다문화 가정의 2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들어감. 정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한국의 다문화 가정과는 달리 한국어 습

득에 불편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은 그동안 한국인 아버지가 직장
에 출근한 후에는 따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한국인으로써의
일체감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의 사랑방도 되는 공간이 마련되어 한인 사회가 보다 더 확대되는 데 기여함.

(4) 한국에 대한 관심이 민간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님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 정
부 관련 행사도 있었음. 지난 4월 16일에는 인도네시아의 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가 개설되어 한국 관련 도서 및 DVD 총 2,600여 점이 전시되
었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까지 매년 200여권 이상의 한국 관련 자료를
추가 지원기로 함. 일반 대학교가 아닌 국립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실이 개설됨으
로써 한국을 알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자카르타 명소인 모나스
기념탑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곳에 한국 자료실이 개설되어 더 많은 이용
이 기대됨.

(5)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을 합쳐 만든 한국 무예인 용무도도 인도네시
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전파되어 현재까지 2년 남짓
의 시간이 흐른 동안 현재는 인도네시아 전 육군의 공식 무도로 채택이 되었으며,
군대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민간에서도 용무도를 수련하려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6) 한국의 유명 만화가 김동화의 만화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임.
인도네시아 출판사 Gramedia와 김동화가 2006년도에 만들어낸 ‘영혼을 위한 닭고
기 수프’의 인도네시아어 버전 ‘Hadiah Terindah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출간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인도네시아 서점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인도네시아 독자
들의 시선을 끌고 있음. 일본 만화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아
름답고 밝은 내용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김동화의 만화는 불법 복제가 만연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 시장에서 선전함.

(7)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2010년은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
제성장률에 많은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거둔 해였음. LG전자는 올해 인도네시아
진출 20주년 기념식을 벌였으며, 올해에도 LCD TV,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에어
컨, LCD 모니터, 오디오의 6개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며 인
도네시아의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8) 10월 28일에는 포스코가 자바섬의 찰레곤에 총 27억불 투자 규모의 일관 제
철소를 착공하였고,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에 총 12억불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현재 공장 부지를 물색 중. 제철과 같은 제조 사업은 대규모의 인력채용을 전제로 하기에 한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한국에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됨.

2010 말레이시아 한류 동향 보고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김지연 통신원

◆ 총 평

2010년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현저히 다른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수교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과 상생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에서부터 현대의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가 지닌 독특함과 다양성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무슬림 국가에서의 ‘한류’도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니다.

2010년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는 몇 가지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아이돌 그룹의 폭발적인 인기와 콘텐츠의 동시성이 바로 그 예이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2010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가요에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7팀(슈퍼주니어, 비스트, 유키스, 브라이언, JYJ, 원더걸스, 소녀시대)의 한국가수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가졌으며, 이 공연은 모두 현지 언론과 팬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2010년 11월 ERA Radio에서 발표한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가수들의 인기를 집계하는 A-Pop 차트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가수들로 채워졌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혹은 가요가 해외로 진출하던 종전 방식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 및 트렌드가 동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등으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한류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드라마 및 가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최근 동향을 살핀다. 공중파의 연예중계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에서 새로 발표된 음반소식과 공연소식,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인기열풍과 인터넷을 통한 동시적 콘텐츠 소비로 한류는 더욱 활기를 띄기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드라마로 전성기를 맞았던 한류가 험한류의 역풍을 맞았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新한류의 열기를 긍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인기가수를 이용한 지나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형기획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기획사에서는 현지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시해야 한다. 또한 80년대를 풍미한 홍콩 느와르의 몰락이 주는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호기심은 항상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현재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가 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언제든지 그들의 관심은 떠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에 맞춰 가요나 드라마 뿐만 아니라, 한글, 음식, 패션, 미용, 관광 등의 부가산업으로 한류의 힘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방영 채널	방영일 및 방영시간	방영 내용	시청률	비고
8TV 공중파, 민영 방송	월요일~금요일 저녁 8:30~9:30 (한국드라마 고정방영)	찬란한 유산 (Brilliant Legacy)		상반기
		오 마이 레이디 (Oh My Lady)		
	월요일~금요일 낮 시간대(오후 3시~4시) (한국드라마 편성(재방송))	개와 늑대의 시간 (The Time between Dog and Wolf)		
		일지매 (Iljima)	0.6%	
Astro Animax 유료 위성채널	토요일 오후 1:30 ~7:50	탐나는도다 (Tamra The Island)	1.5%	
	Animax(Astro), 저녁 8시	커피프린스 (1st Shop of Coffee Prince)		
Astro KBSW 유료	Animax(Astro), 저녁 8시	마이걸 (My Girl)		
	• 드라마 - 바람 불어 좋은 날, 국가가 부른다, 엄마도 예쁘다, 아줌마가 간다, 아름다운 시절, 제빵왕 김탁구, 위대한 유산, 수상한 삼형제, 거상 김만덕, 대조영, 결혼해 주세요, 인순이는 예쁘다, 성균관 스캔들, 못된 사랑, 도망자			

위성채널	• 다큐멘터리 - 환경스페셜,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3일, VJ 특공대
	• 버라이어티 - 1박2일, 해피투게더, 천하무적 토요일, 남자의 자격, 출발드림팀 시즌2, 비타민, 해피선데이, 스타골든벨, 연예가중계, 6시 내고향
	• 음악 -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뮤직뱅크, 콘서트7080, 전국노래자랑, 유희열의 스케치북
Astro ONE HD	• 편성 - 발리에서 생긴 일, 이웃집 웬수, 자명고, 나는 전설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당돌한 여자, 조강지처클럽,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스타킹, 스타주니어쇼, 체인지, 카운트다운, 김정은의 초콜렛
유료 위성채널 HD전용	2010년 10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HD 한국드라마 전용 채널. HD전용 서비스인 Byond HD 신청 고객만 시청이 가능한 채널로 대중적인 채널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2. 영화 산업

해당 사항 없음

3. 음악 산업

(1) 슈퍼주니어, 말레이시아 첫 단독 콘서트

3월 20일 오후 7시 부킷잘릴 푸트라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슈퍼주니어 the Second Asia Tour-Super Show2’가 1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짐. 3시간 동안의 공연에서 총 32곡 열창함.

(2) 유키스 말레이시아 팬미팅, 유키스! ME 개최

6월 19일 오후 2시 KLCC Plenary Hall에서 팬미팅 개최함. 팬클럽 회원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공연함.

(3) 비스트 말레이시아 첫 쇼케이스 및 사인회

아시아 4개국 프로모션 차 말레이시아 방문함. 6월 2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 현지 매체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중화권 기자들을 위해 중국어로 멤버를 소개하고, 일부 질문을 통역 없이 직접 중국어로 답변하여 현지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

기자회견 후 KL LIVE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 초청된 2천여 명의 팬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됨. 6월 27일 오후에는 PJ 최대 쇼핑몰인 11UTAMA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 판매한 음반이 매진되는 등 현지 팬들의 열렬

한 환영을 받음.

(4) 브라이언 말레이시아 프로모션

7월 10일 오후 3시 Sunway Prymid의 The Opera에서 첫 번째 말레이시아 팬미팅을 개최함. 800여 석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성황리에 공연을 마침. 2박 3일 동안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팬미팅, TV 생방송 토크쇼 출연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함. 유창한 영어습씨로 현지 언론과 팬들과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5) JYJ 월드와이드 싱글발매 기념 말레이시아 쇼케이스

전 동방신기 멤버인 재중, 유천, 준수로 구성된 JYJ가 10월 17일 Stadium Negara에서 그들의 첫 번째 영어 싱글음반인 The Beginning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함. 4천여 명의 팬들의 뜨거운 환호로 성황리에 마무리함. 해체 및 멤버 재구성에도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한류스타임을 입증함.

(6) 음반차트

현재 라디오스테이션인 ERA FM에서 청취자 투표를 통해 K-Pop 순위 및 A-Pop 순위를 발표함.

2010년 11월 3주차 A-Pop 순위를 보면, AYY GIRL(JYJ), HOOT(소녀시대), After Love(FT아일랜드), Nu ABO(에프엑스)가 1위부터 4위까지 랭크됨.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음악 중 한국가요가 최고의 인기를 누림.

4. 공연·전시 산업

(1) 한국관광공사, 한류 콘테스트 및 R16 비보이 대회 개최

말레이시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지사장: 김기현)에서 한류 콘테스트 및 R16 비보이대회 개최함.

한류 콘테스트는 4월 17일 오후 1시 한국관광공사 코리아플라자에서 예선을 진행함. 총 44개 팀이 출전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함. 예선에서 선발된 10개 팀이 5월 15일 KL Life Center에서 결선에 참여함.

R16 비보이 대회는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4대 비보이 대회로 자리잡은 메이저 대회임. 4월 24일 진행된 말레이시아 지역예선에서는 15개팀이 참가하여 Giller Battle와 Wakaka Fever가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5월 15일 진행된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7개국 8개팀이 참가하여 올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R16 세계 비보

이 대회 초청권을 두고 경합함. 최종 우승은 베트남 대표인 Big Toe가 차지함.

대회 후 힙합콘서트에서 우승팀의 앙코르 공연과 현지 힙합 뮤지션인 Altimet, Dose Two의 공연 및 한국 비보이 퍼포먼스 팀인 Baby의 공연이 이어짐.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믹스한 비보이 팀의 공연에 대해 새롭고 흥미로워 했으며, 섹시한 여자 댄서들의 안무에 상당히 놀라워하는 분위기였음.

(2)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rean Gala Night : Savour and Style’

한 · 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한국주간’(5월 7일~15일) 행사의 일환으로 ‘Korean Gala Night : Savour and Style’ 개최됨.

2010년 5월 9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행사로, 말레이시아 Zainal Abidin 국왕부부와 마하티르 전 총리부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재민 제1차관 등 300여명에 달하는 많은贵宾들이 참석함. 이들은 한국 고유의 한정식을 재현한 Gala Dinner와 한복 패션쇼를 참관했음.

(3)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rea Music and Dance’ 개최

‘한국주간’의 첫 번째 문화교류 행사로 5월 7일 국립남도국악원을 초청하여 ‘Korean Music & Dance’ 공연을 개최함.

말레이시아 국립극장인 Istana Budaya에서 펼쳐진 본 공연은 1200여석 규모의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대거 참관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함.

(4)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서포터 ‘사랑해요 코리아클럽’ 창립

4월부터 한국을 사랑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해요 코리아클럽’을 모집하여 5월 22일 Menana Hap Seng 내 코리아플라자에서 창립 행사를 가짐.

행사당일 2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결성 목적 및 의미에 대한 설명, 향후 활동방향, KBS 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유명해진 소피아의 회원대표 선서, 한류콘테스트 준우승 팀의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됨.

총 모집회원은 500여명으로 남성이 20%, 여성이 80%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0%, 20대가 50%, 30대가 17%, 40대 이상이 15%를 차지함.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Astro Playhouse 채널에서 ‘뽀로로와 친구들’이 매일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간 방영됨. ‘선물공룡 디보’가 매일 오전 8시부터 30분간 방영됨.

6. 한스타일 및 기타

(1)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드라마 한국 촬영 유치

한국을 배경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The Calling of Nami Island’의 한국 촬영을 유치함. 총 13부작 중 5편은 말레이시아에서, 8편은 한국에서 제작되며, Astro와 올해 중 방영하기로 계약함.

말레이시아 유명 가수 겸 드라마 제작자인 마위(Miwi)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동기획으로 제작되며, 남이섬을 주 무대로 남대문, 명동, 민속촌, 에버랜드, 롯데월드, 63빌딩 등을 배경으로 촬영될 예정임.

(2)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10월 29일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 내 코리아플라자에서 개최됨.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최하였으며, 국제교류재단, 헤닉권, 관광공사에서 후원함. 총 37명의 참가자가 참석함.

(3) Korean Food Festival Office 오픈 기념 ‘한국의 맛’ 행사

3월 11일~2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Prince Hotel에서 ‘A Taste of Korea’가 개최됨.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KL지사, 한국관광공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 후원함. 서울 롯데호텔의 한창수 주방장과 그의 팀을 초청하여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의 맛을 선보임. 3월 11일에는 Korea Food Festival Office 설립을 기념하여 80명의 VIP를 초청하여 한국의 음식, 퍼포먼스 등이 결합된 이벤트를 개최함.

(4) 제7회 한-말 청소년 축제 개최

11월 13일 오후 6시 한인회와 코참말레이시아 주최로 MCA Hall에서 제7회 청소년축제를 개최함.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밴드, 댄스, 솔로, 클래식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음.

2010 몽골 한류 동향 보고

몽골 / 울란바토르
몽흐자르갈 통신원

◆ 총 평

1. 2010년 한류 동향 총평

2010년은 몽골과 한국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한 해였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를 잇따라 개최한 것이 올해 몽골인들에게 기존 한국 드라마, 가요에 한했던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난타 공연팀의 방문과 한식세계화 행사 등 처음으로 개최된 이들 행사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모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몽골의 한류는 다른 동남아 국가나 일본, 중국의 경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 몽골은 280만 명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이지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세대가 한류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몽골에게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제3의 이웃국가로, 대다수 몽골인들은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웃 두 나라와의 문화교류가 많고 몽골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크지만, 한편으로 이들을 제외한 외국 문화에도 매우 개방된 국가이기도 한다.

(3) 같은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역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특히 생김새가 비슷하고 정서가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즐겨 보거나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4) 한국어 학습자나 구사자가 비교적 많다.

(5) 현재 3만 명의 몽골 근로자와 유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몽골에서는 3천여 명의 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주로 인구의 반 정도가 사는 수도 울란바토르 위주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과 몽골인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최근 들어 거리를 다녀 보면 한식당이 수없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일반 슈퍼에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이 판매되는 등 한국산을 애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거나 가수가 입는 옷을 따라 입고, 화장도 따라한다. 또한 한국산 전자제품이 잘 팔리고, 한국 휴대폰 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지리적 거리만큼 왕래가 많다.

이처럼 한류는 몽골인들의 일상생활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기 있는 드라마의 경우 한국에서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몽골 TV에 번역되어 동시에 방송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이번 12월초 몇몇 방송국에서 잇따라 <자이언트>를 방송했고, 대부분의 채널에서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다음 회를 기다리는 주말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된 5회분을 요약해서 재방영하기도 했다.

2. 2011년 한류 현상 예측

2011년에도 몽골에서 한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드라마 부분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방문한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가수들을 통해 K-Pop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11년은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로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고위급 인사들 상호 방문, 경제적 교류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문화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청소년 교류 사업, 사막화 방지 식목 사업, 한식 세계화 등 여러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문화, 한류가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이전에 ‘한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나 이제는 신문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가끔 볼 수 있을 정도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함. 봄에 제작된 드라마 <아이리스>가 히트를 쳤고,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이언트>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음.

몽골 언론 연구소(Press Institute) 조사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월 동안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제빵왕 김탁구>였고, 8월은 <분홍 립스틱>이었음.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을 연령대로 보면 40대, 성별로는 여성이 가장 많았음. 6~7월 월드컵, 그리고 7월 11-13일 명절,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높게 나타남.

몽골 공중파 방송사들은 인기 있는 드라마를 교대로 방영하거나 재방송하고 있음. 공중파 이외 CATV를 통해 재방송하고 있어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경향이 적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가족 드라마를 즐기는 중년이며 텔레비전을 선호함.

반면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찾아보거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DVD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함. DVD는 주로 이미 TV에서 더빙한 작품들이고, 가격도 3천원 정도로 저렴함.

드라마 이외에도 몽골 교육 방송 BTV는 KBS의 'TV 소설' 시리즈를 번역하여 방송하고 있음. 또한 지난 11월 한국의 KBS에서 제작한 특집 '아시아 국가들'을 방송함. 과거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물론, 최근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도 시차 없이 거의 바로 방송되고 있음. 한국 드라마의 시청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방송사는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방송하는 경우도 많음.

한편, 최근 들어 일부 시청자들이 “너무 한국 드라마만 방영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몽골 방송사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드라마 그리고 몽골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도 방송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현재 몽골 지상파 전국 방송 10개와 위성방송 20개 채널에서 평균 16-18시간 동안 방송이 송출되고 있음.

*** 2010년 몽골 방송사의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시간	방영일
UBS-1	애자 언니 민자	월~일 22:00	12/6~2/3
	천국의 계단	월~일 22:00	2/4~2/25
	겨울연가(재방송)	월~일 22:50	3/11~3/31
	아내가 돌아왔다	월~일 23:00, 11:00(재)	4/1~5/27
	물병자리	월~금 22:10, 11:10	10/20~12/2
	제빵왕 김탁구	11:40, 22:00	10~11월
UBS-2	애정의 조건	월~일 18:10	11/10~1/10
	장길산	월~금 10:05	7/6~8/4

	분홍 립스틱	월~일 12:10, 23:00	5/29~8/26
UBS-3	대장금	월~금 10:40, 20:00	9/2~12월
	아내의 유혹	월~금 22:00	11/6~현재
	태양의 여자	월~금 21:40	10~11월
	아가씨를 부탁해	월~일 23:00	9~10월
	천사의 유혹	월~일 18:40	1/3~1/22
	신데렐라 언니	월~일 09:30, 18:50	10/4~
	김수로	월~일 09:30, 19:00	9/6~
	도망자: 플랜B	월~일 18:50	11/22~현재
TV 5-2	수상한 삼형제	월~일 09:30, 19:00	5/17~
TV 25-1	야망의 세월	월~일 19:00	3/22~
	아이리스	월~금 10:50	5/20~
	내조의 여왕	월~일 20:00	2/3~2/24
	선덕여왕	월~일 20:00	1/2~3/5
TV 25-2	누구세요	월~일 17:45	2/7~2/25
	공부의 신	월~일 17:45	3/20~
	대조영	월~금 23:00	11/22~1/28
B TV	천만번 사랑해	월~일 20:00	3/24~
	아이리스	월~일 18:10	3/20~
	일지매가 돌아왔다	월~일 18:10, 10:40(재)	5/21~
	해운대(영화)	22:20	9/12
	결혼해주세요	월~금 10:40, 18:10	12/7~현재
	조폭마누라 3(영화)	14:20	10/4
TV-9	미워도 다시 한 번	09:00, 20:00	3~4월
	연개소문	10:40, 18:10	3~5월
	장화홍련		12/20~2/10
	폭풍 속으로	월~일 19:00	3/21~
	주몽	15:50, 20:30	7 ~ 8월
	명랑소녀 성공기	월~금 11:20	9 ~ 10월
	모래시계	11:40, 19:00	8 ~ 9월
TV 8	커피 프린스 1호점	월~일 17:50, 10:30(재)	05/22 ~ 7월
	황태자의 첫 사랑	월~금 18:00~19:05	7~8월
	그대 웃어요		8~9월
	개인의 취향		6/8~8월
	하얀 거탑		6/18~7월
	내 남자의 여자		6/15~8월
	이산		10/4~11월
	신데렐라		11월
Magic MGTV	개인의 취향	23:10~00:20	3~4월
	스마일 어게인	월~화 19:00, 09:10	5/20~7월
Mongol TV	추노	22:00~23:10	7~8월

MN25	미녀는 괴로워(영화)	22:00	10/9
	동이	월~금 10:30, 19:40	8~9월
TM	태양을 삼켜라	10:20, 23:10	5~6월
	아이리스	월~금 08:40, 19:00	9~10월
	도망자: 플랜B	월~금 12:10	11/10~현재
NBS	자이언트	월~일 22:00	12/1~12/8

TV 5와 UBS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주로 방송하고 그 중 몇 개는 재방송도 하고 있음. 최근 11월에 문을 연 NBS TV 방송사는 한국 최신 드라마를 선호하여 방송하기 시작함.

2. 영화 산업

텡기스 극장에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방영된 영화를 보면 <걸프렌즈>, <애자>, <국가 대표>, <내 사랑 내 곁에> 등 4개. 그 중 <국가 대표>와 <내 사랑 내 곁에>가 인기가 많았고, 1달 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 1-2회로 상영됨.

4월부터 5월 말까지 몽골에 소개된 한국영화는 <용서는 없다>,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웨딩드레스>, <주유소 습격 사건>, <하모니> 등 5개 작품임.

10월에는 한국 영화 <방자전>이 텡기스 극장 2관에서 상영됨.

몽골과 한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6월 17-30일 간 우르구 극장에서 기존 상영작 중 가장 관람객이 많았던 한국영화 4편을 상영했는데 <해운대>의 인기가 가장 많았음.

- 내 머리 속의 지우개 : 6.17-22일, 19:00-21:00
- 엽기적인 그녀 : 6.27-30일, 19:00-21:00
- 해운대 : 6.18-23일, 11:00-13:00
- 태극기 휘날리며 : 6.23-26일, 19:00-21:00

일반적으로 몽골 극장에서 한국 영화는 많이 상영되지 않음. 몽골 3대 극장 중 하나인 텡기스 극장은 한국이 투자하여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극장이므로써 한국 영화가 종종 상영됨. 또한 우르구 극장은 미국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개봉되는 영화를 동시에 몽골에서도 상영하고 있음.

몽골인들은 아직까지는 한국영화보다 할리웃 영화를 극장에서 즐겨보고 있고, 이를 제외한 외국 영화의 경우 영화제 등 특별한 행사 때 관람함.

3. 음악 산업

3월 26일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주몽골 한국대사관 주관)에 가수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등장하여 몽골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실감함.

몽골 청소년들은 한국 노래와 가수를 좋아하고 따라함. 한국 가수들의 앨범이 공식적으로 몽골에서 팔리지 않아 자세한 통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추세를 보면 한국의 원더걸스('Nobody'의 영향), 비, 빅뱅, 동방신기, 베이비복스, 왁스 등의 노래를 여전히 즐겨 듣고 있음. 따라서 한국을 오가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음반을 사거나 인터넷 사이트 www.mglvideo.com, www.shared4.com, www.youtube.com, www.xopom.com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한국 음악을 즐기고 있음.

한국 음악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2PM 팬클럽을 살펴보면, 운영자는 할리우나라는 18세 여성 팬이며 좋아하는 그룹으로 2PM, 2NE1, 빅뱅, 원더걸스, Beyonce, Britney, 소녀시대, 앰블랙, 에프엑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등을 꼽고 있는데, 대다수가 한류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들 팬클럽에서 자신의 좋아하는 멤버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트위터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흥미로움. 몽골 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음.

Who`s your favorite 2PM member?(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2PM 멤버는?)

재범(Jaebeom) 25.8% (322 votes)

닉쿤(Nichkhun) 23.5% (293 votes)

택연(Taecyeon) 14.7% (184 votes)

우영(Wooyong) 13.3% (166 votes)

준수(Junsu) 9.9% (123 votes)

준호(Junho) 6.4% (80 votes)

찬성(Chansung) 6.4% (80 votes)

Total Votes: 1,248

이 팬클럽의 또 다른 멤버 온드라(18세)는 2PM,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애프터스쿨, Britney, Mario, 빅뱅의 노래를 좋아하고, Tiffany(15세)는 2PM, 소녀시대, Kanye West, Beyonce, Outsider, 애플랙, 샤이니, 티아라 등을 좋아하고, Nichkhun(15세)은 2PM, 빅뱅을 좋아한다고 함.

또한 팬클럽은 배너를 통해 원더걸스 등 다른 팬클럽도 소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몽골 원더걸스 팬클럽 사이트에서는 포럼을 통해 자유롭게 한국 그룹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기도 하고, 새로운 뉴스와 노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음. 또한 유사한 팬클럽 또는 사이트 운영자를 서로 소개하고 있음.

한국 그룹과 유사한 그룹으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5인조 Crush Bush이라는 몽골 남성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Nature Sound 음악 학원 졸업생들로 2009년 6월 결성했으며, 다섯 손가락처럼 5명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며 몽골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겠다는 의미로 그룹 이름을 지었다고 함. 주로 팝, 댄스, R&B 장르의 음악을 하는 이들은 몽골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 Mobicom에서 젊은층이 사용하는 Be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 광고 촬영도 했음.

4. 공연/전시 산업

* 2010년 한-몽 수교 20주년 문화행사 현황

구분	행 사	시기, 장소	주최/주관
수교 기념일 (3.26)	양국 정상간 발표	3.24(수)	양국 외교부
	‘몽골에서의 한국의 해’ 개막식, 축하공연, 리셉션	3.26(금), 문화궁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 주간 (6-8월)	한국영화제	6.17-6.30, 우르구 극장 (엽기적인 그녀 등 4편 상영)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전 -한국궁궐 사진전	6.9-7.5, 몽골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
	태권도 시범단 공연	6.19, 씨름경기장 (씨름경기 오프닝 행사)	국체체육과 (대한태권도협회)
	한-몽 친선 씨름대회	6.19-20, 몽골씨름경기장	체육진흥과 (대학씨름연맹)
	한-몽 전통음악공연	6.20, 22, 서울, 광주 (몽골 전통공연단과 협연)	문화교류과 (아시아음악협회)
	전통 공연	6.24, 몽골문화궁전 (전통 무용 등 갈라 공연)	문화교류과 (한국무용연구회)
	Fashion Art Exhibition	6.25-7.4, 몽골국립현대미술관 (일부 오프닝 공연 지원)	한국패션문화협회

	한-몽 고대문화유산 보존협력세미나/워크숍	6.28-7.4, 국립도서관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 방법 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문화교류과 (도서관협회)
	한국관광의 밤 행사	8.12-8.16, 울란바토르 (한국 관광 홍보, 문화공연 개최)	국제관광과 (한국관광공사)

(1) 한국 농수산물 전시, 주최: 주몽골 한인회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옴.

(2) 한-몽 수교 20 주년 기념 한-몽 공동 축하공연

3월 26일 울란바토르 시 문화궁전에서 개최됨. 몽골교육문화과학부, 외교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주관함. 한국 한국 퓨전 국악 그룹 ‘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채향순 중앙무용단 등이 참여함. 3000석 규모의 문화 궁전이 가득차 있었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대한 인기도 많았음.

(3) 한국의 궁궐 특별전

한·몽 수교 20 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의 궁궐전(Palaces of Korea)’이 몽골 울란바토르 시 국립역사박물관에서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시됨. 한국 중앙박물관, 몽골 국립역사박물관과 몽골 고고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함.

(4) 한-몽 우수기업 전시회

울란바토르 시 미셸 전시관에서 개최함. 주몽골 한인회 주관함.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의 68개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방문했음.

(5) 한국 전통공연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로 ‘한국 전통예술의 향연’ 전통문화 공연이 6월 24일 울란바토르 시 문화궁전에서 개최됨.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주몽골 한국대사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외교부가 주관함. 3000석 규모의 문화 궁전이 가득차 있었음. 윤미라 무용단, 남사당풍물놀이 참여, 특히 남사당풍물놀이의 ‘길놀이-사자춤-살판-버나놀이-상모놀이’의 인기가 많았음.

(6) 한-몽 친선 씨름대회 및 태권도 시범공연

6월 19일 울란바토르 시 씨름경기장에서 개최됨.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주몽골 한국대사관, 몽골외교통상부, 몽골교육문화과학부, 한국대학씨름연맹, 몽골부흐협회, 몽골씨름협회가 공동 주최함.

(7) Fashion Art Exhibition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몽골 국립 미술관에서 개최됨. 한국패션문화협회, 주몽골 한국대사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몽골외교통상부, 몽골교육문화과학부가 주최함. Mongolia National Modern Art Gallery, Fashion Design Institute of Ulaanbataar,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Mongol Model Agency, Mongol Costumes LLC, 한복나라, 한국마사회가 후원함. 각 나라의 전통 웨딩 문화를 복식을 통해 소개했음.

(8) 문화 나담 합동 축제

몽골 대명절인 Naadam 행사 때 한국의 Metaa가 Cultural Naadam 행사를 공동 개최하였고 양국 음악가들이 전통 음악을 선보임. 나담 축제는 가장 날씨가 좋은 여름에 개최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행사임. 따라서 동 축제 부대 행사로 문화나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국음악을 몽골인들 및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임.

(9) 무형문화재 공예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몽 문화교류 무형문화재 공예전’이 개최됨. ‘하늘을 향한 곡선미와 오색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몽골국립박물관의 공동주최와 문화재청, 주몽골 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한국 전통 복식의 멋을 선보임.

전시 작품은 침선, 자수, 매듭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조교의 작품으로 궁중복식 및 혼례복식과 장신구들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2008-2009년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자들의 공예 작품(한복)이 함께 전시됨. 개막식 날에는 현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제작시연회 및 매듭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림. 특히 양국 공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통공예(자수 분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워크숍은 양국 문화교류의 끈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0) 한국 관광의 밤 행사

‘2010 Korea Rainbow Tourism Festival in Mongolia’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수교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한국 관광의 밤’이 8월 12일 ‘한국 관광 디지털 사진전’으로 시작하고, 8월 14일 문화 궁전에서 난타와 비보이 공연으로 이어짐.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및 공연단 등 30명이 입국했는데, 이들은 문화공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광시장을 넓히기 위해 몽골 현지 관련기관 및 업체, 교민업체 및 관련인사들과 만나 관광객 확대방안 및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음.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언

제 다시 난타가 공연할지 기대되고, 꼭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음. 배우들이 몽골어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부엌 용품으로 하는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음.

(11) 예술위원회 공동 미술 전시회

9월 17일에는 Red Ger Art Gallery에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양국 예술위원회 예술가의 공동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한국 야생화 사진전이 열렸음.

(12) 국제영화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East meets West'를 주제로 국제영화제 및 포럼이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민규동 감독의 영화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가 참여함.

(13) 한글 큰 잔치

한글날을 기념하여 각 대학교에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한글 큰 잔치'였음. 울란바토르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올해 7번째 행사이며 서예, 한국 노래 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갖추고 있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Mongeni 학교에서 '한국어 올림피아드'를 개최한 바 있음.

(14) 한국어 말하기 대회

4월 23일 울란바토르 시 어린이 회관에서 개최됨.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했고, 1등상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무료로 받게 됨. 한국어의 인기를 한층 높이고 있음.

(15) 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

4월 18일 울란바토르 인문대학교에서 실시(주몽골 한국대사관 주관)됨. 몽골 내 기업이나 한국 관련 기관들, 그리고 한국 내 대학들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16) 한식 문화제

10월 22일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개천절 기념행사 겸 한식 문화축제가 열렸음. 숙명여대 요리연구소 교수진이 방문하여 한국 음식을 선보인 큰 파티였음.

(17) 한국 문화공연 및 수교 20주년 폐막식 행사

11월 29일 UB Palace 3,000석이 넘는 문화회관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3팀과 몽골 공연 3팀이 공동으로 문화공연을 펼침. 또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 폐막 리셉션을 부대행사로 개최함. 서강수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리셉션 축사를 했고, 29번 특수학교에 기부함을 전달함. 한국을 대표해 디셈버, HAM, 유키

스 등의 공연이 이어져 몽골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함.

5. 캐릭터/애니 산업

현재 몽골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끔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실정임. 최근 들어 3D 애니메이션이 유행하면서 <토이 스토리 3>, <드래곤 길들이기>, <캣츠 앤 독스> 등 만화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한-몽 수교 이후 몽골 내 초중고 및 대학에 한국어 보급이 확대됨.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몽골국립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등 2곳에 '세종학당'이 설치된 것으로도 알 수 있음.

또한 한국의 문화를 상대국에 홍보함과 동시에, 상대국 문화를 체험하는 쌍방향 프로그램인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한 문화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몽골의 경우 58개 참가국가 중 최대인원 참여(2005~2009년: 총 73명))

* 몽골 내 한국어학과 운영 개요

- 1990년 3월 수교 후 몽골외교부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 강좌 개설이 시초
- 몽골국립대학교(1991), 국립외국어대학교(1992), 국립울란바토르대학교(1992), 사립울란바토르대학교(1993), 어르헝대학교(1998), 국립사범대학교(2000), 세루르크(2001), 한몽기술대학(2001),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2002), 다르항대학(2004, 지방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설치, 운영

* 몽골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설치현황

구 분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국 립	6개 대학, 10개 학과	657명
사 립	14개 대학, 16개 학과	1,405명

* 몽골 내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현황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정규	8	1,262명
비정규	1	60명

몽골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큼. 한국 유학을 유치하는 ‘유학 박람회’가 정례적으로 3월말에 개최되고 있어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박람회를 통해 장학제도 등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학원에서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일부 어학원은 한국 대학교 어학당 또는 대학교 유학을 알선해 주고 있음. 이외 세종학당에서 무료로 강습 받는 것도 인기가 많음.

6월 27일 울란바토르 18개 시험장에서 6번째 치러지는 한국어능력시험에는 1만 4천여 명이 지원해 아직 ‘한국 열풍’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었음. 현재까지 몽골 내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몽골인은 2만1천여 명에 달함. 이처럼 한국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실정임.

한국 음식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몽골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곧 수교 20주년 행사 일환으로 ‘한식 세계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한복을 비롯한 한국의 패션이 한-몽 공동 패션 행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음. 특히 디자이너 앙드레 김 사망 소식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를 본 많은 몽골인들이 안타까움을 표함.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울란바토르 전 지역 및 울란바토르 대학교 부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한국 몽골 수교 20주년 기념 ‘제1회 종이접기문화 세계화 세미나’를 개최함. 관계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체험의 장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경 없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몽골 차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2010 카자흐스탄 한류 동향 보고

카자흐스탄 / 알마티

안창현 통신원

◆ 총 평

2010년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를 맞이하여 8월초에 알마티 시장을 대표로 160여명의 방문단을 조직, 대구시를 방문하여 콘서트와 전시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11월초에는 경기도와 자매결연한 알마티주의 주지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한국 방문단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수원시에서 공연을 하는 등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한국과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영 카자흐 방송사에서 수입,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를 제외하면 다양한 한류의 확산이 부재한 상태이다. 내년에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 가수의 콘서트 또는 출연배우 팬 사인회 같은 이벤트를 가미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한 한류열풍이 중앙아시아로 급속히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화산업의 경우 1년에 2번 아스타나에 있는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국 영화 주간’에 극장을 빌려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고작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작품의 구성이 중앙아시아인들의 취향과 맞아 한국의 분단 현실을 알리는 큰 효과와 함께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한국문화산업포럼’이 계획 중인 ‘슈퍼스타 아시아 프로젝트(가칭)’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대중음악 인재를 발굴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연예인을 발굴하려는 프로젝트는 앞으로 기대해볼만 하다.

2011년은 카자흐스탄에서 맞는 한국의 해이다. 알마티주·알마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대구시는 2011년 내 카자흐스탄 방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를 비롯한 기관·단체들 역시 각종 문화공연, 포럼, 콩쿠르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얼마티 한국교육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공연단을 초청하고 한국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행사도 치를 예정이다.

2011년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제7회 동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교류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방송사(국영)	제목	방영 시간대
하바르	이 죽일 놈의 사랑	월-금 18:30, 11:10(재)
카작스탄	동이	매일 15:55, 9:55(재)
엘 아르나	부자의 탄생	월-금 10:00

드라마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2010년에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하바르, 카작스탄, 엘 아르나 등 국영 방송국들은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수입해 황금시간대에 방송하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음.

특히 <주몽>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카작스탄 TV&RADIO 방송국’을 통하여 인기리에 방영된 후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재방송을 하는 등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인기를 독차지한 터키, 남미 드라마의 인기를 앞서고 있음. 지난 3월 아스타나에 개설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입구에 서있는 송일국과 한혜진의 실물 사진과 사진 촬영하기가 카자흐스탄인들 사이에서 유행이 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함.

12월 초부터는 한국에서 10월 12일 방영을 마친 MBC의 <동이>가 카작스탄 방송에서 방영 중.

국영방송국 ‘엘 아르나’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사랑에서 독립까지>라는 제목

으로, <아가씨를 부탁해>를 <MY PRETTY LADY>라는 제목으로 같은 11월에 방영했는데, 한국드라마가 국영 방송국에서 같은 기간에 방영된 적은 처음 있는 일임. 특히 방영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 설문조사에서 <아가씨를 부탁해>가 단연 앞선 표를 받을 정도로 한국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음.

국영방송 '하바르'는 12월 현재 <이 죽일 놈의 사랑>을 카자흐어로 방영 중임.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지난 20년간 국영방송국에 한해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왔지만, 한국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한 상업 방송국들도 적게는 한국에서 최근에 방영을 마친 인기 드라마를 비롯하여 많게는 5년 전후의 작품들을 수입하여 방영하고 있는 추세임. 민영방송 31 채널도 <수상한 삼형제>를 <삼형제>라는 제목으로 11월 17일부터 방영했음.

2. 영화 산업

해당사항 없음

3. 음악 산업

해당사항 없음

4. 공연/전시 산업

(1) 해외청년문화봉사단 국악공연 및 강습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장소: 아스타나, 알마티 등 5개 도시

일시: 7월 29일 ~ 10월 4일

참석 인원: 1,500여명

(2) KBS 카자흐스탄 한민족 큰 잔치

주최: KBS

장소: 알마티 필하모니 홀

일시: 9월 22일

참석 인원: 300여명

5. 캐릭터/애니 산업

엘 아르나(국영) 어린이 방송에서 EBS 애니메이션 ‘치로와 친구들’을 방영함.

6. 한스타일 및 기타

(1) 전통한복전시회

주최: 한복명장 이소정

장소: 알마티 한국종합교육원 대강당

일시: 10월 5~7일

참가인원: 300여명

(2) 한국전통문화축제

주최: 알마티 한국종합교육원

장소: 알마티 한국종합교육원 대강당

일시: 10월 22일

참석 인원: 300여명(대학생)

내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놀이, 한복 입어보기, 가요 부르기

(3) 한복·가훈 전시회

주최: 사단법인 선학회

장소: 알마티 한국종합교육원 대강당

일시: 10월 17일

참가인원: 500여명

(4) 한국어의 열기는 한국기업들의 카자흐스탄 내 활동과 함께 꾸준한 열기를 유지하고 있음. 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및 한국교육원에는 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

이 등록해 한국어와 한국학,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음. 특히 한국교육원은 3개월 단위로 무료한글 강습생을 모집하는데, 매년 모집일마다 평균 500명 이상이 등록하여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10 우즈베키스탄 한류 동향 보고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이명숙 통신원

◆ 총 평

2010년 한해 우즈베키스탄 내 한류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각종 무상 지원 소식들이 주를 이루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시술과 의료봉사는 의료강국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함께 드라마 한류를 넘어 고마운 나라 한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무상 지원과 의료봉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첫 한국가수들의 정식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수 김범수, 김태우 등의 콘서트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다음을 기약하며 무산되어 많은 우즈베키스탄 한류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11년은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이 수교 19주년을 맞게 된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는 문화교류와 행사들이 적어 아쉬웠지만, 2011년은 수교 20주년을 앞둔 만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문화교류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1) 현재 방영작

방영 채널	방영 일시	제 목	비고 (현지반응)
Uzbekistan	월~금 오전 9:10 오후 8:10	왕과 나	한국 사극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궁중 암투를 비롯한 조선의 역사에 흥미를 가짐.
Yoshlar	월~금 오후 2:00 오후 9:10	천추 태후	<해신>의 여장부 채시라가 열연한 사극. 남성을 뛰어넘는 기백과 지략에 남성시청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편임.
TV MARKAZ	오전 9:30 저녁 8:50	아이리스	한국의 앞선 드라마 제작기술을 엿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영화 같은 액션장면, 특수효과에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
Namangan 케이블 채널	월~금 오후 6:55	가을동화	한국드라마를 한류의 중심으로 이끈 드라마답게 끊임없는 재방영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

(2) 방영 종료작

방영 채널	방영 일시	제 목	비고 (현지반응)
Tashkent	월~금 오후 12:50 오후 10:10	낭랑 18세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젊은 시청자들과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음. 재방영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방영 될 것으로 보임.
Yoshlar	월~금 오후 5:30 오후 11:30	이 죽일 놈의 사랑 주몽 겨울연가 대왕 세종 영화 국가대표	이 죽일 놈의 사랑은 비라는 배우를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드라마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배용준, 박용하와 함께 비의 팬들도 생겨났음. <겨울연가>, <주몽>은 영원한 전설로 불리고 있음. 특히 <겨울연가>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0번 넘게 재방영되고 있음.
Namangan 케이블 채널	토, 일 오후 7:30	불새	애절한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꾸준히 재방영 되고 있음.
Andjan 케이블 채널	월~금 오후 5:30 오후 11:30	아내들의 반란	남성 권위주의의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반하는 내용으로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음.
		집으로(영화)	유승호의 감쪽한 연기와 함께 감동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음.

우즈베키스탄 한류의 선봉장답게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국민 드라마로 군림하고 있음. 2003년 한국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방영된 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드라마들이 선보이고 있음. 사극과 현대물 중 사극이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의 팬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가을 동화> 등의 몇몇 드라마들은 TV매체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재방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지난해 <별은 내 가슴에>에서 윤이의 역할을 했던 故 최진실의 죽음이 우즈벡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 박용하의 죽음이 우즈베키스탄에 또다시 전해짐.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눈물짓는 이들도 많았음.

故 박용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이 깊음. 2006년 우즈베키스탄 비공식 방문 당시 한국가수 최초로 깜짝 공연을 펼침. 삽시간에 수백 명이 모여 그의 대표곡 ‘처음 그날처럼’을 함께 불렀던 기억을 추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

KBS 드라마 <아이리스>가 올해 8월 17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음. 현지 미디어그룹인 테라 그룹과 광고비를 포함해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만원에 방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방송은 테라 그룹의 지상파 채널인 TV MARKAZ를 통해 방영 되고 있음.

<아이리스>의 방영에는 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방영되었던 인기 한국 드라마보다 2배가 높은 가격에 구입이 되었다는 점에 기존 한국드라마 방영과는 남다른 의의가 있음. 우즈벡 방송사에서 드라마 선택 당시 순수 작품성과 드라마 높은 영상 수준에 기존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는 후문임. 결론적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광고시장과 콘텐츠 거래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한류 콘텐츠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자체 제작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진행중임. 2010년에는 국가 프로젝트로 총 5편의 드라마가 제작됨. <세르자 잔트트라르(군인들)>, <오빠 싱기라르(누나들)>, <오담라르 오다시다(사람들끼리)>, <무하바트 마조랄라리(사랑의 전쟁)>, <피도일라르(충실한)>등이 있는데, 최근 개최된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우수작을 바탕으로 제작됨.

한편,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한국 드라마’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2. 영화 산업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영화들은 진부한 내용과 공익광고의 느낌이 짙어 식상함이

많았으나 2010년에 개봉된 우즈베키스탄 영화들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지금 까지 모든 영화제작은 국영 우즈베키스탄 필름 위주로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개인투자자와 개인 영화사들도 제작에 합류함. 새로운 제작 기술과 첨단 장비를 갖춘 영화사들이 늘어나 우즈베키스탄 영화 시장은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는 장단점이 존재함. 장점은 영화제작 기술과 내용면에서의 발전을 들 수 있겠고, 단점은 국영 우즈베키스탄 필름과의 수준차이가 생기고, 영화 투자자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국영 우즈베키스탄 필름’의 피나는 노력도 진행 중임. 장비의 노후와 기술력의 부족 속에서도 필름으로 보관하던 영화들을 디지털 화하고 있으며, 올 한해 6편의 영화와 만화(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영어)를 제작함. 더불어 러시아 감독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우즈베키스탄 역사를 토대로 하는 역사물과 내용들로 대작 영화들을 계획, 제작 중임.

2010년 우즈베키스탄 영화시장의 주류는 액션과 멜로물임. 이는 관객의 요구사항과 수익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가족애와 조국애를 중심으로 하던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평이 있음.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영화계의 큰 문제점은 감독을 비롯한 전문 촬영 스태프의 절대부족과 감독, 배우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없다는 것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영화의 불모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님. 종종 TV에서 방영되는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고서는 극장에 걸리는 영화는 아직 없음. 2011년 ‘FOND FORM’이 준비하고 있는 ‘제1회 우즈베키스탄 국제영화 페스티벌’에는 많은 한국 영화들이 선보일 예정으로 있어, 이를 계기로 극장에 걸리는 한국영화가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한류 팬들도 적지 않음.

3. 음악 산업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발매가 된 한국 음반은 없음. 러시아 NIRVANA사가 한국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의 OST음반을 수입해 선보였지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함.

4. 공연 · 전시 산업

해당 사항 없음

5.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온라인게임 산업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게임 인기의 중심에는 한국 게임 ‘리니지’가 있음. ‘리니지’ 게임 속 아이템을 구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러시아로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아쉽게도 지금껏 모든 온라인 게임들은 정식 게임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로 보급됨. 수많은 게임인구에 눈독을 들여 온라인 게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각국의 게임업체들은 열악한 투자환경과 게임서버구축에 따른 제약들로 인해 선불리 덤벼들지 못하는 상태임.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게임 산업을 바꿔놓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있음. ‘미르의 전설(The Legend of MIR II)’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정식 온라인게임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게임의 현지화 정착과 빠른 확산을 위해 서비스 시작부터 다양한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 LCD모니터, 컴퓨터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 9월 23일~24일 열렸던 ‘ICT Expo 2010’에서 ‘MIR II’는 행사장 내에 특별 스탠드를 설치해 게임 속 캐릭터 옷을 입은 도우미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등 행사장내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음.

현재까지 ‘MIR II’의 우즈베키스탄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입된 회원 수는 약 5천 명으로 집계.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MIR II’는 공식 서버를 갖춘 유일한 온라인 게임으로, 한국게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게임시장 진출을 가늠케 하고 있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1) 한글

10월 19일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러시아어판 한국어 입문교재 발간기념식이 열림.

러시아어판 한국어 교재는 지난 2006년에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개발·보급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윤희원 교수가 책임 집필함.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한국어 입문교재는 초급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짐.

입문과정교재는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한글학교 교사, 고려문화협회 등

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 배포됨.

이밖에도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동방대학교, 나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와 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있음.

지방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학과가 있는 사마르칸트외국어대학은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개관함. 사마르칸트외대 한국어학과는 금년도 입시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매우 높으며,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멀티미디어 교실은 2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12대의 대형 PDP TV, 빔 프로젝트,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자료가 마련되어 있어 한국어과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 드라마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2010년 한해도 큰 활약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 태권도학과에서 열성을 다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백문중 교수가 있음. 2008년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에서 처음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우즈베키스탄은 태권도를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면서 백 교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곳 조세청장이 태권도협회장을 맡아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백 교수로부터 몇 개월간 지도받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은 올해 열린 US오픈 태권도 대회에 출전,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따내는 성과를 거둠.

지난 3월 3일 세계태권도연맹(WTF) 집행위원회가 열린 멕시코 티후아나에 조세청 라티포브 아보스 부청장이 직접 건너가 베트남과 경합 끝에 올해 제5회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둠.

8월 10월에는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태권도 시범경기가 펼쳐짐. 우즈베키스탄 서커스극장에서 우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와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석유공사가 후원하는 태권도 시범경기가 열림.

시범경기에서는 품새, 격파, 태권무, 겨루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다이내믹하며 환상적인 시범으로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음. 특히, 고난도 기술로 두꺼운 송판을 공중 회전하여 격파하는 시범을 보일 때는 태권도의 박진감과 매력, 그리고 예술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5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가 개최됨.

2,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스포츠 팰리스 우즈베키스탄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62개국에서 616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1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해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함.

참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새로이 신설된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남자 및 여자 장년3부’를 포함한 총 18개 부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음.

(3)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무술문화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개중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전문성 없는 생소한 이름의 다양한 기술과 이국적인 이름들이 난무함. 그 중 한국의 전통무술 합기도는 체계적인 교육과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 화제임.

합기도는 1996년 합기도 5단인 한국의 이학수 선생이 타슈켄트를 처음 방문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방문 당시 성공적인 시범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동양무술에 대한 새로운 팬이 생겨나기 시작함.

2010년 초, 한국합기도연맹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협회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세에 맞는 합기도 발전계획을 수립함. 그 결과, 4월 15일 한국합기도연맹은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향후 우즈베키스탄 합기도 발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무술 및 동양무술발전센터와 공동으로 대회를 열었음. 현재 교육 및 트레이닝 세미나, 사범 교환 및 다양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위상이 높은 태권도를 이을 한국무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됨.

7. 기 타

단체(개인)명	날짜	관련 언론보도	비 고
한국정보화진흥원	1월 5일 ~ 31일		동계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단 활동
한국제약협회	1월 20일	각 국영방송 채널	문경태 부회장,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와 간담회
단국대,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협회	1월 20일	보건 일보	단국대, 우즈베키스탄과 '태권도 협약'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	1월 25일	고려일보	CIS지역 재외동포 장학금 전달
농촌 진흥청	1월 1일 ~ 31일		우즈베키스탄에 첨단시설원예기술 내공 전수
분당 병원	6월 17일 ~ 25일		한국-우즈베키스탄 의사들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60여명 수술
UN	4월 4일 ~ 5일	각 국영방송 채널, 경제일보	반기문 UN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전북대학교	6월 1일 ~ 13일	고려일보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 봉사활동
용인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고려인 문화협회	6월 18일 ~ 19일	고려일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고려인문화협회 공연팀 용인 방문
대한상공회의소	6월 7일 ~ 11일	각 국영방송 채널	타슈켄트에 대규모 에너지·자원 사절단 파견
한국개발연구원	6월 10일 ~ 27일		우즈베키스탄 공무원·교수 대상 연수 진행

차 의과학대학교	6월 25일 ~ 7월 1일	고려일보	박명재 차 의과학대학교 총장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봉사 활동
전북대학교	6월 26일 ~7월 12일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 우즈베키스탄에서 봉사활동
분당 차병원	6월 25일 ~ 7월 1일	고려일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 의료봉사
재외동포재단	7월 13일 ~ 8월 7일		CIS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에서 4주간 연수
한국정보기술원	8월 2일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경험 하고 공부함.
한-중앙 아시아 교류 진흥회	8월 14일 ~ 19일	고려일보	제2차 국제봉사단 우즈베키스탄 방문
대한 골다공증 학회 및 재단	8월11일 ~ 15일	각 국영방송 채널, 보건일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기관들과 MOU 체결
우즈벡 산업은행	9월 24일	고려일보	‘산은 장학금’ 전달식 개최
대한민국정부	9월 7일		사마르칸트 외대 한국어학과 한국지원으로 멀티미디어 학습관 개관
KOICA동부지역	10월 1일 ~ 2일		'한국어 어울림 마을' 행사 개최
한국정부	10월 7일		히마 고아원에 한국지원으로 한국어-컴퓨터 센터 개설
WTF	10월8일 ~ 10일	각 국영방송 채널	제5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개최
아시아축구연맹	10월 7일	각 국영방송 채널	북한 AFC U-16팀,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우승

(1) 고려인

1937년 구소련 시절 스탈린에 의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민족 강제이주를 당했고, 이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화려한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1991년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에는 경제문제와 민족문제로 고려인의 위상은 위축됨. 점차 강제이주 1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대신 2, 3, 4세대, 심지어 5세대로 대체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민족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임.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우즈베키스탄에는 한때 23만 명이 살았지만, 현재는 약 15만 명으로 줄어듦.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고려인 동포들의 탈 우즈베키스탄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1월 문을 연 아리랑요양원은 무연고 고려인 노인들이 입소를 시작하면서 고려인에 대한 우리나라 동포 사랑의 상징이 되고 있음. 입소 노인들은 한결같이 현대적인 시설과 좋은 음식, 건강관리, 문화생활에 만족하면서 대한민국의 동포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있음.

아리랑요양원에는 올해만 약 700여명 이상의 고려인들과 한국인들이 방문함. 재

외동포 지원 사업에서는 아리랑요양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크게 평가함. 단순히 무연고 동포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나아가 아리랑 요양원이 위치한 시온고 고려인 집성촌 마을이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시온고 마을에는 아리랑요양원과 한글 간판이 붙은 ‘시온고 노인회관’이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허온천장이 있음. 또한, 한국 농촌진흥청이 고려인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이 있음. 지역 학교에는 한국인이 지원한 컴퓨터와 교육 덕분에 젊은 세대들의 컴퓨터 실력도 높아졌고, 국제민간단체인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지역 보건소를 지원함.

앞으로 시온고 마을은 고려인 대표마을로 정착되어 한국 관광객과 봉사단체들을 비롯한 한국 기업도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을 떠났던 고려인 동포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2) 우즈베키스탄에 2012년까지 '서울공원' 조성

서울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 2012년까지 '서울공원'을 만들 계획을 발표함. '서울공원'은 타슈켄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조성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 현상공모와 설계를 거쳐 착공할 계획임. '서울공원'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고려인 동포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두 도시 간 우호 증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됨.

(3) 한국 정부, 우즈베키스탄에 과학기술전자도서관 지원

한국정부의 무상원조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빌림 정보도서관에 과학기술문헌전자도서관 개장함.

이 전자도서관은 옛날 사진과 논문 등 4만 점의 문헌자료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 최신 장비를 이용한 사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54개의 좌석을 갖춘 도서실과 32대의 컴퓨터와 기타 장비가 설치된 미디어센터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앞으로 이 전자도서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접하고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전자화된 문헌을 열람할 수 있을 것임.

(4)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외국 기업에 도로건설 위탁

한국의 Posco Engineering&Construction과 중국의 China Road Bridge Corporation(CRBC)은 201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Guzar-Buhara-Nukus-Beynau A-380 구간의 도로 재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도로 건설분야에서 외국기업과의 계약은 처음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한국의 Posco가 건설할 91km길이의 4차선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부대시설

건설 소식을 전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벌써부터 한국의 기술력과 우수성에 신뢰를 보내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5) 반기문 UN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중앙아시아 순방국 중 3번째로 4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함.

반 총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중 무이낙 지방(아랄 해가 속해있는 지역)에 있는 배들의 무덤을 직접 시찰한 첫 세계 지도자가 됨. 반 총장은 아랄 해를 헬리콥터를 타고 시찰했고, 배들의 무덤을 보며 아랄 해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 UN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감사를 받음.

(6) 의료분야 협력 및 봉사활동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의 많은 대학들과 유수의 병원들이 오래전부터 무료심장병 수술, 언청이수술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음.

올해 1월에는 한국제약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기존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던 러시아, 독일, 유럽의 비싼 의약품에 비해 싸고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것임.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의사들과 한국의 분당병원 의사들이 공동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60명에게 의술을 펼침. 서울대 분당병원 전문의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국립병원과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팔, 다리, 언청이 등 간단한 수술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60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골다공증 환자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인구의 30%, 총인구의 15%에 달함.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오한진 교수를 비롯한 8명의 골다공증 전문의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맺은 보건부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은 현지의 많은 관심을 받음.

기름진 식단과 칼슘, 요오드 섭취 부족으로 많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있음에도 우즈베키스탄의 골다공증 연구가 시작된 것은 만 2년째임. 턱없이 부족한 정보와 효과적인 치료법, 의료장비들에 대한 지원과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협력은 우즈베키스탄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임.

2010 인도 한류 동향 보고

인도 / 뉴델리
김현혁 통신원

◆ 총 평

1. 2010년 한류 동향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2006년 <아라한 장풍대작전>을 필두로 2007년 7월 <괴물>, 2008년 3월 <디 워>의 상영, KBS World를 통한 한국 드라마 방영, 관광공사의 로드쇼 개최 등으로 인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Korea'를 아는 이가 드물었는데 요즘은 'South Korea'하면 열에 여덟은 아는 척을 한다.

특히 한국인과 얼굴형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인도 동북부 8개주 젊은이들은 아리랑 TV 방송과 미얀마 국경을 통해 전달된 해적 DVD를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극중의 주인공들의 의상과 언행을 흉내 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국 문화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인도의 한류는 동북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이야기한다.

6월에 진행된 수필름의 <김종욱 찾기> 인도 로케 촬영은 한국인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을 결집한 것으로서 향후 이어질 인도 로케를 꿈꾸는 영화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 현지 공관과 관광공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문과 방송에서도 종종 한국 음식, 영화, 관광지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한편 남인도 첸나이에 위치한 한인문화원(InKo Centre)에서는 매월 한국 영화 상영과 한글, 태권도, 서예 강좌를 열어 현지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3년째 여성 국제 영화제를 주최하여 명실 공히 남인도 한류 전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콜카타의 한인문화원, 비

하르의 수도 파트나의 한비원 등의 문화원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각기 한글교육과 문화 예술 활동으로 전방위 한국 문화 전파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한글교육의 본산지 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는 정규 한국어 과정을 통하여 한인교류의 기둥들을 매년 꾸준히 배출해내고 있으며 현지 한국 기업들의 필요한 인재들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 두 대학이 10월 또는 11월에 개최하는 한국주간이나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이들로 하여금 한국어 학습에 열중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올해 각종 세미나, 공연, 영화제 등 한·인도 문화 관련 행사는 예년의 8-13건에 비해 다소 횟수가 증가한 16건이었으며 그 질과 규모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50%이상 성장하였다.

특히 10월말에 대사관저에서 개최된 ‘6.25 60주년 참전용사 감사 위로 행사’를 통해 인도 정부와 인도국민들에 대한 한국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고 이는 한·인도 상호 유대관계를 가일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외교 인사들도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전달해 왔다.

2. 2011년 한류 동향

한국과 인도는 1974년 한·인도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36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를 이루어왔다. 특히 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에서 ‘2009~2012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CEP)’에 서명을 하였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양국은 종교, 문화, 예술, 문화산업, 신문, 방송,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기로 하였다. 다가오는 2011년 한 해를 ‘인도 내 한국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가일층 양국 간의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KBS World가 양질의 한국 드라마로 인도 안방의 두터운 벽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동북인도인 뿐만 아니라 인도 본토인들에게도 환영받는 방송으로 진입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매년 김수로왕의 허왕후 제막비가 있는 페리다바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락종친회는 올해도 2월말 제막식 1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인도를 방문했던 김종필 전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마치 외할머니

택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허왕후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것이 비록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꼬투리를 통해 양국관계의 공통점을 찾고 문화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양국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이 한국 속속들이 자기 자리들을 찾아가며 한-인도 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괴리들을 점차적으로 메워 나갈 것이다. 김도영 교수의 꾸준한 노력으로 델리대 내에 주요 단과대학에 한국어과가 더 개설되고 기존 한국 유학을 거쳐 키운 인재들이 교수진들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 인도 전역 주요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는 고무적인 결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 한국 학생들과 인도 학생들이 협력하여 치루는 행사들을 통해서도 유대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첸나이 한인문화원이 영화 상영, 서예, 태권도, 한글 강좌를 통해 남인도 한인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KBS World는 계약이 만료된 국영방송 둘달산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재계약비를 요구하자, 동 계약을 파기하고 위성방송 Big TV와 계약하여 24시간 방송하고 있음. 주말에 재방영중인 두라마 <대조영>은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하는 인도인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인도인, 특히 젊은이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2. 영화 산업

올해 특별히 극장에서 방영된 한국 영화는 없으나 첸나이 소재 한국문화원(InKo Centre)에서 매월 <고양이를 부탁해>(1월), <지구를 지켜라>(2월), <여섯 개의 시선>(3월), <M>(4월), <나의 친구>, <그의 아내>(5월), <마법사들>(6월),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7월), <과속스캔들>, <똥파리>, <애자>(12월) 등을 꾸준히 상영하여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꾸준히 모으고 있음.

8월에는 역시 남인도 주중 하나인 서부해안을 끼고 있는 주 케랄라의 수도 트리

반드룸에서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었고 11월에는 카르나타카 주의 수도 방갈로르에서 열린 ‘나노 영화제’에서 <해운대>, <김씨 표류기>, <마더> 등이 상영됨. 이어 연간 5만여 명의 관객이 몰리는 ‘제9차 세 번째 눈 아시아 영화제’에도 <해운대>와 <마더>가 출품되어 관객의 좋은 호응을 얻음.

6월 말 7월 초 40도가 넘는 성하의 열기를 뚫고 영화사 ‘수(秀)필름’의 촬영팀이 라자스탄의 핑크시티 자이푸르에서 <김종욱 찾기> 로케 촬영을 진행함.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인도가 먼 나라가 아닌 우리 삶에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임.

3. 음악 산업

음반 산업의 미진출로 국내 음악이 인도 본토에서는 알려진바 없으나 동북인도 8개주의 젊은이들 사이에 ‘비’의 노래가 호평을 받고 있고 그가 연기한 드라마의 주제곡들이 인도 젊은이들의 휴대폰에서 자주 흘러나오고 있음.

4. 공연/전시 산업

(1) 제3회 한국-인도 젊은 문학인 세미나

2008년부터 매해 여름 인도의 수도 뉴델리 인디아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인도 젊은 문학인 세미나’는 제1회 세미나에서 ‘한국문학 속의 인도, 그리고 인도의 현대문학’이라는 주제로, 2009년에는 ‘세계화 시대 문학의 정치성과 현실응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현지 전문가들과 예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냄. 올해도 7월 3일 동일한 장소에서 ‘문학의 신성(Divinity) 구현, 그리고 구원을 갈구하는 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도 작가들과 ‘제3회 한국-인도 젊은 문학인 세미나’를 개최함.

사단법인 한인교류회(Indo-Korean Foundation)와 인코 파운데이션(In-Ko Foundation)이 주최하고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한국)과 인디아 인터내셔널 센터(인도)가 공동 주관하며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주한국 인도대사관의 후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대산문화재단, (주)북하우스 퍼블리셔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세미나는 올해도 변함없이 인도 지성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냄.

(2) 홀(Whool) 국악 공연

피리와 태평소, 북과 장구, 베이스기타,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타악기 그룹인 ‘홀(Whool)’이 첸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힌두 11월 음악축제에 참여. 그들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청중들에게 스며들어 청중들의 대 환영을 받음.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이 결코 인도인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음이 증명됨.

(3) 네루대 한국주간(한국학 세미나)

매년 한글날을 즈음하여 네루대에서 개최되는 네루대 한국주간에서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학 세미나도 함께 열림.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 한국 주간에서 네루대에서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한국 음식점으로부터 음식을 찬조 받아 한국 주간에 참여한 인도인들에게 한국 음식문화를 소개함.

(4) 제3회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11월 23일에는 델리대에서 ‘제3회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치러진 이 경합에서 델리대 동아시아학과 석사과정의 안니, 델리대 1학년 케탄 지 자하, 델리대 2학년 옴프라카쉬가 1등을 차지함. 이들 모두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아님에도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이미 한국어로 석사과정 중에 있는 네루대 학생들보다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이변을 연출.

5. 캐릭터/애니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남부 인도의 최대도시인 첸나이에 한국 김치바람이 불고 있음. 세종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선 사장은 인도 사람들도 김치를 좋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성김치를 수입. 그러나 인도 세관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어 첫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는 이미 김치가 익을 대로 익어 있었음. 도저히 판매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이 사장은 이 위기를 오히려 김치를 알릴 수 있는 호기로 삼고 김치 맛보기 로드쇼를 펼침. 이와 동시에 첸나이 거주 한인들에게 무료로 김치를 나눠주어 인도 땅에서도 염가로 한국 김치를 먹을 수 있음을 널리 알림.

지난달 2차로 4톤을 수입한 이 사장은 한국의 김치를 첸나이뿐만 아니라 델리, 콜카타, 뭄바이 등 인도 대도시에도 지점을 설치하고 인도 식당에 양배추에 케첩을 바른 사이비 김치가 아닌 진정한 김치 맛을 보이려고 하는 포부를 밝힘.

【 미주 지역 】

2010 미국 한류 동향 보고

미국 / 로스앤젤레스
김준희 통신원

◆ 총 평

한류 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본 통신원에게 있어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다. 말 그대로 올해는 ‘미국 내 한류의 원년’으로 기록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사실 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일부 아시아인들을 제외하고는 피부에 와 닿는 한류의 흐름이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때 맞춰 도요타 사태와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상품의 미국 내 점유율이 크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그래서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의 저개발국 그룹의 하나쯤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이었다. 기껏해야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나 몇 번씩 언론에 거론되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는 참으로 극적이다 싶을 만큼 한국 국가 이미지 변화 곡선의 상승 그래프가 가파르다. 저개발국의 이미지에서, 스티브 잡스까지도 긴장시킬 만큼의 최첨단 IT제품과 뛰어난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작은 강국의 이미지로 급격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제는 미국 내에서 우리의 이미지가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등과 견주어 하나 꿀릴 게 없다는 느낌마저 갑자기 들고 있다. 분명히 그리스나 포르투갈 정도는 확실히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감지가 되는 건 바로 유행과 변화의 흐름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할리우드와 방송 업계 사람들 쪽에서이다. 그동안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동양인은 딱 두 종류 밖에는 없었다. 깔끔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동양인은 일본인이고, 좀 더럽고 음침하며 시끄러운 동양인은 중국인이었다. 가끔씩 나오는 한국인은 그저 돈 밖에 모르는 사람의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구도 자체가 아예 무너지고 있다. 일본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좋은 동양인, 능력 있는 동양인의 이미지를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빼앗아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굳이 이런 점을 대사로까지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 미국 드라마 <플래쉬포워드(Flashforward)>의 주인공인 한국계 FBI 요원에게 누군가가 중국이나 일본인 아니냐는 투로 묻자 그는 단호하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대답한다. 얼마 전 할로윈데이 때부터 방송이 되어 미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워킹 데드(The Walking Dead)>에서도 아주 똑똑한 청년 역으로 출연하는 한인 배우 ‘스티브 연’은, 그에게 누군가가 중국인치고는 아주 똑똑하다고 말하자, “아니, 난 코리언이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준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 방송 상인들의 현실 감각은 월스트리트의 유대인 증권 브로커들만큼이나 대단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아시아의 새롭고도 최고 강력한 블루칩의 이미지가 아니라면 돈 주고 해달라고 해도 결코 이런 자발적인 친화의 손짓을 할 리가 없다. 대중문화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 이 말은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칠 일이 결코 없다.

부실한 토양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일은 전혀 없다. 우리가 라오스나 우간다의 대중 가수에게 열광하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 할 일이 있겠는가? 캄보디아의 배우가 아무리 잘생기고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그의 브로마이드를 내 방문에 붙일 일은 없다. 바로 이것이 대중문화가 흘러가는 구조의 단면이다. 로마가 전성기였을 때는 모든 패션의 중심이 로마였고, 프랑스나 영국의 전성기 때는 역시 그 나라들이 유행을 선도했다.

20세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과거엔 젊은이들의 ‘일본 문화 따라 하기’가 위정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를 강제 점령 했던 미운 놈들이지만, 국가 브랜드가 아시아에서 최고 고급이니 당연히 하위문화 개념인 대중문화의 흐름도 ‘일본에서 아시아 각국으로’라는 구조가 정착되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아시아에서는 물론이요, 여기 미국에서도 거의 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 곡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대중문화가 조금씩 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가수 비가 라스베이거스

에서 공연을 할 때만 해도,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그 큰 극장 전체에서 순수 미국인 관객은 안타깝게도 채 다섯 명도 발견하지 못 했었다. 하지만 올해 SM타운의 미국 공연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피부로 느껴졌다. 순수 미국 관객들이 상당수였고, 우리 노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나 이해도도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 비로소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한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와 닿았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우선 세 가지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동안 ‘멋진 아시아’ 이미지를 거의 독차지 하고 있었던 일본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식상하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 대체재로서 우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뛰어난 IT문화의 힘이다. 현재 미국의 한류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대중음악에서부터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IT문화가 숨어 있다. 메이저 스튜디오와 음반 회사들이 모든 음악 유통의 루트를 다 틀어쥐고 있는 미국의 현실 앞에서 그걸 우리 음반 관계자가 정면 대응으로 뚫고 들어 갈 방법은 아예 없다. 일본 메이저 음반 기획사들이 미국 진출용으로 처음부터 기획한 가수를 몰량 공세까지 해가며 미국 시장에 진출시켰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었고, 가수 보아라든가 세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길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만들어졌다. 그건 바로 유튜브였다. IT 강국답게 우리는 일찌감치 유튜브 동영상의 위력에 눈을 떴고, 한국 가수들의 노래는 바로 그런 루트를 통해 남미 콜롬비아나 중동의 이란 등지에까지 스며들어 갈 수 있었다. 우리 가수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까지 우리의 대중음악이 착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메이저 음반 회사들이 결코 공룡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유통 경로가 바로 유튜브이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힘입어 우리 가수와 노래들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제고되면서 유튜브의 접속 빈도수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음반 기획자들이 글로벌한 제작팀을 만들면서 보편타당한 대중음악의 룰에 근접하게 되었다. 영국 작곡가에 미국 안무가를 붙여서 소녀시대의 음악을 만드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귀에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우리 가수들의 노래가 스며들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한류의 물줄기가 첫 숨을 내쉬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씩 한류의 바람을 체감할 수가 있다. 2010년은 그래서 내게도 의미가 있는 한 해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1) 다니엘 헤니 주연의 미국드라마 <쓰리 리버스>가 시청률 저조로 인해 이미 제작된 13개의 에피소드 중 8개만 방영된 채 조기 종영됨.

(2) NBC의 인기 드라마 <히어로즈>에서 조연급이었던 ‘제임스 기선 리’는 연기력을 인정받아 시즌4에서 주연급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남.

(3) 김윤진, <로스트>의 마지막 시즌인 시즌6의 촬영 중 미국 엔터테인먼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함.

(4) 한인 제작자와 미국 유명 프로듀서가 함께 한인 타운을 배경으로 하는 새 TV 프로그램 ‘케이타운 리얼리티 쇼’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5) 미국 드라마 <하와이 파이프 오>에 한인 배우 대니얼 대 킴과 그레이스 박이 주연, 그리고 윌 윤 리가 조연으로 출연함으로써 한인 배우의 입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함.

(6)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홀루닷컴에 한국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아이리스>, <파스타>, <내 이름은 김삼순> 등 여러 편이 올라와 있으며, 현재 이용자 평점도 평균 이상으로 좋게 평가되고 있음.

(7) <스텝업>의 감독이었던 듀안 에들러가 연출 및 시나리오를 맡게 될 할리우드 영화에 가수 보아가 출연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음.

(8) <크로싱>을 연출했던 김태균 감독의 신작 <맨발의 꿈>이 제83회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 영화부문에 한국 후보로 출품 됨.

(9) 미국의 인디펜던트 배급사 IFC 필름스가 임상수 감독의 <하녀>의 미국 판권을 구입함.

(10) 토론토 영화제에서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북미 판권을 매그놀리아 픽처스가 구입 함. 2011년에 미국 개봉 예정임.

(11) 가을 개편 미국 드라마 <하와이 파이프 오>에 주연으로 한인 배우 그레이스 박과 대니얼 대 김이 출연함.

(12) 김윤진이 출연했던 미국 드라마 <로스트> 등을 집필했던 한인 드라마작가 크리스티나 김이 드라마 <NCIS: Los Angeles>에 또다시 작가로 합류함.

(13) 최양일 감독의 영화 <수>가 미국 케이블 방송 FX에서 TV시리즈로 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2. 영화 산업

(1) 3월 4일~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어 총 30여 편의 한국영화 상영, 한국계 미국 배우 존 조, <식객>의 주연배우 김정은, 진구 등이 개막식에 참석함. 행사 기간 동안 <짝패>의 류승완 감독,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 <식객>의 백동훈 감독 등이 영화제에 참석하여 관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2) 3월 11일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미국 6개 극장에서 개봉, 첫 주말 수입 3만5천 달러로 박스오피스 51위에 오름. 또한, 인디펜던트 영화의 축제인 ‘스피릿 어워즈’ 외국영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감독이 직접 참석함.

(3) 미국 유력 엔터테인먼트 일간지인 ‘할리우드 리포터’의 ‘Next Gen Asia’란 아시아 유망주 소개 코너에 영화 <박쥐>의 주연배우 김옥빈이 선정되어 소개됨.

(4) 2월 26일부터 2일간, USC 한국학연구소에서 ‘코리아 시네마: 현재와 미래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영화 상영회를 가짐. 상영작은 <멋진 하루>, <영화는 영화다>, <천년학>, <비몽> 등임.

(5) 가수 비 - MTV 무비 어워즈 ‘최고 액션상’ 수상 및 할리우드 영화제 ‘그린 플래닛 무비 어워드’ 등에서 ‘올해의 아시아 문화 대사상’ 및 ‘최우수 외국 엔터테이너상’ 등을 수상함.

(6) 한국계 코미디언 캔 정이 MTV 무비 어워즈 ‘WTF’ 상 수상함.

(7) 한국식 영화관인 CJ CGV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개관함.

(8) 심형래 감독의 영화 <더 라스트 갓 파더>, 로스앤젤레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서 촬영함.

(9)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에 김윤진과 함께 출연한 한인배우 대니얼 대 김이 할리우드 액션 스릴러 영화 <데스게임즈>에 주연급으로 캐스팅 됨

(10) 작년 CJ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영화사인 '1492픽처스'사와 처음 합작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세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로 발표함.

(11) 미국 영화 연구소(AFI, American Film Institute)에서 주최하는 영화 페스티벌에 한국영화가 대거 출품됨.

(12) 로스앤젤레스 한국영화진흥위원회(KOFIC)과 LA한국문화원(KCCLA)이 한국 영화 진흥을 위해 어메리칸영화마켓(AFM) 기간 중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여 한국 영화를 홍보. 한국을 영화 촬영지로 추천하기 위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13) 영화 <아저씨>,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개봉됨.

(14) 제11회 샌디에고 아시안 영화제에 <포화 속으로>, <여배우들>, <굿모닝 프렌지던트> 등이 출품됨.

3. 음악 산업

(1) 미주 교민을 위한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됨.

- 가수 인순이의 콘서트가 LA 다운타운 노키아 극장에서 열림.
- 김창완 밴드의 공연이 월서이벨 극장에서 열림.

(2) 미국의 음악 사이트 '뮤직톤닷컴'에서 진행된 '올해의 뮤직비디오투표'에서 원더걸스의 'Nobody'가 총 124만 표(37%)를 얻어 1위를 차지함.

(3) 'SM 타운 라이브 10 월드 투어 콘서트'가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림.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백인 및 아시안, 멕시코 등에게도 많은 관심을 끄.

(4)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 우리 한국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힙합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Far East Movement)'의 '라이크 어 지 식스(Like

A G6)'라는 곡이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함. 최근 미국에서 라디오를 틀면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얼마 전 제이 레노 쇼에도 출연하여 노래를 부름.

4. 공연·전시 산업

(1) 강부자, 전미선 주연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인기리에 공연됨.

(2)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남성그룹 2PM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월턴 극장에 공연을 가짐.

(3) 원더걸스의 미국 데뷔 음반 발매 및 전미 투어 공연 계획 - 워싱턴 DC,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 샌프란시스코 등

(4)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셸 쿤과 함께 아이스 쇼에 출연. 지난 8월 7일에는 김연아의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김연아의 날'이 제정되기도 함.

(5) 한국 비보이 그룹의 브레이크댄스 공연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플라이트 앤 사운드 여름 페스티벌'의 참가작 중의 하나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음.

(6)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박물관에서 40명의 한국 사진작가 초대전이 열려 LA타임즈 및 기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음. '혼란속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미국 내에서 열린 한국 관련 최초의 메이저 전시회임.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1) 한국 대표적 캐릭터 '뿌까'의 북미 시장 공략

글로벌 마스터 라이선싱을 담당하는 위너브라더스가 LA에서 론칭 파티를 열고 할리우드스타 및 패션계 인사들에게 캐릭터를 소개함. 텔런트 이다해가 한국 대표로 참석함.

6. 한스타일 및 기타

(1) 김연아의 올림픽 사상 최초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에 미국 언론의 극찬이 이어짐. 아울러 한국에 우호적인 연계 기사들이 게재됨. 이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됨.

(2)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고 대약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함.

(3) 삼성, LG전자 등 대표적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홍보 활동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드라마 등에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대사와 상황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4)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점인 ‘코스트코’에서 한국식 갈비를 정식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함.

(5) 최근 미국의 미디어에 한식 소개 증가

- 메이저 라디오 방송인 KCRW 조나단 골드의 음식소개 프로그램 ‘굿 푸드 온 더 로드’에서 냉면 및 바비큐 타코로 유명한 ‘코기’가 소개됨.

- ‘엘에이 위클리’에는 춘천 닭갈비가, ‘웰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됨.

(6)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의 아이스쇼 ‘2010 올댓스케이트’가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됨. 미셸 완을 비롯한 세계적인 스케이터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많은 한인과 이시아인들이 참석함.

(7) 소프라노 조수미의 LA 공연. UCLA와 오렌지카운티 두 곳에서 일본 지휘자 토모니 니시모토와 함께 이틀간 공연함.

(8)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즈에서 미전역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아트쇼가 개최되었는데 이곳에 우리 음식인 갈비를 포함한 한식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미국인들이 한식을 시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9) 한국 스타일 만두 - 미국 판매명 ‘그린 찹스틱(Green Chopstick)’이 미국 유명 할인 체인점 ‘코스트코’와 영국계 유통체인 ‘프레시&이지(Fresh & Easy)’의 500여개 매장에서 선보이게 됨.

(10) 지난 11월 5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2010년 세계한식홍보축제’에 600여명의 인파가 참석하여 한식에 많은 관심을 보임.

2010 멕시코 한류 동향 보고

멕시코 / 멕시코시티

박금정 통신원

◆ 총 평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에서의 한류는 아시아에서의 한류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수준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활발하게 유입되지도 않고 있고, 많으면 일 년에 한두 개 드라마가 지역 방송국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드라마 이외의 가요나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는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여러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멕시코의 한류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한국의 대중가요 특히 아이돌 밴드의 경우 한국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멕시코에도 한국 아이돌 밴드의 팬클럽이 형성되는 현상이 2010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이미 멕시코에는 장동건, 안재욱과 같은 배우들의 팬클럽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다. 2002년 10월 <이브의 모든 것>, <별은 내 가슴에>로 한국 연예인 팬클럽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 2007년에는 배용준, 권상우, 채림의 팬클럽 등이 생겨났다. 아직까지 멕시코에 소개되는 한국대중문화가 충분하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는 멕시코 젊은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를 멕시코 현지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2008년 <내 이름은 김삼순>, 2009년 <대장금>이 멕시코 채널에서 방영이 되고, 멕시코에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 양상이 조금 변화해 지금은 이전에 비해 매우 다양한 배우와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일종의 한국 대중문화 마니아라고 지칭 할 수 있는데, 초창기 한류 팬들이 대학생 위주였다면 지금은 중, 고등학생으로 그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앞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의 도움으로 쉽게 한국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은 한류 팬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종의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이전에 비해 다양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콘텐츠의 보급만 활발해지면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멕시코 한류 팬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가요는 다른 중국이나 일본의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쉽게 접할 방법이 없고 멕시코 한류 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섭섭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 여행이나 유학을 가고 싶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강사도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말해 왔듯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는 충분히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 작업도 한 번만 하면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의 모든 나라에 진출할 수가 있다. 또 중남미에서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중남미가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니, 조금만 적극적인 진출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아시아권에 불었던 한류의 바람을 이곳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10 한국 방송 콘텐츠 공중파 방송 방영 전무

- 지역 케이블 방송에 이미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큰 반응은 없음.

2. 영화 산업

2010 한국 영화 멕시코 상업영화관 상영 전무

- 국립 영화관에서 <김씨 표류기> 상영, 관람 관객들은 색다른 느낌으로 재미있었

다는 반응을 보임.

3. 음악 산업

2010 한국 대중가요 현지 음악 프로그램 소개 전무

- 멕시코 팬클럽 각자가 한국 친구들을 통해 구입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해 한국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음.

4. 공연/전시 산업

(1) 2010년 상반기 멕시코시티 시가 주관하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2차례에 걸쳐 열림. 한인들은 사물놀이를 선보이고, 한국 음식을 판매함.

(2) 2010년 상반기 멕시코국립대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음식 바자회 및 한국 영화 상영회 개최. 한국 음식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영화 상영회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함.

(3) 2010년 11월 말 과달라하라 도서전에 한국문학번역원이 참가함.

5. 캐릭터/애니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한국 대중문화를 접한 멕시코 한류 팬들은 한국음식이나 한국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강함. 멕시코시티에 있는 10여개 한식당에서 팬클럽 모임을 갖는 등의 활동을 이어감. 한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한국어 교육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불만으로 꼽고 있음.

2010 브라질 한류 동향 보고

브라질 / 상파울루
임정희 통신원

◆ 총 평

2010년 브라질 내 한류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 아이돌 가수 음악의 유입이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한국 아이돌 가수의 방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TV나 라디오로도 한국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한국 대중음악이 전파되고 있다. 이중 브라질의 청소년층에선 보아나 슈퍼주니어의 열혈 마니아들이 생겨났다.

이중 마사(Masa)라는 청년은 보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유튜브에 보아 노래의 리믹스 버전을 올리다가 큰 인기를 끌자 아예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 대부분을 환상적으로 엮은 리믹스 버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대단한 인기와 칭찬을 받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낯선 브라질 땅에도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스 브라질 대회 본선 무대에서는 원더걸스의 'Nobody' 춤이 브라질 전체 방송에 생중계되었다. 많은 'Nobody' 패러디 중 가장 아름다운 'Nobody' 춤이 되면서 원더걸스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또한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10대 브라질 청소년들은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아예 슈퍼주니어와 똑같은 안무로 축제장마다 다니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상파울루 인근의 '꾸리찌바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브라질리아 슈퍼주니어 팀은 취미로서의 단계를 넘어 내년 2~3월경에 아예 'K-BOOM'이라는 주제로 한국 음악 강연회, 한국 음악 공연 등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을 정도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다보니 행사 경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 문화 축제여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지 난감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관심 있는 어른들의 후원과 실질적인 한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자료 수집, 진행 과정을 도와줄 멘토를 애타게 찾고 있다.

오로지 좋은 음악, 멋진 가수, 그리고 인터넷이 만들어낸 한류 바람이 멀고 먼 브라질을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불씨가 잘 피어오르도록 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보인다.

한인 교포들은 대부분 상파울루에 밀집해 살고 있기에 거리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브라질리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주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의 한류 관계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언뿐만 아니라 자료 제공, 후원, 격려 등을 통해 한류의 확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한류, 이제 아시아를 넘어 남미로 불어오는 그 길목에 브라질이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서는 날이 멀지 않았음에 가슴 벅차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해당 사항 없음

2. 영화 산업

* 한국영화주간

- 상파울루 시립중앙문화원과 상파울루 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2001년부터 시행됨.
-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14편이 총 24회차로 상영됨.
- 포르투갈어 자막 삽입으로 브라질인과 한국인 수천 명이 함께 관람해옴.
- 상영작 14편 : <봄, 여름, 가을, 겨울>(김기덕), <사과>(강이관), <괴물>(봉준호), <망종>(장률), <복수는 나의 것>(박찬욱), <오아시스>(이창동), <빈 집>(김기덕), <박하사탕>(이창동), <초록물고기>(이창동), <식객>(전윤수), <워낭소리>(이충렬), <밀양>(이창동), <주먹이 운다>(류승완), <똥파리>(양익준)

3. 음악 산업

(1) 원더걸스의 'Nobody', 미스 브라질대회 본선 무대에 서다

5월 8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 브라질 대회 본선 무대에서 원더걸스의 안무와 똑같이 공연을 펼친 미스 브라질 미인들의 모습이 브라질 전국에 생중계됨.

이 장면이 '미스 브라질 Nobody'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늘씬한 브라질 미인들이 추는 'Nobody'에 관심 집중, 'Nobody' 패러디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눈길을 끄.

인터넷 하나면 어디든 통하는 한국의 작은 소녀들 원더걸스의 국제적인 인기를 브라질에서도 실감하게 됨.

(2) 한국 아이돌 가수들 음악을 리믹스 버전으로 재창조, 유튜브 스타가 된 브라질 청년 MasaMixes

브라질 태생의 23살 청년 Masa(본명 Carlos)는 2005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들을 자기 식으로 리믹스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특히 한국 아이돌 가요에 관심이 많았음. 그 중에서도 보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임. 그는 보아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리믹스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2008년에 보아의 팬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다른 한국 아이돌 음악 작업에도 도전해 성공을 거둠.

유튜브에 올린 한국 음악 리믹스 작품에 수십만 명의 다국적 접속자들로 성황을 이루면서 원곡을 듣고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국 음악 홍보 효과가 나타남.

마사의 리믹스 음악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가 한국 노래를 리믹스 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가 만든 리믹스 작품들은 원곡을 각각 알고 들어도 너무나 정교하게 섞여 원래가 한 노래인 듯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소름 끼치는 감동을 준다는데 있다고 평가.

(3) 슈퍼주니어 브라질 팬들의 'Sorry, Sorry' 공연

7월에 열린 '아시아 페스티벌'에서 브라질의 슈퍼주니어 커버 댄스팀이 나와 'Sorry, Sorry'의 안무를 그대로 선보임.

상파울루 인근에 위치한 꾸리찌바 시에서 온 이들은 모두 한국의 슈퍼주니어 팬들로 구성된 브라질 학생팀임. 한국 학생은 한 명도 없는 100% 브라질 팬들이지만 이들은 아예 옷에 한글로 슈주의 멤버 이름까지 새겨 넣은 채 'Sorry, Sorry' 노래는 물론 똑같은 안무로 '아시아 페스티벌'에 모인 수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음.

(4) 한국 인기가수 TOP 10 선정, 슈퍼주니어 1위 차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한국 아이돌 가수 인기 설문조사가 실시돼 눈길을 끌었음.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거주하는 브라질 청소년 총 2826명이 한국노래 선호

도 설문조사를 통해 TOP 10을 발표함. 이 선호도 조사에서는 2137표로 슈퍼주니어가 1위를 차지함.

(5) 한국문화 알리는 ‘K-Boom’ 축제 자체 기획중인 열혈 브라질 청소년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사는 한국 아이돌 음악 마니아 10대 청소년들은 내년 2~3월경에 한국노래 발표회 및 한국문화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음.

한국문화가 ‘붐(Boom)’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K-Boom’이라고 행사 이름을 정한 이들은 이 순수한 자발적인 행사에 브라질 어른들과 한국문화관계자들의 물심양면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6) 브라질 보사노바 음악인들의 한국 방문 공연 줄이어

2010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브라질의 국보적인 아티스트 타니아 마리아 트리오의 연주가 있었음.

10월 4~6일에는 토니뇨 호르타와 잭리가, 10월 21~22일에는 싱어 송 라이터인 티아고 요르크가 각각 EBS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 보사노바 음악을 직접 들려줌.

4. 공연·전시 산업

(1) 거문고 팩토리 연주단 브라질 공연

한국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전통문화예술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거문고 연주단인 ‘거문고팩토리’가 브라질을 방문, 현지 공연단과의 공동 워크숍, 자체 및 합동 공연을 펼침.

11월 19일에는 거문고 팩토리 단독 연주(Mertamorphosis 공연), 24일에는 브라질 공연단과 합동 연주회를 개최함.

거문고 특유의 저음을 살린 정통곡 뿐만 아니라 파격적일 정도의 실험정신이 돋보인 새로운 연주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신선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

(2) 제6회 어울림 음악회

11월 11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6회 어울림 음악회’ - 쓰리엔젤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는 7살 어린아이부터 80세가 넘는 할아버지로 구성된 한인 아마추어 연주단과 브라질 시립 관악단원의 전문 연주인들이 어울려 격조 높은 클래식 화음을 선사함.

주옥같은 6곡의 명곡 외에도 목련화, 여수, 고향 땅 등의 한국 가곡을 소화해 내 70여 분간 한국인과 브라질 청중의 감동을 자아냄.

(3) 현대기아차 해피무브 봉사단의 한국 전통문화 공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빈민촌 집짓기 봉사에 참여함. 이들은 브라질 해비타트에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뒤 브라질 삼바공연과 한국전통무용, 마당놀이, 태권무, 사물놀이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도 함께 펼침.

(4) 서울대 독도레이서들의 한국 바로알기 거리공연

2월 8일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독도홍보사절단 ‘독도레이서(Dokdo Racer)’가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독도 바로 알기' 홍보 강연에 이어 달리기 행사, 판소리, 태권도, 풍물놀이 등의 거리공연을 통해 독도 알리미와 한국 문화 홍보자 역할을 함.

(5) 한인 도자기, 서예전

4월 5~9일까지 상파울루 시청 본관홀에서 재 브라질 한인 도자기협회 회원전이, 6~9일까지는 한인 밀집 지역인 봉헤찌로의 루스플라자호텔 컨벤션 룸에서 재한인 서예협회전이 열림.

'흙과 불의 축제'라는 부제 아래 15명의 회원작품 총 50여 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상파울루 시청을 찾은 브라질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음.

(6) 한일 문화예술인 교류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한 ‘열대의 유혹전’이 펼쳐짐.

한일 문화예술인들의 첫 번째 만남인 이 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화가 10명의 작품 전시회와 한국 시 낭독회, 한국 떡과 일본차의 궁합과 특징 소개, 각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두 나라의 다름과 비슷함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7) 한인 타운 지정 기념식 및 축하공연

상파울루 조례법으로 지정된 한인타운문화특구법령 발표 축하 공연이 5월 21일 브라질 정치, 문화, 언론인들과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열림.

이날 또닝뇨 시의원은 조례문(법령 Lei No. 15110)이 새겨진 한인 타운 지정 공식패를 서주일 한인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총영사관 측은 또닝뇨 시위원회에게 감사패를, 한인회 측에서는 서예작품을 선물함.

이날 기념식에는 어머니 합창단, 상파울루한국교육원의 사물놀이 팀이 신명나는 우리가락 공연으로 흥을 돋움.

(8) 제5회 한국문화의 날 풍성한 공연 한마당

5월 22일 브라질 한인회 주최로 열린 한국문화의 날에는 상파울루 법으로 공포된 코리아타운 지정 축하와 더불어 월드컵에서 한국 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더욱 성대하게 치러짐.

각종 전시회와 전통혼례복 무료 사진촬영 등이 열렸고 거리 교통통제를 허가받고 설치된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태권도, 사물놀이, 비보이, 전통춤 등의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과 한국 전통놀이 체험하기, 한국 음식 장터가 열려 브라질 사람과 한국 사람이 뒤섞여 한바탕 흥겨운 축제마당을 펼침.

(9) 2010 아시아축제(Asia Fest 2010)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5개국 이민자들의 문화축제인 '2010 아시아축제(Asia Fest 2010)'가 7월 9~18일까지 열려 약 15만여 명이 참가함.

상파울루 Mart센터에서 개막된 이 축제는 브라질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 연합 축제로 각 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음식, 전통문화 공연이 주를 이룸.

한국 측에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음식코너 외에도 태권도, 전통무용, 비-보이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브라질한인회 문화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알리기 홍보 활동도 벌임. 이번 행사에서 특히 관심을 끈 코너는 브라질 이름 한글로 써주기과 움직이는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브라질 이름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글놀이였음.

(10) 태권도 40주년 페스티벌

상파울루시와 주정부 체육국의 공식행사인 브라질 태권도 보급 40주년 페스티벌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꼬린찌안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림.

올림픽종목으로 도약한 한국 정통무술 태권도는 1970년 브라질에 도입, 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 최초 세계대회 금메달, 2007년 판암 아메리카대회 1호 금메달,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최초 동메달을 획득한 뒤 브라질 올림픽 장려종목으로 인정받음.

2016년 브라질의 리우 시에서 열릴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체육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태권도를 지켜보고 있어 태권도의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추세임.

(11) 태권도 시범 공연단인 코리아 타이거즈(K-Tigers) 브라질 공연

태권도 40주년 페스티벌을 위해 코리아 타이거즈(K-Tigers) 시범단이 브라질을 방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먼 길을 달려온 코리아 타이거즈 시범단은 1990년 창단, 지난 20년간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을 돌며

재미있고 신나는 태권도 보급을 위해 태권도에 한국무용, 비보이, 국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 종합예술을 보는 것처럼 흥겨운 무예춤판을 벌여 브라질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음.

(12) 한국 대학 태권도 대표팀 브라질 오픈 출전, 시범 공연 펼침

김현일 단장을 선두로 한 코칭 스태프와 출전선수(남자5, 여자4)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학 대표팀이 시범과 친선 경기 뿐 아니라 실제로 브라질 오픈에 출전해 태권도 종주국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임.

(13) 8월 8일 태권도의 날 지정 기념식 및 공연

2008년부터 상파울루 시에서 매년 8월 8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 및 축하 공연을 펼침.

이는 무술 분야로는 브라질에 처음 있는 일로 비교적 브라질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진 유도나 가라데가 아닌 태권도가 선정되기까지는 태권도의 국제적 명성과 더불어 허허벌판 브라질에서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초기 태권도 사범들의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됨.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1) 한국 온라인 게임 상파울루 수출 상담회 개최

(주)블루오션리더스가 12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주최로 상파울루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 수출상담회를 개최함.

6. 한스타일 및 기타

(1) 제16회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 59.4% 합격

상파울루한국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이 시험에는 총298명이 지원, 59.4%인 177명이 합격하였으며, 각 등급별 결과는 초급 65%(121명 지원 79명 합격), 중급 57%(122명 지원 70명 합격), 고급 51%(55명 지원 28명 합격)로 집계됨.

(2) 최근 한국의 아동문학이 세계 각지에서 번역, 출판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6월 리우 시에서 열린 '제12회 브라질 아동서적 박람회'에서 '한국 아동문학'이 금년 주제로 선정됨.

(3) ‘제4회 한글 전시회’ 개최

상파울루 대학(USP) 한국학 연구회(임윤정 교수, 학생 6명)는 한글의 독창성, 창제원리, 아름다움, 그리고 특히 정보사회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필수적인 간결성, 단축성, 과학성, 디자인 감각 등을 브라질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10월 1일에서 24일까지 상파울루 장미의 집 문화원에서 한글 전시회를 개최함.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이 한글 전시회는 이미 상파울루 대학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전시회로 올해는 약 5천여 명이 참석, 한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

국제교류재단과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서 후원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이 협찬한 이 전시회에서는 한글로 만든 아름다운 배너 소개, 한글 창조-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한국 음악, 한국어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각종 한글 기획 소품 등의 순서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는데 그중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브라질 이름을 한글 서예로 써 주는 행사와 ‘90분만에 배우는 한글’이었음.

(4) 한글 동화 포르투갈어 번역서 출판, 전시회

제4회 한글 전시회 기간 중 ‘한국의 아동문학’을 소주제로 정해 토론 및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한국 아동문학(포르투갈어 번역) 시장의 브라질 판로를 모색함.

(5) ‘자랑스런 한국인, 존경 받는 한국인’ 웅변대회 개최

민주평통브라질협의회에서는 10월 13일 ‘자랑스런 한국인, 존경 받는 한국인’을 주제로 청소년, 일반부 대상 웅변대회를 개최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을 알게 하며 자기 계발과 발표력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사회생활에 유능한 인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총 12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약 2시간여 동안 열띤 웅변실력을 겨룸.

(6) 한국음식 페스티벌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최 한국음식 페스티벌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상파울루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림. 특히 3일 저녁 7시에는 개천절을 맞아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곁들여져 눈길을 끌었으며 일본 총영사 내외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각국 외무 고위 인사 내외 등과 한인 각계각층 대표단체장 등 약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룸.

이 날 행사에는 인천 하얏트 호텔 조리사 두 명이 직접 브라질을 방문, 한국의 맛을 선보였는데 미역국, 갈비찜, 잔치국수 등 약 10여 가지의 한식이 소개되어 모든 참석 인사들로부터 호평과 극찬을 받음. 특히 김치를 특별 음식으로 선정해 요리법과 먹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브라질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함. 또한 28명의 어머니합창단(단장 이병화)의 ‘신 아리랑’, ‘노스트라 후아’ 등의 특별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는 더욱 고조됨.

(7) 브라질 내 한국기업 소식

① 고속철도 사업 입찰 경쟁업체 중 한국 가능성 가장 높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최와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치러질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리우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 입찰에서 한국이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제2의 도약'으로 표현되는 이 고속철도 사업에는 현재 삼성, 현대, 벤티 그룹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개입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입찰 결과는 아직 발표 전임.

② 삼성, 바이아 카니발 후원 - 공차면서 삼성, 춤추면서 삼성 홍보전략

브라질 자국민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인 북쪽 싸우바돌 카니발에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카니발 후원에 나섬. 브라질에서는 가장 유명한 명문 프로 축구팀의 가슴팍에도 삼성, 삼바 카니발 장에서도 삼성을 각인시키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은 주효할 것으로 보임.

③ 현대중장비 브라질 공장 건설

1억5천만 불을 투자하며 연간 최대 5천대의 중장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5월 브라질 언론을 통해 밝힘.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브라질 공장은 아시아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해외 중장비 생산 공장이 되는 것으로 기대가 큼.

④ 한진해운 불법 쓰레기 반송 경고

브라질 연방경찰이 8월 3일 히오 그란지 시 항구에서 가정용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를 적발함. 한국의 한진해운이 히오 그란지(Rio Grande) 항구로 운송한 22톤의 가정용 쓰레기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된 벌금 150만헤알(약 9억원)의 두배인 300만 헤알(약18억원)을 적용할 것이라 경고함.

⑤ 상파울루 지하철에 처음으로 한국 자동문 유리벽이 설치

상파울루 지하철역은 한국의 Trends Poscon사와 자동문 유리벽 설치건을 계약함. 총 62개 역 중 10개역에 자동문 유리벽이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역도 2011년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

⑥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 건설 시작

8월 18일 상파울루 주지사 관저에서 브라질 관계자들과 공장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그동안 미뤄졌던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 건설부지가 확정됨.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함.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57km 떨어진 빠라시까바에 지어질 현대자동차 공장은 총 6억 달러를 들여 연간 10만대 생산규모로 지어지며, 2010년 11월 착공되었고 2011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시장으로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의 2007년 판매가 전년보다 29%나 급성장한 238만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7% 늘어난 278만대, 2014년에는 338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 아프리카 지역 】

2010 프랑스 한류 동향 보고

프랑스 / 파리
민지은 통신원

◆ 총 평

영화에서 시작된 프랑스 내 한국 문화의 확산은 해를 거듭하면서 문학, 만화 및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전통공예 등 더욱 다양한 한국문화콘텐츠들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 내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흥행감독과 신작위주의 개봉에서 70년대 영화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제 수상과 현지 언론들의 평을 통해 작품성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의 TV 방영 시 황금시간대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얻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한국 영화에 대한 언론과 영화제를 통한 예술성의 평가 대중성이 일치하지 않은 아쉬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2010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지만 관객들의 평이 분분했던 <시>와 프랑스 언론에게 혹평을 받았으나 관객들로부터는 호평을 받았던 <하녀>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흥행 실패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잠시 주춤하던 한국영화의 개봉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올 상반기에 개봉했던 김기덕 감독의 <비몽>과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언론과 관객 모두에게서 혹평을 받았다. 이 작품들과 다른 개봉작품들의 평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동양적 신비로움만으로 프랑스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는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영화 시장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는 1% 미만의 점유율로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봉되는 한두 편에 영화에 대한 평가가 프랑스

대중들에게는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영화에 대한 예술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 작품들을 통해 그 대중성도 입증되었다.

2010년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그 예술성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우선 ‘오래된 정원’ 등으로 프랑스에서 잘 알려진 황석영 작가의 소설 ‘심청’이 르몽드지가 선정한 ‘휴가지에서 꼭 읽어야 할 도서’ 1위에 선정되었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줄이어 번역, 출간되고 있다.

또한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장르의 한국 만화가 유통되고 있다. 이는 특히 만화에 깊은 애정을 보이는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프랑스 내 일본 문화 확산에도 만화의 역할이 매우 컸다. 1970년대 프랑스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일본 만화는 90년대에 절정에 이르러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이 일본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인들의 일본문화에 대한 동경의 시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어 배우기 열풍도 일어났었다.

한류의 가능성은 음악에서도 볼 수 있다. 아직은 한국 대중음악이 프랑스 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 및 기타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즐겨 듣고 있다. 전통적으로 클래식을 사랑하고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위치가 한국과는 다른 프랑스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아시아 국가들과는 그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인기는 프랑스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국 대중음악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미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전통공예와 나전칠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을 접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과 프랑스 현지인들은 한국 전통의 멋이 깃들여 있는 작은 소품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으며 유럽에서의 유통을 검토해 보고 있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 * 라디오 방송 FRANCE MUSIQUE, '한국의 밤', 10월 7일(오전 1시 30분~7시)
 - 한국 음악과 함께 한국 문학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방송

2. 영화 산업

(1) 1월 6일, 유니르콩트 감독의 <여행자> 개봉

- 한불합작영화 : 프랑스의 로랑 라볼(Laurent Lavole)이 제작하였고 한국의 이창동 감독과 아역배우 김새론이 참여함. 한국에서 태어나 8살에 프랑스로 입양된 유니르콩트 감독은 이창동 감독의 소개로 이 영화를 서울에서 한국 배우, 스태프들과 촬영함.
- 현지 개봉명 : Une vie toute neuve
- 현지 배급사 : Diaphana Films
- 현지 관객평 : 3.9 / 5
- 현지 언론평 : 3.7 / 5
- 르몽드(1월 6일자) : 유니르콩트의 첫 번째 영화, 감독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풀어냄. 이 영화는 입양의 아픔을 어린이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함. 감독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여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음.
- 르피가로(1월 6일자) : 유니르콩트는 전혀 페이스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표현과 진솔한 감정보사로 관객을 사로잡음.

(2) 1월 27일, 봉준호 감독의 <마더> 개봉

- 현지 개봉명 : Mother
- 현지 배급사 : Diaphana Films(개봉관 39개)
- 현지 관객평 : 3.9 / 5
- 현지 언론평 : 4.4 / 5
- 르몽드(1월 27일자) : 우리는 다시 한 번 봉준호 감독만이 가진 그의 스타일, 그리고 그의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 한층 더 유사성을 갖는 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영화는 더 이상 난해한 무언가가 뒤섞인 장르가 아니라 활기, 어조, 정서를 표현함. 웃음을 자아내는 묘사들로 된 멜로. 이 작품의 연출은 사실적인 극을 심리적인 측면을

- 뛰어넘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했음.
- 르피가로(1월 27일자) :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한국의 위대한 영화인 봉준호 감독의 신작. 이번 작품의 연출은 최면에 걸린 듯하며 명료한 아름다움으로 구성됨.
- 리베라시옹(1월 27일자) : 또 하나의 잔인한 신작이지만 모순적이며 과장된 강한 인상을 멈추지 않고 보여주는 영화. 그의 영감은 그가 전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간결한 인간 드라마 액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했음.

(3) 1월 29일~2월 7일, '포럼 데 이마쥬' 영화제 한국특집

- '세계의 한 단면 그리고 영화'에서 '한국, 정체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영화 10편을 소개(꽃 파는 처녀, 피아골, 처음 만난 사람들, 히말라야, 반두비 등)함.
- 전문가 토론회 및 한류 소개 강연회가 개최됨.

(4) 3월 24일, 김기덕 감독의 <비몽> 개봉

- 현지 개봉명 : Dream
- 현지 배급사 : Films sans Frontières
- 현지 관객평 : 2.3 / 5
- 현지 언론평 : 2.4 / 5
- 르몽드(3월 24일자) :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인간의 일상을 충동과 허구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영화는 한국 영화감독 김기덕의 면모를 잘 보여줌. 또한 <비몽>은 몽환상태에서의 인간의 폭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매우 한국적으로 그려졌으며 초현실주의를 떠올릴 만큼 매우 독특한 주제.
- 리베라씨옹(3월 24일자) : 한국감독 김기덕은 여전히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이번 그의 졸작도 그 뒤를 잇고 있음.
-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와 함께 2010년 프랑스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더 이상 동양적인 신비주의만으로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보여준 영화임.

(5) 4월 14일,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개봉 : 13개 개봉관

- 현지 개봉명 : Breathless
- 6월 29일 현재 상영극장 : MK2 Beaubourg(파리), Le Club(살롱 드프로방스), Le Fellini(빌폰텐), Cinéville(라발), Le Forum(상베리)
- 현지 배급사 : Tadrart Films
- 현지 관객평 : 3.1 / 4

- 현지 언론평 : 20개 언론사 평균별점 3.1 / 4
 - 르몽드(4월 14일자) : 완성도 높은 연출.
 - 르 피가로(4월 14일자) : 인간의 본질적인 아픔과 기계적인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표현, 거칠고 어두운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연출.
 - 르피가로스콥 : 베스트 영화로 선정.
 - 문화 매거진 텔레라마 :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영화.
 - 르피가로 매거진 : 누벨바그영화를 모방한 엉터리 리메이크영화.
- 2009년도 ‘빌아시아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개봉 당시 프랑스 언론과 관객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임. 또한 현지 관객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 내에서 한국 영화의 인지도 및 대중성이 낮아 주간 흥행작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흥행률도 프랑스 전체영화시장과 비교하여 분석이 힘들 정도로 그 규모가 아직 미비함.

(6) 5월 5일,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봉

- 현지 개봉명 : Les femmes de mes amis (내 친구들의 여자들)
- 6월 29일 현재 상영극장 : 파리 및 근교 상영관 Reflet Medicis, Cinéma Le Denfert, Les Toiles, Utopia Stella, Cinéma 11x20+ 14 외 12개 지방상영관
- 현지 배급사 : Happiness(개봉관: 13개로 시작, 17개로 확대)
- 현지 관객평 : 1.6 / 4
- 현지 언론평 : 18개 언론사 평균 별점 2.5 / 4
 - 5월 4일, 르몽드 : 인물들의 감정과 성격을 생동감 있게 표현.
 - 5월 5일, 리베라시옹 : 생동감, 유쾌함을 잊지 않은 영화.
 - 5월 4일, 익스프레스 : 홍상수가 가지고 있는 마력을 무의미한 에고이즘에 빠뜨려버린 영화.
- 홍상수 감독의 예술성과 작품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언론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개봉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홍상수 감독의 작품성 및 그의 역량에 비추어 평가함. 그러나 이번 작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역량과 명성에 걸맞지 않는 작품이라고 평함.

(7) 2010년 칸 영화제에서 <시>는 ‘각본상’ 수상, <하하하>는 ‘주목할만한 시선상’을 수상함.

(8) 6월 2일~21일,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고 이만희 감독 회고전 개최

- 2005년 ‘한국 영화 50년’ 이후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한국 영화 특별전임.
- <검은머리>, <돌아오지 않는 해병>, <YMS504의 수병>, <창공에 산다>, <고 보이강의 다리>, <쇠사슬을 끊어라>, <들국화는 피었는데>, <암살자>, <0시>.

<삼포가는 길>, <휴일>, <생명>, <1950년 4시>, <마의계단>, <물레방앗간>, <원점>, <귀로>, <여섯개의 그림자> 등 총 18개 작품이 상영됨.

- 6월 2일 개막행사에 400명 이상이 참석함.
- 장소 :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상영관
- 주관 :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한국영상자료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후원

(9) <2010, 페스티벌 파리시네마>의 '미개봉 작품 시사회'에 이창동 감독의 <시>와 임상수 감독의 <하녀> 초청

- <하녀>가 7월 8일, <시>가 7월 11일에 MK2 BNF 상영관에서 상영됨.
- 상영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등 상영관의 350석이 부족했음.

(10) 아르떼TV(ARTE TV)에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6월 28일 오후 8시 35분)과 김기덕 감독의 <빈집>(7월 21일 오후 10시)이 방영됨.

(11) 8월 25일, 이창동 감독의 <시> 개봉 : 55개 상영관

- 현지 개봉명 : Poetry
- 9월 18일 현재 상영극장 : MK2 Bastille 외 파리 5개 상영관, Cin'Hoche 외 파리 교외지역 20개 상영관, Cinema paul lebrun(클레르몽), cinema jour de fete(기소르)
- 현지 배급사 : Diaphana Distribution
- 현지관객평 : 3.6 / 5
- 현지언론평 : 20개 언론사 평균별점 4.1 / 5
 - 르몽드(8월 24일자) : 감독의 작가적 재능이 돋보이는 영화
 - 르 피가로(8월 24일자) : 아름다운 멜로드라마, 공기와 빛과 그리고 여배우 윤정희의 우아함이 배어있는 영화.
 - 문화 매거진 텔레라마(8월 25일자) : 한국 할머니들의 초라한 삶과 시를 향한 열정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영화.
 - 르파리지앵(8월 25일자) : 대작의 시들처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우아함을 우리에게 선사한 영화.
- 2010년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개봉당시 프랑스 언론지와 관객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음. 또한 모든 언론지를 통해 호평을 받았음은 물론 르피가로스콕, 르파리지앵, 텔레라마 등 6개 언론지에서 별점 5개를 받음.
- 개봉에 앞서 '페스티벌 파리시네마'의 미개봉작품 시사회부문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음.
- 현재까지 관객의 63%가 별점 4개 이상, 37%가 별점 3개 이하로 평함.

(12) 9월 3일,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임권택 감독의 <증언>(1974, 오후 8시)

과 이두영 감독의 <용호대련>(1974, 오후 10시 15분)이 상영됨.

(13) 파리 고몽 파르나스에서 ‘영화를 통한 7일간의 한국여행’ 개최

- 장소 : 파리 고몽 파르나스 영화관 (1편당 5유로)
- 일시 : 9월 13일 ~ 19일, 매일 저녁 8시
- 상영작품 : <JSA>, <빈집>, <두만강>, <살인의 추억>, <엽기적인 그녀>, <추격자>, <밀양>

(14) 9월 15일, 임상수 감독의 <하녀> 개봉 : 40개 상영관

- 현지 개봉명 : Housemaid
- 9월 18일 현재 상영극장 : MK2 Odeon외 파리 11개 상영관, Georges Melies 파리 교외지역 상영관과 Eldorado(디종)상영관 외 27개
- 현지 배급사 : Pretty Pictures
- 현지 관객평 : 3.7 / 5
- 현지 언론평 : 20개 언론사 평균 별점 3 / 5
 - 텔레라마(9월 14일자) : 백만장자의 저택에서 일어나는 소름끼칠 정도로 관능적이며 화려한 스릴러.
 - 메트로(9월 14일자) : 대담하면서도 기발하고 혁신적인 작품, 새롭게 재발견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 때론 얼듯한 살기를 느끼게 하면서 때론 관능적인 영화.
 - 렉스프레스(9월 14일자) : 간결하면서도 미학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임. 다른 곳에서 평하는 것처럼 비판될만한 것도 없고 과장된 꾸밈도 없음.
 - 르몽드(9월 14일자) : 마치 고급스러운 데코레이션이나 요리 잡지에서 발견될 듯한 약간은 그 술책에 속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
 - 리베라시옹(9월 14일자) : 에로틱하면서도 얼어붙을 듯한 춤사위처럼 시작하는 이 영화는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악랄함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갑부’의 거만함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게 하는 영화.
 - 르피가로스콥(9월 14일자) : 너무 왜곡적이며 지나친 형식미에 사로잡혀 있는 영화.
 - 카이예드 시네마(9월 14일자) :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임상수 감독.
- 칸 영화제 수상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놀라울 정도로 개봉전날인 14일, 20개의 언론들이 일제히 비평의 글을 보도함. 더구나 그 평도 별점 5개부터 별점 1개까지 매우 상이함.
- 현재까지 관객의 75%가 별점 4개 이상, 25%가 별점 3개로 평하였으며 별점 2개 이하는 0%로 관객들에게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15) 르몽드 10월 19일자에 ‘부산국제영화제’ 소개

부산 영화제의 성공요인을 ① 한국의 젊음 감독들의 열정, ② 영화인, 제작사 그리고 투자자 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형성된 시장, ③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 등으로 꼽음.

(16) '제5회 파리 한불영화제' 개최 : 11월 9일~16일

- 주관 : 한불 젊은이들의 모임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등
- 상영작 : 개막작 <아저씨>, <하하하>, <딸의 여자>, <저 달이 차기 전에>, <멋진 하루>, <돌아온 외다리> 등 장편 12작품, 단편 13작품
- 장소 : 파리 6구에 위치한 악시옹크리스티안 극장(상영관 2개, 각각 155석과 90석) 및 파리 외곽의 르비주 극장
-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 등 프랑스의 권위 있는 영화제들로부터 협찬받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영화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던 부문임. 2010년 한국영화는 지난 1월, 한국계 프랑스감독 우니르콩트 감독이 만든 첫 한불합작영화 <여행자>와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대한 호평으로 시작함.

<똥파리>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프랑스 개봉에 따른 현지 비평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의 작품성과 예술성, 그리고 소수 한국감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이미 갖춰져 있음을 볼 수 있음. 2010년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도 이를 뒷받침함. 뿐만 아니라 세계 거장들의 작품만을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영화전'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한국 영화가 각종 영화제에 주빈국으로 초청되는 것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임.

지난 칸 영화제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시>와 <하녀>가 파리영화제에서 선보였을 때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관심으로 미루어보아 영화제 출품이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관객평에 있어서는 각본상을 수상하고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시>의 경우 그 의견이 분분하였고 프랑스 유력지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하녀>의 경우에는 75%이상이 매우 긍정적인 평을 했으며 나머지 25%가 만족한다고 말함.

프랑스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괴물>과 <빈집>이 지상파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어 프랑스에서의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줌.

또한 지난 6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열렸던 '이만희 감독의 회고전'에 이어

지난 9월 3일에는 동 상영관에서 1970년대에 제작된 임권택 감독의 <증언>과 이두영 감독의 <용호대련>이 상영되는 등 ‘이만희 감독의 회고전’ 이후 한국 고전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 영화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지난 10월 19일 르몽드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집중 보도했으며 한국 영화 시장의 눈부신 질적 성장을 영화제 성공요인으로 분석하여 보도했음.

3. 음악 산업

(1) 국제음악박람회 MIDEM 2010 (1월 24일~27일)

에프엑스와 에픽 하이가 대중음악 쇼케이스인 ‘K-Pop Night’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펼침.

(2) 쟁쟁한 음악가 나운선이 9월 29일 텔레라마를 통해 큰 호평을 받음.

한국 음악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이 큼. 나운선 앨범의 경우 대형음반판매사인 Virgin과 Fnac 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아직 한국대중가수들의 앨범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대중가요의 음원을 다운받아 즐겨 듣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음.

4. 공연 · 전시 산업

(1) 한국작가 11인 특별전 <Néo-graphie>

- 일시 : 3월 12일~4월 11일
- 장소 : 국제예술촌(Cité International des Arts) 전시장(파리시)
- 전시장 크기 및 관객수 : 600m2, 개막행사 500명이상 참석
- 주최 및 주관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대사관 후원

(2) 제5회 디지털아트 축제 ‘뱅쉴메리끄’ 한국특집 마련

- 일시 : 6월 12일~19일
- 주관 : 프랑스 엉겅레뱅 아트센터(세계 디지털아트 네트워크인 RAN의 의장기구,

전 세계 38개 디지털아트 연구 및 예술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 후원 : 프랑스문화부, 삼성, 프랑스텔레콤 Orange 등
- 한국특집 후원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삼성, 기아자동차, 아시아나항공,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등

(3) 첼리스트 장한나, 상제리제 극장에서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단’과 협연

- 일시 : 4월 17일 저녁 8시

(4)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의 음악회' 개최

- 일시 : 6월 25일 저녁 8시
- 장소 : 앵발리드 대성당
- 주관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및 한국 문화원
- 약 3백명 참석

(5) 공동작품 <코뿔소>, 아비뇽오페스티발에서 공연

- 일시 : 7월 7일~29일
- 장소 : 아비뇽시의 떼아트르 데 알(Théâtre des Halles)
- 제작 : ‘떼아트르 데 알’과 ‘주불한국문화원’ 등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함.
- 뤼마니테, 보크리즈, 라프로방스, 르푸앵 등 현지 언론에서 화제작으로 보도됨.
 - 르푸앵지 : 한국 배우들의 연기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이었으며 그 움직임은 거의 안무에 가까운 우아함을 담고 있었음.

(6)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참전용사들을 위한 '리틀엔젤스' 공연

- 일시 : 9월 8일 저녁 8시
- 장소 : 팔레드 콩그레(Palais de Congres)
- 관객 수 :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주요국 외교사절 등 약 3천 7백여 명

(7) 궁중연례악 ‘태평서곡’ 공연

- 일시 : 9월 25일(20시), 26일(17시)
- 장소 : 께브랑리 박물관내 Claude Levi-Strauss극장(390석)
- 주최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주관 : 일드 프랑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국립국악원
- 께브랑리 박물관 : 2006년 6월, 프랑스 전 대통령 자크시락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설립된 국립박물관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문명의 예술작품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품들을 전시함.

(8) ‘한국 현대도자 특별전’ : 제44회 유네스코 IAC 정기총회의 일환

- 전시명 : 교차와 소통
- 전시기간 : 9월 12일~19일
- 주최 : 한국도자재단

(9) 뉴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 전시회

- 일시 : 6월 15일~7월 30일
- 장소 : 파리 에마뉘엘 페루틴 갤러리

(10) 이수연(바이올린), 이수진(첼로), 루브르박물관 오디토리움에서 콘서트

- 일시 : 10월 14일
- 르피가로스콥 10월 3째주 호에 소개

(11) 제37회 FIAC 2010

- 일시 : 10월 21일~24일
- ‘국제 갤러리’ 이후환, 이기봉 구본창, 박서보, 김홍수, 홍승혜 작가 등의 작품을 그랑팔레에서 전시됨.
- 특히 파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후환 교수의 작품이 주목 받음

5. 캐릭터 · 애니메이션 산업

(1) ‘제37회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앙꼬(최경진)’의 단편집 <오늘은 없어(열아홉)>가 경쟁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됨. 2007년 프랑스만화비평가협회상 후보에 올랐던 박건웅의 <꽃>, <노근리 이야기 1>에 이어 3번째임.

(2) 2월 4일 ‘제16회 브줄 국제아시아 영화제’에서 전규환 감독의 <애니멀 타운>이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 NETPAC(아시아영화의 프로모션을 위한 네트워크 상)를 수상함. 파리 기메박물관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상영됨.

(3) 만화가 박철호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Seoul District>가 프랑스 예술 TV채널인 ‘ARTE TV’를 통해 4월 15일, 저녁 10시 30분에 방영됨.

- 주제 : 한국 만화 제작의 비밀
- 4월 13일 야후 프랑스 검색어 10위

(4) 한국애니메이션 작품 <리틀리 팝>이 제47회 프랑스 건본시장 MIP TV(4월 12일 ~ 16일 개최)의 ‘Contents 360’ 공모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함.

(5) 캐릭터 '동구리' 권기수 작가 전시회

- 전시명 : I Have A Dream
- 전시일시 : 6월 18일 ~ 7월 17일
- 전시장소 : 파리 오페라갤러리(Opera Gallery)
- 특이사항 : 피가로지 7월 10일자에 전시 소개 글 기재

프랑스 내에서 일본 만화의 성공과 더불어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2003년에는 '제30회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 한국이 초청된 바 있으며 현재 프랑스 내 11개 이상의 출판사가 프랑스어로 한국 만화를 출판, 유통 중임.

프랑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판된 한국 만화는 1997년 이현세 작가의 <블루엔젤> 시리즈이며, 그밖에 천계명의 <오디션>, 신일숙의 <리니지> 등 50여개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음.

프랑스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2003년 <마리아 이야기>, 2004년 <오세암>, <원더풀 데이즈>가 있으며, 2004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특별전을 마련하여 총 52편을 선보임.

1970년대 프랑스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일본 만화는 90년대 절정에 이르러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이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성장하였고, 이는 일본 문화 동경의 시작이 됨. 이에 따라 일본어 학습 열풍도 일어남. 현재 한국 만화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한 한류 열풍의 가능성이 감지됨. 특히 프랑스는 BD라 불리는 프랑스만화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만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

프랑스에서 한국 만화는 manhwa 또는 BD coréen(한국 BD), 일본 만화는 manga, 프랑스 만화는 BD(Bonde-Dessinée)라고 불림.

6. 한스타일 및 기타

(1) 황석영 작가 <심청> 출간, (1월 7일)

-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 영화축제(1월 29일~ 2월 7일) 행사의 일환으로 '한류소개강연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월 4일, 포럼 데 이마쥬 상영관
- 참석인원 : 프랑스현지인 백여 명

(2) 제 18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4월 17일)

(3) '한국 아뜰리에의 밤' 개최

- 일시 : 5월 3일
- 장소 : 파리 7구 빅토르 뒤뤼이 고등학교
- 주관 : 한국언어문화교육협회
- 한불관계자 50여명이 참석
- '한불아뜰리에'는 프랑스교육부와 한국교육부의 지원아래 프랑스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예술, 역사지리, 사회경제 등을 총괄적으로 알리는 교육협력사업임.
- 2009년 이후 '한불아뜰리에' 개설학교 : 5개 지역, 20개 중고교
 - 루앙시 : 카이뮤 생-샹스
 - 파리지 : 빅토르 뒤뤼이, 장송 드사이, 프랑 부르주아
 - 낭트시 : 생가브리엘을 포함한 2개 학교
 - 보르도시 : 7개 학교 등
- 현재 프랑스의 1,065명이 '한불아뜰리에' 학습장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진은 35명임.

(4) 주불대사배 태권도 대회

- 약 400개 시합 진행,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초청한 <점프> 공연
- 일시 : 5월 15일
- 장소 : 리옹시 팔레테스포르
- 주관 : 프랑스 태권도연맹(FFTDA),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5) 세계 최대 생활디자인 무역박람회 '2010 메종 오브제 가을'에서 한국 디자인 각광

- 일시 : 9월 3일~8일
- 장소 : 파리 노르 빌팡트 전시장
- 방문객 : 약 1만 3500명
- 주요 출품작 : 티백(Tea bag), 메모지, 북마크 등의 소품에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제품
- 현지반응 :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작고 기발한 소품들에 큰 관심을 보임.

(6) 에비앙 골프대회 우승

- 르피가로지 (7월 24~25일(주말), 26일 전면기사)
- 1998년 박세리 선수 이후 세계 정상에 차지하고 있는 한국여성골프선수들에 대해 집중 분석함.
- 세계 톱 50위안에 20명의 한국선수가 포함된 한국여성골프의 힘을 부각시킴.

(7) 한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차림상 사진 (피가로매거진 7월 3일, 전면 두면)

(8) 황석영 작가의 소설 <심청>

- '휴가지에서 읽어야 할 도서 문학부문1위'에 선정 (르몽드지, 7월 1일자)
- 르몽드 도서, 7월 2일자에 소개
- 지난 6월까지 3쇄 8천부 판매

(9) 일본식당 소개 잡지 8월호, '와사비'에 '일본의 이웃식탁'으로 한식이 소개됨.

(10) 르피가로 10월 21일, 한국 BB크림 소개

(11) 10월 20일~2011년 1월 24일, 기메 아시아 박물관에서 18세기~20세기 아 동북이 전시됨.

(12) '프랑스 문화유산 박람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의 나전, 도자, 매듭, 소목, 칠보, 한지 등의 작품 소개

- 일시 : 11월 4일 ~ 7일
- 장소 :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카루젤 뒤 루브르' 전시장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아뜰리에 다르 드 프랑스(Ateliers d'Art de France)'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박람회 방문객 : 2만 여명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2010 파리국제박람회'에서 한국 전통공예와 나전칠기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에 이어 '2010 메종 오브제'에서도 한국 전통의 멋이 깃들여있는 작은 소품에 대한 프랑스 현지인들과 여러 유럽국가의 바이어들의 관심이 매우 컸음.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아뜰리에 다르 드 프랑스(Ateliers d'Art de France)'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져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문화유산 박람회'에 초청됨.

지난 1월 프랑스 '줄마(Zulma)' 출판사에서 출간된 황석영 작가의 <심청>이 프랑스인들이 휴가지에서 읽어야 할 도서 1위에 선정이 되는 등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그 작품성이 인정받고 있음. 황석영 작가는 <오래된 정원> 등의 출간으로 프랑

스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그 외에도 조정란 작가의 <혀>(2010), 신경숙 작가의 <리진>(2010), 안도현 작가의 <연어>(2008) 등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어 판매되고 있음.

2010 이집트 한류 동향 보고

이집트 / 카이로
오세종 통신원

◆ 총 평

2010년은 한국과 이집트 외교관계 정상화 15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국은 여러 가지의 문화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이집트에서 실시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화 행사는 6월 2일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던 한국문화축제였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인기가요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가야금, 태평무, 부채춤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도 이집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한국의 전통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11월 4일과 5일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이집트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대회동안에 한국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이집트를 방문해서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서 이집트 청소년들의 마음에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게 했다. 11월 11일에는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악오케스트라 공연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2010년 한 해동안 아쉬웠던 점은 이집트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한국의 인기드라마가 단 한편도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내 이름은 김삼순 등이 방영되어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집트에서 인기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는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 등의 다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기준이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집트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인터넷 사용 국가라는 것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인터넷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일반 대중들의 인터넷 사용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010년에 이집트 공중파로 한국의 드라마가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가을동화>, <겨울연가>의 감동을 잊지 않고 있는 이집트의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를 접할 수 있었다.

2011년 중동-아프리카에서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주도해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한류문화가 널리 퍼진다면 아랍권 전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나 노래는 다른 아랍국가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볼 때 이집트에서의 한국 문화 전파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한국 문화 전파는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에는 더 많은 드라마, 영화와 음악이 이집트에 많이 소개되어 한국 문화를 이집트인들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10년 한 해, 이집트 국영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드라마, 영화, 교양, 오락, 다큐 등)이 방송된 실적 없음.

이집트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위성채널은 KBS월드, 코리아TV, 아리랑TV, YTN, CGN 등이 있지만 이러한 위성채널 중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이집트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채널은 ‘KBS월드>코리아TV>아리랑TV’ 순임. 이유는 KBS월드와 코리아TV와 아리랑TV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나 K-Pop, 오락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임. KBS월드와 코리아TV 아리랑TV를 제외한 나머지 위성 채널은 이집트의 젊은이들에게 흥미가 없는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KBS월드는 한국의 최신 인기 드라마와 K-Pop, 오락 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음.

2. 영화 산업

금년 한 해 동안 이집트 극장을 통해서 상영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음.

이집트에서 10대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배우 비가 출연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이 상영되기는 했지만 그리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음.

이집트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는 한국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한국 영화 페스티벌을 열어 <말아톤>, <킹콩을 들다>, <국가대표>, <위낭소리> 등의 영화를 상영해서 많은 이집트인들의 흥미를 끌기도 했음. 위의 영화중에서 이집트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가장 많이 끌었던 영화는 <말아톤>이었음.

이집트에서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아랍권의 영화가 많이 상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동양 영화는 거의 상영되고 있지 않음.

이집트 일반인에게 동양의 영화하면 생각나는 것은 중국의 쿵푸나 일본의 사무라이가 연상되는 것이 보통임. 한국의 영화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금년에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된 ‘제34회 카이로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의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가 출품되어 주연 배우인 윤정희 씨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소피아 로렌, 알랭 드롱과 함께 평생공로상을 받았음.

3. 음악 산업

한국음반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음반 시장에서는 한국 음반을 살 수 없음. 한국 노래와 가수를 아주 좋아하는 이집트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인기 가요를 접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동남아시아에서 팔리는 해적판을 구해서 듣기도 함.

이집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로 여겨지는 가요를 좋아함.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권의 거의 모든 가요는 아랍의 전통 가요 리듬을 바탕으로 작곡되어 비슷한 리듬의 곡들이 아주 많음. 또한 가수의 나이에 관계없이 한 번 인기가 있었던 곡은 세대를 넘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음.

4. 공연/전시 산업

6월 2일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대사관 주최로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음. 8백여 명이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접해보려는 이집트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음. 소고와 태평무, 태권도 시범과 특히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보이들의 브레이크 댄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음.

11월 4일과 5일에는 한국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주이집트 한국대사관과 이집트 태권도 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하여 삼스클럽, 아인삼스대학교, 슈팅클럽 등에서 시범을 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었음. 참석인원은 연 인원 2천여 명이었음.

11월 11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음. 4백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으며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풍물놀이 등이 공연되어 한국의 전통 선율을 처음으로 선보였음. 이집트 관객들은 활동적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풍물놀이를 할 때는 관객과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음.

11월 29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주최 ‘한국 관광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음. 이집트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 관광에 관심이 있는 2백여 명의 이집트인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의료관광에 대한 소개를 받았음. 자생한방병원이 참여하여 한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

5. 캐릭터/애니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해당 사항 없음.